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지대 십억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길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회장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2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153호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정 인 악

지금부터 40년전 일이다. 동국대 3학년 재학중인 나는 24살에 하보병으로 군입대를 했다. 내 보직은 탄약고 경비수였다. 밤만 먹으면 탄약고 앞에서 실탄으로 완전군장을 하고 두 눈과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경비를 섰다. 우리 부대는 의정부와 동두천 사이에 위치해 미군이 주둔했다. 당시만 해도 미군이 취미사냥을 많이 했던 때라 후방임에도 우리는 총성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전봇대 작대기에 앉은 솔개를 발견했다. 불현듯 총을 겨누고 여러방을 쏘았다. 비켜가는 총알도 있었지만, 제대로 맞추었는데도 솔개는 멀리 도망갔다. 원래 솔개라는 놈이 겁은 탈 때문에 수복하지만 실제 몸동이는 작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 하는 수 없이 돌아서서 논두렁을 보니 백로가 한 다리로 우아하게 서있는 것이었다. 나는 찰나의 생각조차 없이 그대로 백로를 향해 총을 한방 쏘았다. 적중했다. 맞추어 잡았다는 생각도 잊고 터덜터덜 걸어와 보니 누가 백로를 주워다 초소 앞에 놓았다. 죽은 백로는 날개를 활 벌려 사지를 편 채 엎어져 있었다. 그 섬뜩함이란…

나는 왜 백로를 죽였나

내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이 엄습했다.

'도대체 왜 나는 저 백로를 죽였나. 저 백로는 왜 무시로 내 총에 맞은 것일까. 죽일 이유도, 또 죽여서 취할 이득도 없으면서 왜 나는 저 백로에게 총을 쏘았나. 맞춰 볼려고 여러 방을 쏜 솜개도 못맞춘 실력인데 한방에 죽인 악연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의문과 뉘우침을 마음속으로 던졌다.

그 후로는 쥐 한마리도 죽일 수 없게 됐다. 심지어 바퀴벌레 등 해충이라는 미물조차도 죽이지 못했다. 지금 내 사무실에는 커다란 학그림이 걸려있다. 여느때 문득 그 그림을 보다가도 그 때 그 백로를 떠올리고는 참회를 하게 된다.

또 내 큰딸 이름을 숙고 또 숙고해 지은 것이 '수완(秀婉 · 영어표현상 백조 swan)'임을 생각하면 백로는 나에게 결코 작지않은 인연이다. 그리고 나는 이글을 지성으로 그 백로를 천도하는 발원문으로 또 천도 참회문으로 쓴다.

〈(주)남영 회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열린마당-'萬佛 조성' 21면

"경제 살리자"…교계 '허리띠'

과소비 추방 · 해외 성지순례 자제등 확산…매일 위기극복 기원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며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비롯 각 종단과 사찰들은 과소비 · 해외여행 자제, 외제품 구입금지, 송년법회 축소, 자가용이용 자제, 에너지절약 등의 경제위기 극복운동에 돌입했다.

종단협(회장 월주)과 조계종 · 천태종 등은 최근 잇따라 회의를 갖고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와 불자 실천지침을 마련, 각 종단과 본 · 말사에 시달했다.

조계종은 11월25일 불자실천 지침으로 △해외성지순례 및 여행 자제(부득이한 경우 종단에 사전신고 승인) △외화환전 △외제사치품 구입 및 외화낭비 억제 △불전공양에 외국 농산물과 다과류 금지 △대중교통 이용 △1일1회 국가위기 극복위한 기도봉행 등을 확정했다.

천태종은 11월27일 종단간부회의를 열고 △해외여행 자제 △총무원과 각 말사 운용경비 절감 △신축불사 최대 자제 △자동차 10부제운행 실시 △총도들대상 저축장려 및 과소비 추방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앞서 경남불교협의회(회장 월파 · 통도사 주지)는 11월24일 창원 KBS홀에서 봉행한 '경남불교지도자 호국기원 영산대법회'에서 총체적 위기국면에 직면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가 지도자들의 대오각성과 국민 대화합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설조 · 불국사 주지)을 비롯 한국노총 등 32개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11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선포했다. 한편 작지사(주지 녹원)는 5일 개최되는 교구종회에서 경제살리기운동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며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 지선)도 경제극복을 동참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불자들은 외화환전, 가정에서부터 아껴쓰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 교계 각 단체들도 송년의 밤행사를 축소하는 등 부도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고환율의 여파로 올겨울 인도, 미얀마 등 성지순례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성지순례를 주관하고 있는 교계 여행사의 경우 모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 해초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1달러 9백원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 1달러당 1천1백원대를 유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여행사측도 어렵지만 불자들의 외국여행자제로 신청 취소가 늘고있다"고 말했다.

〈김중근 · 한명우 기자〉



◇위기의 경제를 구하는데 불자들이 나섰다. 우리는선우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여성불교연합회 불교부인회 조계사청년회가 공동으로 '달러모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환경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조계종 환경위, 전국사암에 공문

조계종 산하 모든 사찰은 내년 6월 30일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계종 사찰환경위원회(위원장 능관 · 총무원 사회부장)는 11월26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대책 결과보고요청서'를 각 교구본사 및 직할사암에 발송했다.

사찰환경위원회가 이날 발송한 공문은 △환경오염 방지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98년 사찰 예산 신설 △환경오염 실태조사 실시 △오염방지처리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사찰은 29일까지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98년 6월30일까지 생활하수 정화조, 쓰레기 소각장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관련 조계종 사찰환경위원회는 지도감사반을 구성, 98년 2월 16일~21일까지 일주일동안 사찰환경오염지역 및 시설 지도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문화유산헌장' 8일 선포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 · 보존해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을 명문화한 '문화유산헌장'이 제정됐다. 11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헌장은 8일 창덕궁에서 열리는 '97문화유산의 해' 폐막식에서 공식선포된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등을 담은 서문과 5개의 세부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이 헌장은 책자나 홍보물, 표석 등에 수록되어 지속적인 국민 문화유산 보호 운동으로 결쳐진다.

문화유산헌장

-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 문화유산은 주위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과과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 학교 · 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국민통합 기회로"

월주스님 대국민성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24일 대통령선거와 침체일로의 경제위기를 맞아 정치권과 국민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단협과 조계종총무원 공동명의로 발표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입후보자와 국민에게 드립니다' 제하의 성명에서 월주스님은 "이번 선거는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감정등 제반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정치, 경제 남북문제 등 8개항에 대한 자성과 발전적 정책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선과 관련 월주스님은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국민을 계도 해야 하고, 국민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그 정책의 수행능력 여부를 파악,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동국대 새싹불자 포교나섰다 22면

'법성게' 지은이 누구인가 9면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 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수록 감동과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공모 내용

△주 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 110-170)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사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97 문화유산의 해
"문화유산은 과거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북선 · 범종전문
宏武工社
02)745-3860~4

전통의 멋

본 작품에는 옛 선조의 얼굴와 혼가 스며있으며
외적으로는 전통의 멋과 생활공간의
우아함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며
내적으로는 가정의
행복과 자손의 번영을
지켜드립니다.







100여개의 부속품을 깎고 또 다듬어 섬세한 구조와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 한정된 작품 한점 한점에 소장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POINT
풋깊은 문화유산의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저희 궁무공사에서는 한정된 작품을 제작비에 공급해 드립니다.
- 황금거북선 : ₩500,000 → ₩250,000
- 에밀레 종 ₩500,000 → ₩400,000
- 금관총 금관 ₩500,000 → ₩250,000

문화보존은 우리의 의무며,
문화교류는 우리 미래로의
비전입니다.
우리 문화가 있어야할 곳,
그 자리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이 함께해야 합니다.

■ 황금 거북선
독립기념관 제1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북선의 그 공정을 토대로 고증위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 재 질 : 동, 순금도금(99.9%) ● 규 격 : 317×175×235m/m

■ 에밀레 種(國寶 第29號)
장인정신의 전통기법과 현대 첨단 과학 기술을 조화시킨 명품으로서 타종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소리는 우리민족의 숨결을 담고 있으며, 그 여운 또한 아름다우며 신비스럽습니다.
● 재질 : 청동 ● 규격 : 410×235×445m/m
● 기술자문 : 서울대학교 기술생산연구소
● 문양자문 :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전 국립중앙 박물관장
● 작 가 : 故 강익 작품내역
▶ 1985년, 보신각 새종 ▶ 1986년, 수원시민의 종 ▶ 1988년, 전주시민의 종
▶ 1993년, 엑스포 '93 대종 ▶ 1993년, 창원시민의 종

■ 금관총 금관(國寶 第87號)
우리나라의 금관중 가장 대표적인 금관으로서, 내외관의 최러함은 그시대의 화려했던 문화를 상기시켜 주며 정교함과 섬세함 또한 세계 어느나라 금관 못지않게 우수하여 우리 민족의 뛰어난 기교를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재 질 : 동, 순금도금(99.9%), 자분옥 ● 규 격 : 200×200×460m/m

사 설

참회하자! 국가경제

국가가 부도났다. 당면한 금융위기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멕시코, 타이, 인도네시아처럼 강대국의 경제신탁통치를 받게된 셈이다. 자존심이 상하고 허탈할 뿐이다. 이제 세계무역규모 11위, 국민총생산 세계 12위라는 자만심을 과감히 버려야 할 때다.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산업에서 일본과 경쟁하던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모든 경제주체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우선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문민정부의 경제성적표는 결국 과락을 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을 '정치지도력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쓰러지고 금융위기가 닥쳐오는 데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뚜렷한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무능을 보였다. 정경유착으로 독버섯처럼 피어난 부정부패 왜곡된 금융구조를 탄생시켰다.

국가가 법정관리(?)에 처하는 꼴을 당해도 정치인들은 대권싸움으로 날을 지새우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금융개혁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채 대책없이 연기했다. 이 와중에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직원들이 집단행동을 해도 대통령 이하 전 각료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파탄경제로 마감하려는 현정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난국을 초래한 책임은 정부에 이어 기업들에 있다. 한보사태, 기아사태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30대 재벌그룹 중에서 8개가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재벌들은 무분별한 차입경영과 비효율적인 문어발 경영으로 부실과 파탄을 자초했다. 정경유착의 온상속에서 치열한 국제경쟁력을 이겨낼 강한 체질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이제 기업들은 투자지출의 억제가 불가피해졌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에 수술을 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고투자·고성장 편집증으로부터 벗어나 균형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군살빼기와 효로서기의 기틀을 마련할 시기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진통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투자축소는 결국 소득과 소비의 감축으로 이어져 저성장과 실업증대를 가져와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제도와 관행, 의식을 세워야 한다.

해방이후 우리 역사상 최대의 국난에 처한 현실을 깨닫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이제 총체적 국가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의 의식을 바꾸고 우리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자. 국민·기업·정부가 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살려야 한다. 호화로운 해외여행이나 사치낭비는 금물이다. 불교에서도 지난 11월24일 종단협의회장 월주스님이 담화문을 통해 근검절약으로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각계각층의 사회운동단체들이 이러한 캠페인에 속속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잠재력이 있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한번 생각하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군승단 自淨 움직임

비리의혹 법사 종단에 조사 의뢰키로
단장에 이희용법사…재정감사제 검토

일부 군법사의 불사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어온 군승단이 결산총회를 계기로 정화에 나섰다. 군승단은 11월 26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1백여명의 군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이희용법사(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중령)를 제24대 단장으로 선출했다. 〈관련인터뷰 3면〉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불사비리 의혹 관련 넙사 4명에 대해 종단 및 군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 △진급 및 장기근무 연장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군승단내에 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 △군법당 재정감사제 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결의는 지난 9월 '군승단을 걱정하는 후배법사 일동' 명의로 운영위원들에게 보낸 건의서에 대한 조치의 성격을 띤 것으로 위관급 법사들의 자정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관급 법사들은 이 건의서에서 22사단 통일대불 불전함 사건과 상무대 법당, 93년 육군특수전학교 법당, 국방부 호국원광사 법당 개금불사 등과 관련된 군법사들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없으면 관련자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하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군승단은 해당 4명의 법사들에게 경위서를 제출받는 한편 호법위원회에서 자체조사를 벌여왔으나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해당 법사중 2명은 비리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임기 1년을 남겨둔 군승단장 이치영법사는 총회 시작 직후 인사말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치영 前 군승단장은 비리의혹에 대한 지도소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법사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회의한 적이 많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같이 충고와 직언을 자유롭게 교환한다면 군승단의 정화는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서 작성에 참여한 또다른 법사는 "우리가 건의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가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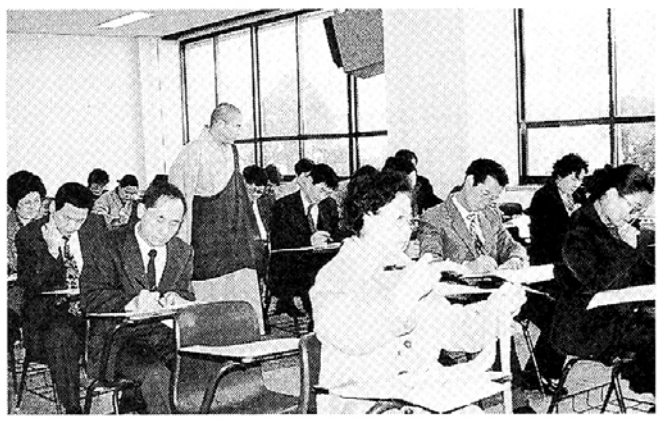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동안거스님들 대선 동참한다"

11~13일 부재자투표

제15대 대통령선거가 11월 26일 후보등록에 이어 주요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경북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과 해인사, 용주사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선원은 24일 부재자 투표 신청을 마치고 오는 11~13일 사이 인근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로 주권을 행사한다.

올해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수좌들은 2천여명에 이른다.



"포교사고시"

◇조계종 제3회 포교사고시가 6백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11월23일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합격자는 이달 중순 출신 불교대학에 통보한다. 사진은 서울 동국대 고사장 모습.

태고종예산 111억원 동방대 설립에 총력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11월27일 총무원 중앙불교회관에서 제74회 정기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동방대 설립을 위한 종단중흥발전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동방대건립에 종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또 공석중인 사정원장에 연운스님(대구 죽림사 주지), 총무원 부원장에 지암(순천 선암사 주지)·보안(종회 법제분과위원장)스님을 선출했다.

태고종은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 1백10억9천5백만원중 동방대건립 예산으로 1백3억원을 배정했다. 백운스님(사회부장)은 "동방대 건립장소는 당초 거론됐던 선암사나 건교부로부터 인가받은 용인이 아닌 수도권 일대 제2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종회에서 선암사 성역화 및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 26가지 사업계획안도 확정했다.

연꽃마을 노인병원 2곳 연내개원

안양·수원에…무료진료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11월 22일 개원한 안양시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병원을 개설하고 12월부터 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안양경로병원은 1백30평규모로 최신의료장비를 갖추고 지역노인들에게 무료로 의료복지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꽃마을은 12월중에도 수원에 수원광명의원을 개원한다. 대한노인회 수원시지부의 요청으로 사무실내에 개원되는 이번 수원광명의원은 9번째 노인무료병원이다.

한편 인천지역 노인단체들은 새로 건립되는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병원을 개원해달라는 요청서를 연꽃마을에 전달했다.

보문종 명오스님 입적



보문종 원로원장 명오스님〈사진〉이 세수 82세(법랍 70세)를 일기로 11월26일 보문사에서 입적했다. 영결식은 11월28일 서울 보문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명오스님은 1916년 경기도 양주生으로 12세에 보문사로 입산출가해 재단법인 대한불교 보문원 이사를 거쳐 1986년부터 이사장을 맡아왔다.

보광사 화담스님 입적



경기도 마석 보광사 주지 화담스님〈사진〉이 11월22일 오전 3시 입적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11월23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선사(주지 밀운) 문도장으로 엄수됐으며 49재는 98년 1월9일 보광사에서 봉행된다.

스님은 43년 서울 출생, 봉선사 총무·교무국장, 포천홍룡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 9·10대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사찰환경특별법 제정하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학술세미나서 제기

사찰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찰환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환경오염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교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한국자연문화재단'의 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불자회(회장 김용택)가 11월28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불교문화재와 환경' 학술대회에서 홍광표교수(동국대 조경학과)는 "사찰환경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구상 입안부터 관련 사찰 및 불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발·환경오염 '무방비'
"자연문화재단 검토를"

홍교수는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의 생태적 수용능력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환경보전 지향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의 강화 △환경오염방지 투자율 제고 △처리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병인교수(밀양산업대 환경공학과)는 '환경오염과 불교문화재'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교문화재의 피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영국의 National Trust 같은 한국자연문화재단이 태동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피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지만 단순한 환경오염 피해만을 살피기보다는 전통사찰환경의 보존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길웅교수(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는 '경주 불교문화재의 훼손과 보존대책'에서 "경주의 불교문화재는 전란이나 자연재해는 물론 경작지나 민묘설치, 탁본, 실화(失火) 심지어 복원에 의한 훼손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존대책으로 △재원의 확보 △원형복원 △보호각 설치 등을 들었다.

윤기석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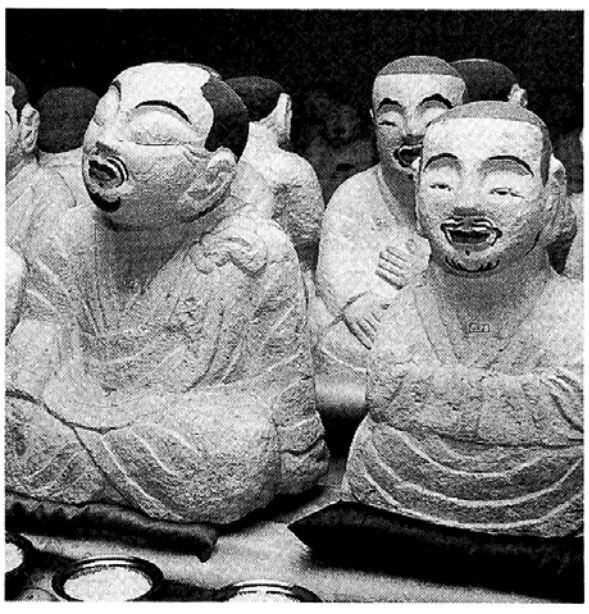
불자들의 힘을 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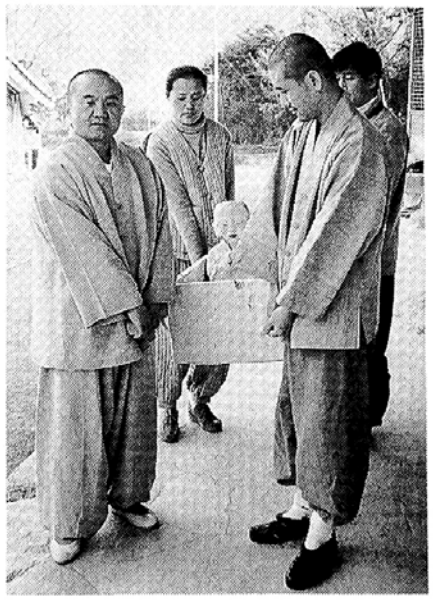
거조암 영산전 중창 및 오백나한 좌대불사 회향 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정혜결사 도량이며 오백나한 기도영험도량인 팔공산 은해사 거조암에서는 지난 2년여동안 불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보14호 영산전 중창 및 오백나한 좌대불사를 원만히 성취,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사에 수희 동참하여 주신 불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나한님 이운식에 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오백나한님의 가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 오백나한님 이운식 : 불기 2541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 회향법회 : 불기 2541년 12월 14일(음력 11월 15일) 오전 11시
■ 문 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번지
☎(0563)35-1369

◆ 부산지역교통안내 ◆
● 행사 기간중 매일 오전7시 아리랑 관광호텔 앞 → 7시 30분 동래 한양프라자 앞 출발
● 철야기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아리랑 호텔 앞 출발
(교통편 문의 ☎ (051)622-0181, 611-0181 (윤기사)





대한불교 조계종 오백나한 기도도량 거조암 주지 혜해 합장

양국 불교이해 디딤돌 역할

한·일 양국불교 이해의 디딤돌 역할을 해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총재 월주)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양국 불교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월 사단법인 구성으로 조직을 강화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홍파·이하 협의회)는 지난 20년간 다져온 우의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문화교류를 지향해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협의회는 그간 진행해 온 학술발표 형식의 주제 발표를 유지하며 양국 불교문화 교류의 확대를 위해 영산재등 음악교류와 일본내 한국불교 문화재 발굴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양국은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19차 대회에서 한국의 영산재 보존회와 불교예술단의 공연을 개최키로 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 20년 '성과와 과제'

日 산재 불교문화재 발굴 공동추진 계획

역사왜곡 대처 '소극적' … '관광교류' 지적도

특히 협의회는 일본에 산재된 한국불교문화재의 발굴 사업과 관련한 계획에 상당한 역점을 둘 방침이다. 협의회 사무총장 도각스님은 "우선 일본 사찰과 각 종단의 협조를 받아 일본 전국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실태를 파악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실태파악을 토대로 양국불교계의 협의에 따라 반환 가능한 문화재는 반환을 받는다는 것이 협의회의 방침이다. 또 반환이 어려운 문화재에 대해서는 촬영, 탁본과 실측후 모조품을 제작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77년 10월 14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반도유스호스텔에서 '고대 한일불교의 교류'를 주제로 첫 대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협의회는 그간 18차에 걸친 대회를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했다. 그간의 대회는 고대 양국불교의 교류상과 불교미술, 신행, 학술, 문화, 21세기를 위한 과제등 폭넓은 주제로 진행돼 왔다. 20년간 지속된 대회는 학술교류와 아울러 개최국의 성지와 사찰, 문화유적 탐방등을 실시함으로 양국 불교에 대한 이해증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협의회를 통한 양국간 교류를 바탕으로 지난 95년 한중일 삼국의 불교우호교류회의를 발족시킨 점은 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지난 20년간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위안부문제' 등 현실적인 한일관계 규명등에 대한 사안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등 현실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양국을 상호 방문하는 '관광성 교류'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따라서 협의회는 양국간의 과거사를 비롯한 역사적 화해와 문화유산의 실태파악과 반환 문제등의 과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20주년 기념및 사단법인 인가 기념법회'가 11월 25일 오후5시 서울 하림각에서 봉행됐다. 이자리에는 총재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이사장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등 임원및 회원과 김용문 문체부 종무실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 국민회의 박찬주의원, 이각범 청와대정책수석등 정관계인사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또 다까하시 류덴(高橋隆天)고문, 다니겐쇼(谷玄昭)이사장, 에즈레도시노리(江建俊則)부회장등 일본측 임원5명도 참석, 협의회 설립 20주년을 축하했다.

임연태 기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교류의 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25일 열린 20주년 기념 및 사단법인인가 기념법회.
〈사진=고영배 기자〉

"사찰운영 폐쇄성 극복하자"

사설사암련 '불교발전…' 세미나서 제기

불교의 발전을 위한 사설 사암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사설사암연합회(회장 종후)가 11월26일 개최한 '불교의 발전을 위한 사설사암의 바람직한 역할' 정책세미나는 조계종단내 사찰의 절반이 훨씬 넘는 1천1백31개의 사설사암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세미나에서 연기영교수(동국대 법학)는 "사설사암이 안고 있는 사찰운영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사찰은 개인의 구복을 위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라 문화활동과 사회복지를 위한 깨달음의 열려진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교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찰 운영을 위해 신도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설치, 사암을 전법 문화 교육 복지등 전문화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사설사암과 종단의 바람직한 관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선일스님(인천부루나 포교원장)은 사설사암이 종단을 위해 해야할 일과 종단이 사설사암을 위해 해야할 일을 지적했다.

선일스님은 먼저 사설사암의 역할과 관련 "사설사암의 신도를 종단에 등록해야하고 분담금의 자발적인 납부도 연합회가 유도해야 하며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등록업무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님은 사설사암에 대한 종단의 역할로 사설사암 금융지원기구등을 통한 재정지원과 행정서비스의 범위확대, 지역사암연합회에 종회의원을 배정한 종무행정 참여, 상호 정보교환 등을 꼽았다. 〈태〉



수요 인터뷰

제24대 군승단장 이희용 법사

"내부개혁-화합 둘다 슬기롭게"

자정을 위해 내부의 진통을 겪고 있는 군승단. 어느 때보다도 화합이 필요한 시기다. 25일 총회에서 제24대 군승단장에 선출된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 이희용 주지법사로부터 군승단의 앞날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어려운 시기에 군승단의 새 사령탑이 되셨는데 임기 동안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실 건지 밝혀 주십시오.

▲우선 군승단의 화합을 위한 일이면 어떠한 것이든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군법사들이 한데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 선·후배법사들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해 현재 우리 단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임무가 주어져 좀더 생각해봐야 겠지만 다음주 내로 빨리 집행부를 구성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일부에선 현재 군승단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군승단도 내년이면 30살인데 살아오면서 문제점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일 뿐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처리해 반드시 단결된 군승단의 위상을 확립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라고 생각해 주십시요.

-이번 '불사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향후 처리 문제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11월25일 군승단 결산총회에서 종단 호법부나 군수사기관에 조사 의뢰를 하자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법사들은 종단에서 파송된 승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군인이기 때문에 다음주 구성되는 운영위원들과 함께 군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 할 것입니다. 하지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충분히 반영할 생각입니다.

-군법사들이 인사 진급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이에 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어느 조직이나 인사와 승진 문제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잡음이 가장 많은 것이기도 하지요. 저도 일단 진급 심사에서 탈락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법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군승단이 진급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엄격히 추천하겠습니다.

-내년이면 군승단도 창립30주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들 하는데 벌써 세번 변한 셈인데요. 군승단 30년사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책자를 발간할 생각입니다.

또 후배 법사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가져 그들의 고충과 충고를 여과없이 수용해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입니다. 힘찬 비상을 위해 얼마남지 않은 군법사 생활 동안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요.

김주일 기자

목어

"화살을 뽑자"

우리는 벼랑끝에 서야만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감지력이 둔한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기해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고,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나서고 있다. 좀더 일찍 서둘렀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남은 과제는 국난으로 자리한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위기상황이 '자업자득'임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겸허하게 찾아야 한다. 원인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의 경제대책은 인기정책, 친재벌정책, 치적 내세우기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가슴아프게 받아들여야한다. '발등의 불'인 대기업의 감원, 재벌들의 자금끌어 모으기, 중소기업 자금난 등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부동산투기, 금융사기, 주가조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골빈사람들의 사치와 낭비도 규제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들여다 보고 회생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누굴 탓하고 헐뜯는 선거운동은 약발이 서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도 그간의 사치와 과소비를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18 아끼기'에 동참하자.

들뜨거나 캠페인에 밀려서가 아니라 중심이 서있는 본래의 자리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때다. 우리가 국가부채 1천억달러 시대를 살고있기 때문에 근검절약해야 한다면 그건 좁은 생각이다. 잘살건 못살건 근검절약은 삶의 기본자세다. 보리고개 넘기고 밥술이나 먹게되더니 해외여행 다니게 됐다고 흥청망청한 결과가 '오늘'이라면 우리는 이 아픔을 국민정신개혁의 교훈으로 삼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그대들이 게을러서 그 힘에 굴복한 것을 죽음의왕(염라대왕)이 알고 그대들을 윤회에 헤매이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게으름은 때와 같은것, 때는 게으름으로 인해 생긴다. 애써 닦아 얻은 지혜로써 자기에게 박힌 화살을 뽑으라"〈숫타니파타〉의 부처님 말씀은 오늘 우리국민에게 더 없는 묘약이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12월 테마여행 - 제주도 법화사지 外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뜻"

제주도에 부처님 제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고려대장경〉법주기에는 석가모니 16제자 중 발타라존자가 탐몰라주(제주도)에 불도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라산 서쪽 기슭 존자암지가 그 초전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또하나의 한국불교 초전지 제주도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찰은 없지만 제주도는 '절 500 당 500'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사찰이 많았던 곳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인 관음사를 비롯 장보고가 창건했다는 법화사지, 국내 최대의 법당이 있는 약천사, 제주 유형문화재1호 5층석탑으로 유명한 불탑사 등의 사찰과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제주불교의 맥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가 안내

◇출 발: 12월 13일(토) 오후1시 · 김포공항
◇장 소: 법화사지 · 관음사 · 약천사 · 불탑사 · 목석원 · 한림공원 · 산방산 · 수목원 · 용두암 등
◇회 비: 135,000원
◇안 내: 강창화(제주대 강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입후보자와 국민에게 드립니다.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냉혹한 국제 현실과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전, 그리고 세기적인 변화의 시대 속에서 민족의 생존권과 미래를 이끌어 갈 국정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감정 등 제반 갈등 요소를 해소하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몇가지 사항을 집약하여 입후보자와 국민들에게 천명하고자 합니다.

1.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정책대결의 부재하에서의 인신공격과 폭로, 지역감정 자극 등은 우리의 낡은 정치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낡은 정치문화들은 사회적으로 부정부패와 도덕적 불감증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스스로 도덕적 귀감을 보이려는 노력뿐 아니라 낡은 정치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주가의 급락, 달러환율의 급등,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연쇄도산에 따른 실업률 증가 등 우리 경제상황은 가히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지금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정의와 사회복지 실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도 각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근검절약하여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3. 남북상호간의 교류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길은 50년이상 지속되어온 이념적 대립과 대치상태를 극복하고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적인 통일을 향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색된 사회체제와 각종 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녘동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적대감을 해소하고 교류의 기본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자간의 교류는 물론 민간단체들의 교류 또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상의 지원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남북간의 대결과 대화가 병행되는 현상황을 인식하여 국토방위와 안보를 굳건히 다지면서 민족의 비원인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4. 청소년 선도와 국민도덕성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자주 바뀌는 교육제도와 천문학적인 입시과외 비용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교육정책에 새로운 모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는 문화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경쟁의 시대인 만큼 우리 민족문화를 올바로 보존·계승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불국사 석굴암, 종묘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유형, 무형의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문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우리의 문화경쟁력은 그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앞설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부문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민족문화를 보호 육성하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우리 문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6.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한 개발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수려한 자연 환경의 파괴는 물론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나 물고기조차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환경문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보전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보존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일부 종교인들이 선거에서 종교의 권위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보다는 이에 편승함으로서 종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종교인의 행동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종교는 진리와 높은 도덕성으로 세속 정치에서 나타나는 잘못을 계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양성적으로 특정후보나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삼가고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과정을 감시하고 국민들을 계도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 국민들 또한 과거의 선거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투표행태로 인하여 공명선거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켜 왔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연·혈연·학연 등의 연고주의에 기초한 투표와 더불어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에 따른 투표권의 포기 또한 유권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유권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는 한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치거나 망국적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이 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간의 정책과 그 정책의 수행능력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정직성·도덕성·경력 또한 소상히 파악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서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층 성숙시키고 국민화합과 민족통일을 이룩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불기 2541년 (1997)년 11월 2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송 월 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인제후보 사찰방재등 불교공약

국민신당 이인제후보의 대 불교계 공약발표 및 교계기자 간담회가 11월26일 오전11시 청진동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서석재·한이헌 의원이 배석하고 교계기자 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후보는 "대통령을 잘 모셔야 할 어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컷 부려먹는 국민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신당은 불교계를 향해 사찰 종합 방재 시스템 구축, 불교 사설대학 확대 실시, 전국대도시 불교회관 건립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강원지역 불교 인재양성에 최선"

강원불교대학 새학장 리선행 법사



"불교세가 타지역에 비해 취약한 강원도에서 유일한 불교교양대학으로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일 춘천 석왕사에서 강원불교대학(이사장 백운스님) 새 학장에 취임한 리선행법사(원주 두타도량)는 강원불교교육에 이바지 하겠다는 의욕을 밝혔다.

강원불교대학은 춘천 원주 홍천 횡천 동해 등 도내 전지역의 내로라하는 기관장과 유지들이 수학한 지역 명문불교대학. 개교 3주년에 8기까지 총 1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과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강하고 교수진을 더욱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불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지역 타 불교대학들과의 유대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공동방안 등도 모색하려고 합니다."

조계종 상임포교사를 역임하고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감사로 국제불교교류에도 역할하고 있는 리학장은 강원불교가 교육을 통해 거듭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우〉

심장병 中교포 소녀 완쾌

선천성 심장병으로 중국에서 재기불능판정을 받은 동포어린이 최월향(9세)양이 대한불교 감로심장회(회장 보운스님) 도움으로 경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완쾌돼 11월21일 퇴원했다.

최양은 보운스님 등 감로심장회 관계자들과 경상대병원 정순일원장이 새옷과 인형 과자 등 쾌유를 축하하며 선물을 전달하자 "어른이 되면 조국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교차로

회당학원 이사장에 선임



지광 대구시경심인당 주교는 11월20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회당학원 임시이사회에서 제2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코무덤 환국 5주기 추모

삼중 자비사 주지(전국교도소 재소자교화후원회장)는 11월26일 전국 부안군 상서면 호벌치에서 임진왜란 코무덤 환국 5주년 호국영령 추모제를 가졌다.

불일미술관서 판화 개인전

통칙 스님은 4일까지 사간동 불일미술관에서 공안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한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 주제의 목관화 개인전을 열고 있다.

학술자료 조사위해 訪日



김지견 전 통불교문화연구원장은 원효대사의 〈승만경소〉 등 불교학 관련 학술자료 조사차 일본을 방문한후 11월29일 귀국했다.

암투병 금정순씨에 성금

이각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11월24일 암으로 투병중인 한복 명장(名匠) 금정순씨에게 성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대중문학' 주제 학술회의



홍기삼 한국문학연구소장은 '대중문화와 대중문학'이란 주제로 11월28일 동국대 명진관 세미나실에서 학술회의를 열었다.

국악관현악단 정기 연주회

박범훈 국립국악관현악단장은 5~6일(평일 오후7시, 토요일 오후4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보좌역

김영국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전문위원은 11월20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보좌역에 임명됐다.

사회봉사로 신한국인상

최문환씨(대각불교청년회 소속)는 11월13일 청와대에서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한국인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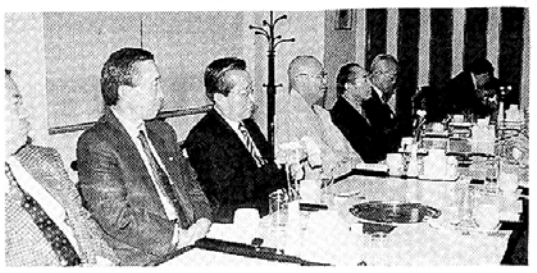


국태민안 기원 도량석

조계사-중앙청 49일간

현시국의 어려움을 불법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취지로 매일 낮12시 종로 원각사-조계사-청와대를 목탁을 치며 도량석을 하는 스님이 있어 화제.

캐다다와 뉴욕 등지에서 정진수행하다 귀국한 조타(제주 흥법정사 조실) 타붙(이천 법왕사) 스님은 11월24일 파고다공원 원각사 탑 앞에서 '국태민안 기원 49일 도량석' 입제식을 갖고 내년 1월11일 회향할 예정이다. 〈일〉



"한-키 경제·종교·문화교류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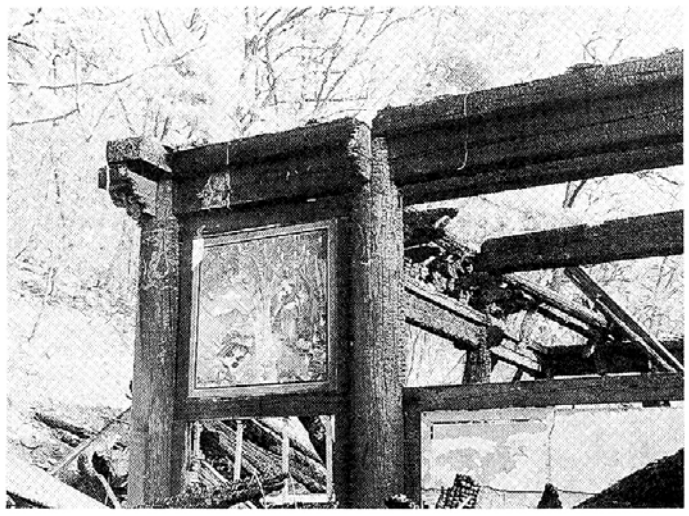
녹원스님, 키르키즈共 방문성과 기자회견

동국대 이사장 녹원스님은 11월26일 타워호텔에서 키르키즈공화국 방문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녹원스님은 "아카예프 대통령과 각료들에게 한국의 경제발전 원동력이 1천6백년 불교역사 속에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양국간의 문화, 종교, 경제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민간외교로서의 성과를 제시했다.

또 △키르키즈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이나 불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한·키 친선협회' 발족을 통한 경제교류 도모 △포교당 신설 및 현지 포교당(1곳)지원 △키르키즈 국립의료원 안과 교수 초청 특별세미나 개최 △동국대, 키르키즈국립대학 학생 상호교환 등 구체적인 교류계획도 밝혔다.

한명우 기자

화마 이긴 '강림도솔상' 벽화



Focus

한 순간에 대웅전을 삼켜버린 화마(火魔)에도 불구하고 벽화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경기도 파주 광탄면 용암사(주지 현정)가 바로 그곳. 용암사는 10월20일 화재가 발생, 대웅전이 전소됐으나 놀랍게도 아기부처님이 도솔천에서 강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강림도솔상 벽화는 원형그대로 잿더미속에 남아 있다. 이와관련 용암사를 찾는 신도들은 "스님과 신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기도한 덕"이라며 "하루빨리 옛모습 그대로 복원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찰측도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돼 도량을 찾는 불자들께 면목이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복원불사에 주력하고 있다.

파주=김중근 기자

'전통강원 교육' 논쟁 화제



◇지운스님



◇현응스님

현응스님(해인사 홍제암)이 '해인동문회보' 창간호(10월10일자, 해인승가대학동문회 발행)에 기재한 글 '21세기와 불교인재 양성'에 대해 지운스님(송광사강원 강주)이 '정혜사' 가을호(통권15호, 송광사강원 발행)에 '강원에서는 무엇을 주제로 공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반박했다. 전통강원교육의 다른 두 시각은 불교교육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현응스님은 "승가교육은 산중 몇몇 본사의 성당식 교육기관에 의존하는 데 머물렀고, 일부는 동국대학교의 불교관련학과에 위탁하였으나 그나마 종단이나 사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 개인의 재량에 맡겨 방치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년에야 비로소 교육원을 신설하여 종단의 승가교육문제를 전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통강원의 교육적 수준을 진단했는데, 교육방법이 천년전의 불교문헌과 서당식 강의방법이라는 웃지못할 논리가 현장에 팽배하며 기존 어학은 물론이고 불교학개론 등 필수교과목마저도 폐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의 현대식 교육을 전통강원과 상반되는 세속화로 전락시켜 승가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것은 단지 현재 교육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책임추궁으로 단락지을 문제가 아니라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운스님은 현대식 교육방법이라는 대학체제는 상(相)을 취하는 지식체계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대학체제의 도입은 불교학의 발전에는 크게 기여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깨달음과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막식막행이 성행하고 승속의 경계선이 무너져 포살예불 간경 염불 참회공양 등이 무의미해지고 수행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승가체제가 무너지면서 급속도로 세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론으로 현대식 교육방법을 강원에 도입하자는 말은 계행 등의 생활을 포기하자는 것이고 출가수행자로서, 성직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하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현응스님 "낡은 교재·서당식 강의 문제"

지운스님 "대학체제 도입땐 승가 세속화"

위영란 기자

"연예인 법당부지 여의도에 마련"

음주사고후 방송복귀 김흥국씨



"불자인 제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합니다. 암도스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더 큰 일 하라는 부처님 뜻으로 알고 불법을 봉행하며 더욱 성실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난 5월 음주운전사고로 한달여간 서울구치소에서 참회의 나날을 보냈던 김흥국씨(불자가수회 회장)가 4개월여의 공백을 끝내고 MBC라디오와 불교방송에 복귀했다. 11월21일 기자회견을 가진 김씨는 "몇 년동안 숙원이었던 연예인 법당이 올해 안으로 여의도에 부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종교간 화합·봉사활동 앞장을"

여불련 '여성과 종교' 주제 강연회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11월25일 롯데호텔 36층 벨유에서 '여성과 종교'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에 나선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하나, 종교인과 정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선거에 임하는 여성불자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의 완성과 종교적 이상사회 건립의 주체자로서 역할수행 △종교간 화합을 도모하는 노력 경주 △종교정신의 사회적 승화 △봉사활동 동참 △종교를 통한 건강한 신체·정신 확립 △건전한 신행생활 등이 바로 그것.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마산 정인사 848,000원 △정토포교원 승만회 150,000원 △고양시 화수초등학교 5학년5반 36,850원 △김은숙 110,000원 △김광호 100,000원 △김화영 100,000원 △하선아 100,000원 △김창문 50,000원 △이순애 50,000원 △장준분 50,000원 △김미신 40,000원 △윤남용 40,000원 △윤영림 40,000원 △이동수 40,000원 △이봉숙 40,000원 △박세철 30,000원 △박행자 30,000원 △이윤경 30,000원 외 △한 끼 굶기운동 1,440,000원

〈11월26일 현재 총 872,269,848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불교와 전통문화예술의 대 중흥시대가 될 첨단의 21세기를 앞두고
전문적인 수련과 포교로 자기 개발과 불법홍포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행자를 모십니다.

⊙ **수련내용 :** 불교기본의식, 선무도(선무기공, 선요가, 선체조, 선무술), 무극무예(무극봉술, 무극권법, 호신비술), 전통예술(대금, 태평소, 가야금, 바라춤, 전통무용, 사물놀이 등)
⊙ **모집대상 :** 불교와 전통문화예술, 고유무술에 관심깊은 불자로 본 수련원에서 숙식이 가능한 자
⊙ **모집인원 :** 남·여 약간명(스님이나 예비승려(행자)는 특별 개인지도함)
⊙ **수련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쳐 소정의 심사 후 지도사범이나 법사로 활동 자격을 부여함

※ 일반 수련회원은 매주 화·목 ·토요일에 수련
(기타 수련을 희망하는 스님이나 개인지도를 원하는 분은 본원으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사회단체 세계선무도진흥회 대금강문 양산 연수원
사회단체 대한무극봉술협회 용 굴 산 연 수 원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63 용굴산 동선사

전화 (0523) 82-5074 / 388-0921(FAX 겸용)
휴대폰 (011) 593-8466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야간■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畵)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동양 풍수과	2년	■야간		

■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무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8.2 동양화(선화)과, 동양 풍수과 개설

■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7년 12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지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우리 모임에선

'맑고향기' 제4회 음악회

맑고향기름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13일 오후4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4회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개최한다. 회원들이 직접 무대를 꾸민 이번 음악회는 강릉자비원 중창단의 수화노래, 첼로·바이얼린 독주, 대금연주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음악회 뒤에는 '맑고 향기로운 삶'을 주제로 한 법정스님의 법문이 이어진다. (02)741-4696

지하철법우회 무사고기원

서울지하철법우회(회장 신철호 군자차량사업소장)는 7일 오후 6시30분 잠실역사 법당에서 지도법사 화암스님(봉선사 총무국장)을 법주로 '지하철 무사고운행 기원 및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02)412-0108

피안복지회 김장 보시

피안사회복지회(회장 연정혜)는 7일 인천시내 오 호프집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기금마련 일일찻집을 연다.

이에앞서 同회는 김영송씨의 배추 보시와 회원 1백50명의 자원봉사로 11월 17~24일까지 인천시내 20개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생활보호대상자 2백가구를 선정, 가구당 다섯 조기씩 1천포기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032)881-8226

구미거사림 2돌 법회

구미불교거사림회(회장 김봉철)는 6일 오후4시 구미관광호텔에서 도리사 금강사 해운사 등 지역사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주년기념 및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0546)54-6756

붓다제주클럽 총회장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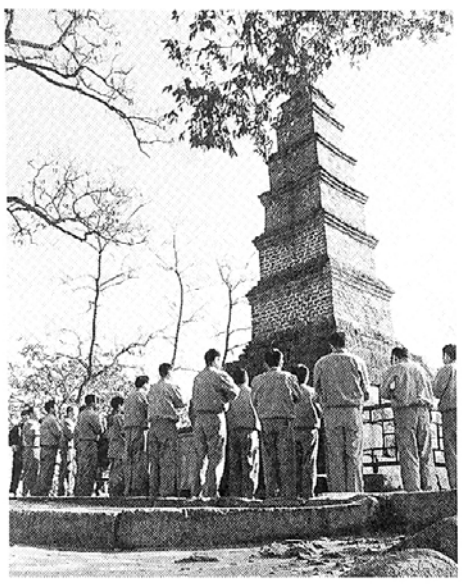
붓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문인종)은 6일 오후 5시 제주 칼호텔에서 새 총회장을 선출한다. 백록회 영주회 한라회 천지회 등 4개 지회 218명의 회원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모임을 겸한 이 자리에서 총회장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064)48-0108

체육공단무량회 6돌 법회

국립체육진흥공단 직원불자 모임인 무량회(회장 이태현)는 11일 오후7시 올림픽회관 1층 법당에서 창립 6주년 기념 및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02)410-1211

부산운불회 수덕사 순례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11월27일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법장스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영등포교도소 모범수인 20명이 송춘희법사의 지도로 신륵사 다층전탑을 돌며 참회진언을 외우고 있다.

업장소멸기원 '참회의 탑돌이'

영등포교도소 모범수 20명 신륵사등 순례

"살생중죄금일참회 투도중죄금일참회 사음중죄금일참회…."

11월24일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보물 제226호) 아래에서는 영등포교도소 모범수 20명이 참회진언을 외우며 탑돌이를 했다. 10~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행아닌 수련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낸 불자재소자들은 명부전과 다층전탑에서 불법을 만난 인연으로 업장이 소멸되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바른 삶을 살 것을 발원했다.

송춘희법사(백련장학회장)의 안내로 영등포교도소불심회(회장 문기두) 회원 20명과 함께 진행된 이번 신륵사·목아불교박물관 성지순례는 출소를 눈앞에 둔 모범수인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

송법사는 "이들이 들뜬 마음에 아침도 먹지 않고 성지순례에 임했다"면서 "이동하는 버스(화계사 제공) 안에서 내내 〈천수경〉과 〈반야심경〉 〈108참회문〉을 봉독하며 불자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고 전했다.

한편 영등포교도소불심회는 매주 수·금요일 오후2시 소내 강당에서 불자재소자 3백여명과 함께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재소자들의 참회와 업장소멸을 기원하고 있다.

여주=김재경 기자

보살정신으로 '으뜸행정' 구현

탐방 대구시청 유마회

사찰재산·문화재관련 호법신장 자부

2백50만 대구시민의 공복(公僕)임을 자처하는 대구시청에 불자모임이 생긴 것은 지난 84년 12월.

당시 동화사 부주지였던 무공스님의 권유로 이 지역의 첫 직장불교단체로 탄생했다. 재가신행의 으뜸이 되겠다는 발원으로 '유마회'라고 이름지었다.

유마회는 그동안 각구청의 불자회를 비롯 다른 직장불교단체 탄생의 모태가 되었으며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왔다.

유마회는 매월 첫째 목요일 관음사(주지 원명·대구사원련 회장)에서 정기법회를 갖는다. 이전에는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등 지역내 유수사찰을 찾아 법회를 가졌다. 연1회 성지순례도 갖는다.

유마회는 청렴하고 공정해야할 공직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대외적 활동은 가급적 삼가한다. 대신 내실있는 신행활동으로 친목도모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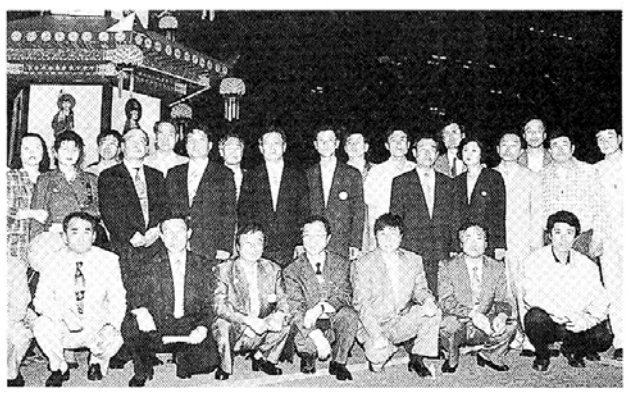
복지 주택 상하수도 등 업무자체가 위민봉사하는 것이어서 회원들에게는 근무처가 법당이요 업무는 곧 불공이다. 따라서 일속에서 보살행을 추구한다는 자부심이 남다르다.

91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유마회의 역할과 위상은 커지고 있다. 사찰재산·환경·문화재 관련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보이지 않는곳에서 호법신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특히 시청앞 광장에서 초파일 연등밝히기 행사를 유치하기까지 유마회가 조연역할을 했다.

유마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약4백명. 현재 활동중인 회원은 50여명으로 알짜배기 불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9월 4대 회장에 선임된 윤장원담당관(환경정책국)은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에게 병이 생겼다는 유마거사의 보살도 정신으로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윤호 기자



◇유마회는 매년 시청앞 광장에 초파일 연등밝히기 행사를 돕는다. 지난 4월 초파일 두류운동장에서 기념촬영한 회원들.

산행-신행 '접속' 불교중흥 다짐

불교산악회 창립 잇달아…전국 44곳으로 늘어날듯

불교신행과 산행을 통해 불교중흥을 다짐하는 불교산악회가 잇달아 창립되고 있다.

지난 11월9일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 산하 26번째 단위 산악회인 남원불교산악회(회장 구자웅)가 창립된데 이어 안동불교산악회(회장 최상조)가 11월23일 오전 불교산악인련 지정수행도량인 안동 약산 홍은사에서 창립됐다. 이로써 불교산악인련 산하 단위산악회(총회원 1만5천여명)는 모두 27개로 늘어났다.

11월23일 손현수 중앙회장의 회기(會旗) 및 인준장 수여와 축사, 홍은사 주지 진허스님의 법문, 최상조 신임회장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된 안동불교산악회 창립법회에서 150명의 회원들은 지역 재가신행 활성화를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최상조 회장은 "회원들이 안동불교교양대학 졸업생 위주로 구성된 만큼 불교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불교 교육과 신행 및 산행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원 50명 이상을 단위산악회 설립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불교산악인련은 이미 △대전의 반야산악회(회장 김상준) △강원도의 고성녹색사랑회(회장 우성)와 일심회(회장 변정규) △경남의 광명선원불교산악회(회장 최두혁)와 장승포불교산악회(회장 이경언), 사정불교산악회(회장 진호경) 등 6개 산악회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에 2개(구로구 강남구) △경기지역에 3개(수원시 부천시 구리시) △전북에 1개(정읍시) △경남에 5개(울산시 김해시 통영시 진주시 옥포) 등 11개 단체가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 전국불교산악인련 27번째 단위 산악회인 안동불교산악회가 11월23일 안동 홍은사에서 창립됐다.



'한국불교현대사' 출판기념회

광복후 50년간의 불교사를 정리한 '한국불교현대사' 출판기념회'가 11월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거행됐다.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회장 혜총)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을 비롯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월탄(석림동문회 명예회장), 인환(동국대 명예교수), 암도(조계종 교육원장), 현호(법련사 회주), 현해(월정사 주지), 태응(불교TV 사장) 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경남불교협 호국기원 영산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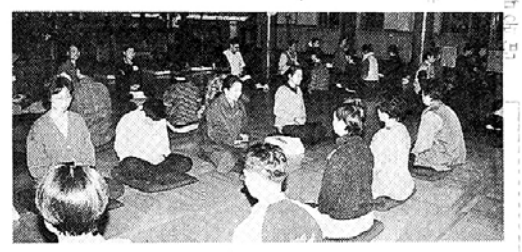
경남불교협의회(회장 월파 통도사주지) 주최로 열린 경남불교지도자 호국기원 영산대법회가 11월24일 창원 KBS홀에서 성황리에 봉행됐다.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 표충사 주지 신허스님, 통도사 주지 월파스님,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김혁규 도지사를 비롯 사부대중 5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국태민안 영산대재와 기원대법회에 이어 화합한마당 축제로 꾸며졌다.



불교진흥원 장상문거사 5주기 추모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불교방송 초대사장과 진흥원 초대이사장을 역임한 장상문거사 제5주기 추모법회를 21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스님, 서돈각 진흥원이사장, 대원정사 장세우전무, 동국산업 장상건회장, 배명인 前법무부장관, 불교방송 권오현전무 김종기상무, 진흥원 최명준국장, 대원불교대학 허성구학장을 비롯 가족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3대통신 네티즌불자 첫 합동법회

11월 22, 23일 서울 법련사(회주 현호스님)에서는 PC통신 하이텔·천리안·유니텔불교동호회 회원 60명이 첫 합동철야정진법회를 거행했다. 첫날 회원들은 오후 8시에 예불을 시작, 사찰예절과 기초교리시간을 가진 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좌선에 들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힘든 좌선을 마친 뒤 새벽 5시까지 1080배에 도전, 새벽예불로써 회향했다.

인 사 말 씀

多忙하신 중에도
대한불교조계종 제 9·10대 중앙 종회위원과 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총무국장을 지내셨고 천마산 보광사 주지 和潭堂 攸德禪師의 영결식과 다비식에 참석하여 주신 사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옵고 인사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리오니 널리 헤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화담당 유덕선사의 四十九齋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和潭堂 修德禪師 四十九齋 안내

- 일시 : 1998년 1월 9일(음 12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1리 419 보광사 (0346) 594-1316

■1제 : 11월 28일 오전 11시 봉선사 (0346)68-1954
■2제~5제 : 보 광 사
■6제 : 98년 1월 2일 오전 11시 동원정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1리 105 (0346)593-6829

문형제 대표 : 각 원 호 상 : 정 수
상좌 : 선우. 도행. 혜문. 혜묵. 송묵. 정인. 장휴. 광여

부처님조성 · 석탑 · 석등 · 석비 · 부도 · 불사건축 · 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 인 사 말 씀 ◆

귀의 삼보하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효성석재공예사 김 인 호 합장

효성석재는 부처님 조성이나 석탑, 석등등을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성석재는 규모를 자랑하지 않고 숙련된 기예와 불심으로 조성합니다.

◆ 주 요 불 사 실 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효성석재공예사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대표 (0357)542-1527~8
야간 (0351)874-4685

인 사 말 씀

歸依 三寶하옵고,
大韓佛教普門宗 元老院長 比丘尼 月巖堂 明悟宗師의 葬禮時 公私多忙 하심에도 不拘하고 鄭重하신 弔意를 表하여 주신 元老大德 스님을 비롯하여 各界人士 그리고 四部大衆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말씀을 드려야 도리인줄 아오나 慌忙中이옵기 于先 紙面을 빌려 人事드립니다.

佛紀 2541年 11月 29日

大韓佛教普門宗 宗團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慧 日 門徒代表 法 俊 合掌

법회안내

수국사 (02)359-6297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주지 자용스님
일요법회 매월2·4주 일요일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4주 일요일 오전10시

강화 럽왕사 (032)934-7859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주지 계성스님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백련사포교원 (02)547-8268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인등기도법회 매월8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불교기초교리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2시, 7시

진주 해룡사 (0591)746-9923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법화경〉 특강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10시 (교통편: 부산역앞에서 사찰버스 이용)

포항 관음사 (0562)47-2729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부처님마음법회 매월 3주 수요일 오후6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추위 녹이는 값진 땀방울
부산청소년 겨울봉사

흰눈이 내려 마음을 설레게 해도 탐욕이 생겨 마음을 어지럽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세로 마음 닦는 일에 몰두해 보자.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재도스님)은 4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참선 기초 교실' 수련 강좌를 마련한다.

주·야간으로 나뉘어 진행될 이번 수련은 심종선상임법사가 '참선이론' '참선자세' '호흡법' '생활참선법' 등을 강의 한다. (051)466-4080

'한·티 불교' 쌓이는 우정
자명 린포체 초청 천도법회

백천사(주지 무구)는 7일 백천사 지장왕보살김교각기념관에서 '자명 린포체 초청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자명 린포체는 70평생 관세음보살을 받들며 정진 수행하다 열반한 '듀렘 린포체'의 화신으로 티벳에서 추앙받고 있다.

양국(한국·티벳) 불교 친선도모의 계기로 마련된 이번 법회는 보살계수계와 함께 영가천도법회도 열린다. (0346)577-6433

무예 배우고 건강다지고
보광포교원 무술지도

대한불교진각종 보광포교원(대구시 서구 평리동)은 스님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무술지도 및 치료요법을 실시중이다.

지난 4월 개원한 同포교원은 한가지 기술로서의 무예를 익히도록 도와줄뿐 아니라 굴신요법을 통해 무료로 디스크 좌골신경통도 치료해준다. 좌선을 많이 하는 불자들의 자세교정 및 허리강화에도 도움을 줄듯.

주지 보광스님은 "현대인들의 병은 운동부족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며 호흡과 운기수련을 통한 건강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053)557-1149

흔들리지 않는 마음닦자
부산불교교육원 참선교실

움츠러드는 겨울, 마음을 열고 봉사활동에 땀흘리는 자원봉사단이 있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가 주최하는 제5회 불교청소년 겨울나기 자원봉사단으로 98년 1월 8~18일, 11일~13일 2회에 걸쳐 부산 해림사에서 열린다. 신청마감은 12월 10일까지. (051)464-2020

부처님 미소에 번뇌잊고
신라문화원 남산 답사

신라문화진흥원(원장 진병길)은 곳곳에 탑이 서 있고 불상들이 새겨져 있는 경주남산으로 12월7일 답사를 떠난다.

제일 잘 생긴 불상으로 손꼽히는 보리사 석조여래좌상을 비롯 바위 사면에 불국정토가 새겨져 있는 탑곡 부처바위, 남산에서 가장 오래된 불곡 감실여래좌상, 배반동 마애불상군, 창림사지 등을 소훈칠 경주대 강사의 안내로 둘러보게 된다. (0561)771-1950, 746-1950


◇산사의 겨울수련회에 불자들의 관심이 늘고있다. 사진은 송광암 겨울수련회에서 좌선을 하고있는 동참자들.

"겨울山寺서 자기를 보자"
사찰·신행단체 수련회 안내

백양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98년 1월12일부터 23일까지 2차에 걸쳐 열린다. '참사람 수행결사'란 주제로 서옹스님(백양사 방장)이 법문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는 '참나'를 찾아 떠나는 한국 전통 선 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0685)92-7502

송광암 전남 고흥 송광암(암주 일선)은 '진리의 섬에서 파도소리를 관(觀)하며'란 주제로 18일부터 겨울수련회를 연다.

3박4일씩 6차에 걸쳐 98년 1월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겨울수련회는 초심반과 '용맹정진반으로 나뉘어 △묵언 △선체조 △관음기도 △수심결 강의 △행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0666)843-8488

월간 〈해인〉 27, 28일 1박2일간 경남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행복한 삶'이란 주제로 수련회를 연다. 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동참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는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강의가 펼쳐진다. (02)312-6548

신흥사 경기도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는 '대화의 시간'이란 주제로 △23~25일 어린이 불교학교 △27~30일 청소년 수련회 △31~98년 1월2일 성인 대상 수련회 등의 일정으로 꾸며진다. (0339)57-2695

정토수련원 문경 정토수련원도 '깨달음의 장'이란 단일 프로그램을 마련, 23~28일까지 실시한다. (0581)71-6031

나의 수행일기



이 춘 기 〈부산대 교수불자회장〉

매일 아침 뒷산 절찾아 명상
'생명의 실상' 탐독… 성전암 수행의 고향

TV를 보다가도 목탁소리 염불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마음이 설레이면서 화면을 고정시킨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화면에 스님의 모습이나 불상 혹은 사찰이 나오거나 사물(四物)중 하나의 소리가 들리면 얼른 그대로 화면을 고정시킨다. 이것은 나만의 행동이 아니고 아내도 마찬가지다.

전생에 불교와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불교와 관련된 이미지나 상징물 등은 그대로 우리를 사로잡고 만다.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어릴 때 독실한 불자이신 어머님의 손을 잡고 절에 따라다니면서 시작되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종교일반에 대한 열띤 논의는 많았으나 불교에 대한 신심이나 공부는 깊지 못하였다. 불교에 대한 공부에 재미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25년전 마스다니 후미오가 쓴 〈불교개론〉(현암사 刊)을 접하고부터다. 현대인들의 마음에 들게 잘 쓰여진 책이었다. 그래서 이후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고 심지어 천주교를 믿는 사람을 불교에 귀의하게 만들었다.



이 인연으로 나는 불서를 통해 신심을 다져갔다. 나의 불교공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일본인 다니구찌 마사하루가 쓴 〈생명의 실상〉 40권이다. 이 책은 나의 수행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족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파계사 성전암 철웅스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철웅스님과는 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마음 편하게 찾아보곤 한다. 스님은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유머로 절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공부를 하게 하신다.

아내도 스님을 만나 뵙고 나면 힘이 솟고 용기가 난다고 한다. 또 스님 가까이 가면 기가 펄펄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낀다고도 한다.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암을 찾는지도 모르겠다. 성전암에서는 다른 절과 달라서 기독교신자들도 심심찮게 만나게 된다. 철웅스님이 법문을 할 때 성경속의 이야기를 자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튼 성전암은 나의 불교공부와 수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내가 열심히 정진할 수 있게 이끌어준 인연은 경북의 청암사이다. 8년전 등산길에 참배한 청암사는 그후 매년 찾게되고 청암사 승가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되는 가피를 입게 되었다. 청암사가 나에게 복짓는 기회를 많이 주려는지 방문하고나면 대개 부처님 일을 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진다. 처음에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지난 날을 회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데 부처님의 일이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 걱정이 되는 일인 것이다.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은 말지 않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청암사가 혹시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주지 지형스님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신다. 아직 한번도 우리들에게 법문을 하시는 일이 없었다. 언제나 조용한 음성과 모습으로 차 대접을 하시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세상살이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신다. 그래서 나는 절에 다녀오고 나면 스님의 겸손함과 소박함에 항상 머리를 숙이게 된다. 말없는 법문을 스님에게서 듣고 오는 것이다.

성전암과 청암사가 일년에 한 두번씩 마음을 닦는 곳인데 반해 우리 집 뒤에 있는 선암사는 매일 아침 등산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들러보는 도량이다. 새벽 일찍 조용한 법당에서 부처님께 인사 드리고 잠시 앉아서 명상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찬란한 아침햇살을 대하게 되면 마음이 절로 맑고 밝아지는 것같다.

아내는 아침태양을 향하여 합장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경건하게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우리는 발원한다. '평생 건강을 유지하며 사찰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게 시 판

♣ 인사

□부산 기장군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각(연봉사 주지) △상임위원장 대광(소원사 주지) △부회장 해월(백두사 주지) 초삼(옥정사 주지) △사무총장 혜각(극락암 암주) △교무국장 상우(관음암 암주) △재무국장 용하(원력사 주지)

□제34차 대불련 부산지부=△지부장 임혜진(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부지부장=최우주(동의대 기계공학과 교수)

♣ 알림

△지리산기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설조·김윤환·유현석)은 13, 14일 1박2일간 '지리산 남쪽자락의 불교문화를 찾아서'란 주제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이번 답사는 화엄사, 연곡사, 태안사 등을 둘러보게 된다. 현장안내는 박경식교수(단국대 사학과). (02)766-5391

△송년의 밤=동국대 불교동문회(동문회장 김광득)는 6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동국대 정각원과 90주년 기념관 그릴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0344)913-3007

♣ 모집

△대불련 후원회원=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는 월 1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보시할 후원회원을 기다리고 있다. (02)732-0239

△쌍계사 승가대학인=쌍계사승가대학(학장 선곡)은 16일까지 사미과(치문과), 사집과(편입생), 사교과(편입생)에 등록할 학인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6일까지. (0595)83-1906

△김장후원자=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길음동지역에 살고있는 독거노인 및 불우아동을 위한 김장에 동참할 자원봉사자와 배추나 양념을 보시할 후원자를 10일까지 접수받는다. (02)985-0161

△김장김치보내기 후원자=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는 영세가정 김장김치 보내기 후원자를 모집한다.

배추후원, 김치후원, 현금후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할 이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051)363-2063

♣ 법회

△내원정사 회향법회=부산 도솔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8일 대적광전에서 도량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51)242-0691

△동화사 음성공양법회=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봉황합창단(단장 오정스님)은 12월 1일 오전10시30분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제1회 음성공양법회를 갖는다. 60여명으로 구성된 봉황합창단은 지난해 결성이후 갖는 첫 발표회에서 20여곡의 주옥같은 찬불가로 유서깊은 천년 대가람의 뜰을 수놓을 예정이다. (053)982-0101

△연합수계식=부산불교 중학생 지도위원회(회장 서정락)는 13일 오후 2시30분 동래 법륜사에서 제13회 연합 수계식 및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051)817-2648

△서윤길교수초청=대한불교진흥원은 3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서윤길교수(동국대 사회교육원장·불교학)를 초청하여 12월 다보법회를 연다. (02)703-0108

♣ 이전

△선우도량 서울사무실이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으로 이전했다. (02)736-03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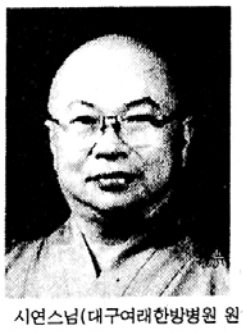
♣ 부음

△류진수씨 모친상=류진수 부산불교방송사장 모친 김명조(89)씨가 11월22일 숙환으로 별세. (051)644-2236, 5570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 來 健 康 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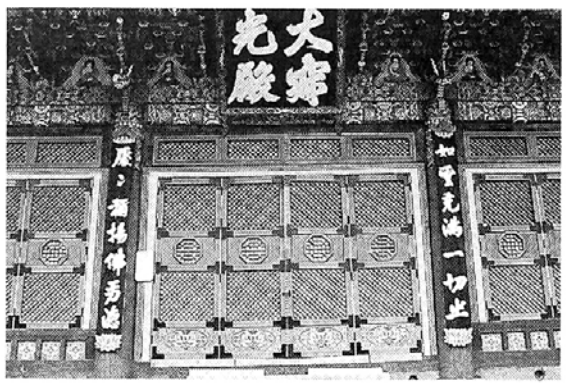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화성 용주사의 '만수리실' 편액은 가로 145㎝ 세로 55㎝의 특이한 형태로 사찰창건과 함께 1790년에 조성됐다. 만수는 지혜의 상징 문수보살을 뜻한다.



◇해인사 대적광전의 주련(일부). 〈화엄경〉의 내용을 대원군이 썼다.



◇고려 공민왕이 쓴 부석사 '무량수전' 편액은 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국사찰 편액과 주련' 책으로 묶는다

진흥원 편찬위 구성…의미등 총정리…99년 발간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봉선사등 1천여 사찰의 편액과 주련이 자료로 총정리된다.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전국 사찰의 편액및 주련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유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을 99년 발간키로 하고 내달부터 각 지역별로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 작업에 들어간다.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에는 각 사찰의 편액및 주련의 내용소개는 물론 사찰의 당우와 문화재안내, 찾아가는 길 등도 자세히 소개된다. 특히 편액과 주련의 경우 조성연대, 부착위치, 수량, 크기, 글쓴이, 원문, 원문풀이, 출전, 문화재적 가치 등까지 조사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기초자료조사에 들어간 진흥원은 5월에는 경기도 여주군, 화성군지역 용주사등 20여 사찰을 표본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1천여 사찰의 주련및 현황 조사를 위한 전체기획안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동국대 성보문화재연구원, 박물관과 협조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여될 이번 사업은 편액과 주련의 종류를 형태별로 정리함은 물론 내용도 상세히 파악하여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내용이 많은지 등 조사 후 통계를 낸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조선후기 이전만 해도 낙관없는 편액과 주련이 대부분인만큼 글쓴 이를 파악하고 복각이 많은 추사 김정희 글씨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원본도 찾아 간추리게 된다.

홍윤식(동국대교수) 문화재전문위원은 "편액은 건물의 부속물이지만 단건으로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서 문화재 지정이 안되어 있다"며 "이번 조사자료로 인해 수법이나 형태에 따라 편액·주련등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배명인(진흥원이사)씨를 '한국사찰의 편액과 주련' 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편찬위원에 월운(동국역경원장) 범하(통도사성보박물관장)스님 김응현(동방연서회장) 홍윤식(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권창륜(서예가) 여원구(서예가)씨를 임명했다.

김원우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예능동.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개관

삼성동에…29일부터 작품전

전통문화예술의 창조적인 마당이 될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11월29일 강남구 삼성동 112번지에 신축 개관됐다.

총 1백55억원을 들여 착공 4년8개월만에 문을 연 전수회관은 부지 7백52평, 연건평 3천4백47평 규모(예능동 지하4층 지상3층/공예동 지하4층, 지상5층)로 기·예능 보유자와 전승자들의 전수교육, 전통문화예술의 보급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능분야에 예능단체사무실·상설공연장·예능연습실 등이, 공예분야에 작업공방·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공예품판매장·공예교육실기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관소리보존회, 봉산탈춤 등 8개 종목의 단체와 조각장 김철주씨 등 13명의 기능보유자가 입주한다.

한편, 전수회관 개관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과 '개관기념공연'이 내년 1월10일까지 펼쳐진다.

문체부 내년예산 '문화찬밥'

총예산중 1% 넘었지만 체육부문 집중

내년도 문화체육부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정부 총예산 대비 1% 수준을 넘었지만 문화예술 부문은 총예산의 0.68%에 그쳤다.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98년 문체부 예산 8천73억원은 총예산 75조4천6백36억원의 1.07%로 사상 처음 1%선을 돌파한 것. 그러나 증액내용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건설지원비 5백억원 등 주로 체육부분에 집중됐다.

부문별 예산을 보더라도 △체육진흥 2천4백38억원(전년대비 61.0% 증가) △문화재관리 1천4백78억원(18.9%) △문예진흥 1천4백2억원(22.6%) △문화예술기관 1천9백30억원(7.1%) 등 문화예술 분야 증감비율이 훨씬 낮다.

부문별 편성내용에서 두드러진 것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금 지원비가 월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됐고,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과 지방국립박물관 건립 확대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반면 문체부가 2000년 '문화의 시대'를 대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문화비전2000사업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98년 문화재관리국의 대전청사 이전에 따른 문화재연구소 청사신축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은 국비 지방비 민자 등 2백억원의 예산을 마련, △강화문화권의 선원사지 △안동·영주문화권의 소수서원 등 유교관련 유적 △다도해 해양문화권의 이순신장군 관련 유적을 우선 복원정비된다. 이밖에 △경주문화권의 남산 석조문화재 △ 백제문화권의 미륵사지 △중원문화권의 거돈사지 등도 국비 1천1백39억원, 지방비 6백3억원, 민자 67억원 등 총 1천8백10억원을 투입해 점차 복원정비할 방침이다. 〈석〉

진각종 교성곡 '회당' 발표

창종 50주년기념 1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진각종은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대구 금강합창단 부산 유가합창단 대전 심인합창단 울산 연화합창단 등 4개 합창단 2백여명이 연합해 17일 오후 6시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창작 교성곡 '회당' 공연을 갖는다.

'회당'은 진각종 창종주인 회당 손규상대종사의 일대기를 그린 음악 대서사시로 시인 장지현정사(진각종 LA 불광심인당 주교)가 작시를,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같이'로 유명한 이달철씨가 작곡을 맡았다.

교성곡 '회당'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제1부 탄생 제2부 깨달음 제3부 교화의 빛 제4부 열반으로, 회당대종사가 깨달음을 얻고 진각종을 창종해 민중을 교화하고 열반에 드는 전생애가 드라마틱하게 교성곡으로 표현된다. 장한업교수(영남대)의 지휘로 경북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협연하며 곡중 솔로는 테너 이병삼교수(대구예술대) 바리톤 조정래 교수(대구예술대)가 맡는다.

불심시심 〈109〉

길이 위태롭다

何處尋眞客 (하처심진객) 어느 곳에서 온 진여 찾던 나그네
穿林訪北廻 (천림방북회) 숲 뚫고 북쪽에서 돌아왔네
留笘明鏡舍 (유공명경사) 지팡이는 명경의 집에 멈춰두고
探景白花臺 (탐경백화대) 경치를 흰 꽃 무대에서 찾으려나
山色因風轉 (산색인풍전) 산 색깔은 바람 따라 갈리고
泉聲得雨開 (천성득우개) 샘 소리는 비를 만나 열렸다
歸程須好去 (귀정수호거) 돌아가는 길 조심조심 살펴 가소
危路滑如苔 (위로활여태) 위태로운 길 이끼처럼 매끄러워.

대원대사의 시이다. 이 시의 구성에서도 시작과 끝이 재미있게 물려 있다. 첫 련에서 돌아옴과 끝 련에서의 돌아갈 길을 자연스럽게 맞물려 놓았기 때문이다. 찾아온 손님은 진여를 찾는 손님이다. 이때의 참(眞)이 진여의 세계일 수도 있고, 그대로의 진실의 참일 수도 있으니 나그네의 참다움을 엿보게 한다.

승련에서 명경의 집에서 지팡이를 멈추고 백화의 누대를 찾는다는 대구의 상징성이 이 시의 구성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명경이 진여의 마음바탕을 상징한다면 백화는 외계의 아름다움인 일상의 세계라 할 수도 있으니, 이 나그네는 진여탐구의 수도에서, 잠시 자연경관의 심미적 속계로 내려온 것이라 함이 어떨까. 멈추다(留)와 찾다(探)의 행위적 정지와 재출발도 시의 고도로서의 동정의 대칭이 재미 있거니와, 저쪽과 이쪽을, 명경사로서의 선계와 백화대의 속계로 맞물림에 있어서도 작자의 구성적 재치를 엿보게 한다.

산빛이야 변함없는 산빛이지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달리 보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산빛이 구른다(轉) 하였으니, 정적인 산색을 동적인 생동감으로 변화시킨 묘수라 하겠다. 샘물소리가 열린다(泉聲開)함도 재미있는 표현이다. 비로 인해서 물소리가 커졌음을 소리가 열렸다 하니, 단순하게 들리는 소리를 동작화한 느낌이어서 예사로운 수사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시작법상 각운을 고려하여 열 개(開)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해석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 쉽지 않은 수사이다.

오신 손님은 지나는 과객이다. 잠시 멈추었다 가는 손님이다. 오는 걸음을 반가이 맞이했다면 가는 걸음은 아쉬워함이 정이요, 떠나는 길에는 부탁이 따르게 마련이다. 길조심으로 당부할 수밖에, 길이 미끄럽다고.

이종찬 〈동국대 교수〉



"불법감동 노래로 전해요"

부산서 첫 찬불독창회 여는 정서영씨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찬불독창회가 열린다. 합창제는 드물지 않지만 찬불독창회가 시도되는 것은 처음으로 3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독창회를 갖는 불자 소프라노 정서영씨(30) 가 그 주인공. 동아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내원정사와 금강암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정씨는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던 부처님법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번 독창회를 마련했다"고 말한다.

이번 독창회에서 정씨는 김진씨의 피아노반주로 '일천강에 비치는 달' '청산은 나를 보고' '구름걷힌 달' '비구니' '지계의 노래' 등 13곡의 찬불가를 부르고 금강암 합창단과 부산불교교육대학 합창단이 찬조 출연한다.

정서영씨는 "노래를 통한 포교가 그 어떤 포교보다도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라며 이번 공연 후 독일유학을 떠나 몇년 열심히 공부한후 돌아와 불교계 음악지도자로서 또 노래포교사로서 회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희〉

최우수상에 '불감'

어린이문화재미술대회



◇김혜영어린이의 그림 '불상'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7일까지 지하1층 로비에서 '제23회 어린이 문화재미술실기대회' 입상작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초등학생 1천51명이 참가해 재능을 겨룬 가운데 최우수상을 차지한 '불감'(서교초등 4학년 김수빈)을 비롯 우수상 '불상' 등 총 1백6점의 입상작들이 선보인다.

최신간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오쇼 라즈니쉬의 이뀨선사 강의 · 이경옥 옮김



신국판 / 520면 / 값10,000원

아름답고 슬픈 감성의 소유자,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구도자 이뀨선사!
오쇼 라즈니쉬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시를 듣는다.

눈물 · 웃음 · 침묵의 스승,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그는 일본의 별난 선사 이뀨(一休)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뀨의 시들은 진하고 깊은 인간적 삶에서 우러나온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사랑의 빛으로 함께 어우러져 펄펄 살아 숨쉬는 대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뀨는 별난 선사?!
1394년, 고고마스(後小松)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술과 고기, 여색을 즐기는 등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하며 일체의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계율마저 넘어가고자 하였다.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당시 타락하고 있던 일본의 선승들을 가차없이 질타하고 태도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법구경 上·下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값6,500원

금강경

벼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432면 / 값7,000원

탄트라비전 I II III IV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신국판 / 전4권

부처님의 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신국판 / 400면 / 값7,000원

판차탄트라

감로수와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트 비쉬누 샤르마 지음 / 서수인 옮김
신국판 / 448면 / 값7,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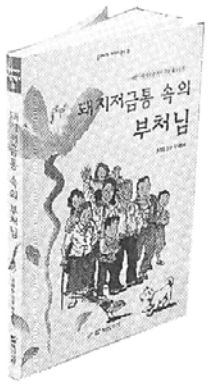
마 MATZU 조
조 JOSHU 주
임 RINZAI 제
남 NANSEN 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메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닦나요"



권대웅씨 불교동화 '돼지 저금통속의 부처님'

어린이들은 이별, 슬픔, 외로움, 방황, 죽음 등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겪는 이러한 문제들은 어른이 느끼는 것보다 몇배나 심각하다고 한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어린이들은 알지 못하고, 어른들은 또 어떤 관점에서 어린이들에게 인간이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를 설명해 줘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돼지저금통 속의 부처님〉(국민서관 刊)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재미있는 동화로 엮어 이러한 문제에 해답을 던져주는 불교동화다.

"할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닦나요?"라는 초등학교 4학년 주인공 동이의 물음에 "남에게 베풀며 몸을 건전하게 하고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배우며 거짓없이 순수하게 사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란다"는 할아버지의 설명은 불교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자기것 버리고 남에게 베풀며 욕심을 버리고 거짓없이 사는 것이란다"

이 책은 주인공 동이와 동이의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앞으로 부딪치게 될지도 모를 문제들을 어린이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또 각 장마다 생각해 보는 난으로 만들어 놓은 '마음이 맑아지는 불경이야기'는 〈법구경〉〈화엄경〉 등의 불교경전을 중심으로 베푸는 마음, 윤회란 무엇일까요,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는 법, 더불어 사는 삶 등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아 자비의 소중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린 동이에게 절친한 짝 장미가 전학을 가고, 아버지가 실직을 하게 되는 등 시련이 닥친다. 그러나 사랑과 노력으로 동이는 장미와의 우정도 지켜나가고, 아버지의 농장운영으로 동이네 가족은 활기를 되찾는다.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동이는 세상에는 자신보다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잡부일을 하던 소녀가장 금란이 누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돼지저금통에 용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런 동이의 생각은 동이네 반 친구들은 물론 학교 전체로 퍼져 돼지저금통에 용돈모으기가 시작되고 불우이웃 돕기로 번져간다. 돼지저금통속에 부처님이 화현하는 것이다.

또 동이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이러한 이야기 전개를 통해 어린이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생활속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

이 책은 불교방송 구성작가, 출판사 편집장을 역임하고 현재 왕성한 시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권대웅씨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고 불교사상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펴냈다. 또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서를 그림으로 그려온 한병호씨의 삽화는 친근하고 풋풋한 동화적 감동을 자아낸다.

이은자 기자

'한국사찰보감' 펴면 옛절 5200곳 만난다

이동술씨 18년동안 자료 발굴정리



신라 때 창건된 금강산 유점사를 위시해 불교전래 이후 한말(1910년)까지의 국내에 건립됐거나 또는 그 터만 남아있는 사찰 5200곳을 수록한 한국사찰 총목록 〈한국 사찰보감〉(우리출판사 刊)이 나와 화제다.

이 책은 이동술씨(前 국민대 고전실 근무)가 18년 동안 발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펴낸 것. 민족종교, 호국불교로서 민족문화를 주도했을 뿐아니라 우리역사와 함께 발전과 퇴행을 거듭해온 사찰의 면모를 수집, 기록한 이 책은 과거의 전모파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불교역사의 흐름까지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있다.

특히 사전식(가나다 순)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편집된 이 책은 금석문, 역사류, 문집류 등 많은 전적과 사료를 색출 분석해 사찰의 위치 연혁 설화 부속암자 유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등을 수록했다. 또 1910년 이후 건립된 사찰이라도 공익기관에서 발행된 자료를 통해 중건(重建)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도 모두 정리했으며, 각종 문헌류에 나타난 인명(人名)·자호(字號)와 부속암자를 제외한 사찰을 시도별로 구분해 수록했다.

이 책에 실린 사찰에 관한 여러 기록들은 우리의 역사, 문화 연구와 불교사상 및 고승연구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역사의 인과법칙 담았어요"

성낙주씨 장편소설 '왕은 없다' 출간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역사적 근거와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역사의 진실과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기존의 역사소설과는 차원을 달리한 새롭고 신선한 문학으로써의 역사소설을 정립하고 싶었습니다"

2년전 〈차크라바르틴〉으로 불교소설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소설가 성낙주씨는 야심에 찬 신작 〈왕은 없다〉(들녘 刊 전2권)를 이렇게 설명한다.

〈왕은 없다〉는 아버지 태종에게서 외면당하고 아우 충녕(세종)에게 왕좌를 내주어야 했던 양녕대군의 주변과 내면세계를 통해 조선 건국초 70년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보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절대권력의 허무를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작가는 "권력을 무조건 부정하기 보다는 현실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로써 보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권력의 필요성을 담고 싶었다"고 말한다. 양녕의 변화된 권력관을 통해서 왕권 이동의 이면에 감추어진 인과의 법칙을 규명해 내고, 불교와 유교의 첨예한 충돌의 시대를 당시의 유교와 불교를 대변하는 김익겸과 부공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시대정신과 인간의 본질을 유려한 문체와 세밀한 내면심리로 결쳐보인다.

"탐진치로 가득 쌓인 인간의 삶이 권력을 이용해 야기시키는 많은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소신공양도 조선초기의 피비린내를 회향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작가는 이를 통해 종교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쓰고 나서는 또 비워놓아야 채워지는 법, 앞으로도 단편보다는 성장소설, 기획소설 등 장편소설 쓰기에 계속 힘쓸 계획"이라는 성낙주씨. 지난 2년간 새로운 역사소설 쓰기에 몰두해 왔던 그는 그러나 역사소설을 3류소설쯤으로 비하하는 우리의 현실이 못내 안타깝다고 말한다.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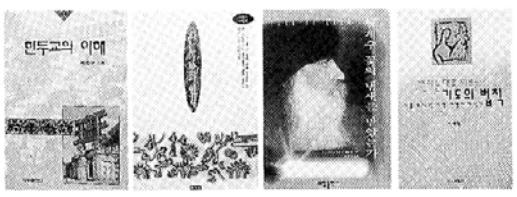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힌두교의 이해=힌두교의 자연적 인종적 배경과 특성 등을 통해 힌두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책이다.

특히 이 책은 불교의 사천왕은 힌두세계의 4방위 신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라는 등 불교의 힌두교화와 수용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불교가 인도라는 토양에서 힌두적인 사고를 그 배경으로 하여 발생했고, 힌두교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세창출판사 1만원〉

▲하늘과 땅과 인간=고건종리의 아버지이자 학자인 고형곤옹의 수상록이다. 인간과 운명, 지식, 교육, 문화 등 인생살이의 이야기들을 담았다. 이 책에는 근 한세기를 이 땅과 함께 호흡해 온 한 노철학자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이 불교적 사유로 펼쳐진다. 〈운주사 7천원〉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오쇼라즈니쉬가 일본의 선사 이큐(1394~1480)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명쾌하게 전하고 있는 책이다. 여기에



수록된 시들은 모두 이큐라는 별난 일본선사의 진하고 깊은 인간적 삶에서 우러나온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함께 하모니를 이룬다. 〈태일 1만원〉

▲기도의 법칙=사랑하는 가족, 이웃, 나아가 온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진보하는 가운데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길을 안내하는 따뜻한 명상서다. 이 책은 대학입시 합격을 위해,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평화로운 죽음을 맞기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정신세계사 8천원〉

불교사상의 이해 | 불교 교재편찬위

학자 15명이 쓴 현대시각의 불교사상



우리의 시대와 사회에 불교의 진리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속에 선보인 책이 바로 〈불교사상의 이해〉다.

이 책은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의 교양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펴냈다.

깊고 방대한 불교사상 체계를 박성배(뉴욕주립대), 윤원철(서울대)교수 등과 동국대 이봉춘, 이만교수 등 총 15명이 집필을 맡았다.

종교로서의 불교, 샤카무니 붓다, 근본불교, 대승불교, 불교와 사회 등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재의 시대와 사회에 동떨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부록으로 불교용어 해설, 인도불교 지도를 실었다. 〈불지사 8천원〉

화제의 책

팔만대장경에… | 진현종 지음

108가지 불전설화로 대장경 읽기



방대한 팔만대장경 속의 가르침을 불전설화를 통해 보다 쉽게 접할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에 숨어있는 108가지 이야기〉이다.

우리의 생활속에 깃들어 있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안내하는 이 책은 올봄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을 선보였던 진현종씨(번역가)가 펴냈다.

이 책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등 총 4장으로 나눠 그와 관련된 108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팔만대장경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혜윰 6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부드러운 밀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 타	효 림
2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4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5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6	가슴을 찍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7	티벳사자의 서	류 시 화	정신세계사
8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류 시 화	열 림 원
9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10	백팔고개넘어 부처되기	계 환	시 공 사

구입문의:(02)737-0695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II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일승법계도 저자 "의상스님 이다" "지엄스님 이다"

요르겐센교수 '방산석경' 근거 '지엄說' 주장
국내불교학계 "의상 著 확실…논란여지 없다"

대승불교의 백미 〈화엄경〉의 가르침을 법성게(法性偈) 210자로 압축시킨 〈일승법계도합시일인〉(이하 법계도). 지금껏 의상(625~702)스님의 저술로 여겨왔던 학계에 저자가 지엄(智儼 · 602~668)이라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돼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지엄 저자설'은 '한국불교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20일 개최된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존 요르겐센교수(그리피스대학 · 호주)가 제기한 것. 그는 "중국 방산(房山)의 운거사(雲居寺)에서 1118년~1196년 사이에 새겨진 〈방산석경 · 房山石經〉에는 중국의 지엄스님이 법계도 저자로 기록되어 있다"며 "의상스님이 저자라면 법계도가 완성된 668년보다 500년 후에 제작된 석경에서 당연히 지엄 뿐만 아니라 의상스님도 기록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계도는 중국의 지엄스님이 작성했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으로 각기 전해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3월 중국의 요장수(姚長壽) 교수가 〈중국석경 연구〉에 '〈방산석경〉의 화엄전적에 대하여'를 발표해 '엄법사조(嚴法師造)'로 명기된 〈일승법계도합시일인(一乘法界圖合詩一印)〉을 소개하고 의상스님이 법계도를 만들었다는 종래 학설의 수정 제안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대해 불교학계는 일연 · 최치원 · 균여 · 의천 · 김시습 등의 저술에는 의상스님이 법계도를 지은 것으로 분명히 기록돼 있겠지만, 이것은 저술에 참여했다기보다 '논문지도'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주스님(동국대 불교학) 역시 "신라시대의 어느 주석서에서도 철언찰구 법성게의 저자가 지엄이라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며 "〈석경〉보다 앞서 기록된 〈원상록 · 元常錄〉 등에서 지엄과 의상이 동일하게 등장한 것으로 보아 석경의 사료적 가치가 의심스럽다"고 요르겐센교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계도 저자'와 관련해 이미 10세기 중반에 지엄이 법성게를 짓고 의상이 도인(圖印)을 그렸다는 설과 의상의 작품이라는 설이 공존해 있었다. 그때 균여스님(均如 · 923~973)이 법성게와 도인 모두 의상의 찬술로 단정했고, 이후 불교학계는 '의상 저자설'을 정설로 삼아왔다.

한편 김상현교수(동국대 인문학부)는 "〈원상록〉과 〈의상전〉에 기록된 법계도 관련 설화에서 의상과 지엄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법계도가 의상과 지엄의 합작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의상이냐 지엄이냐. 법계도의 저자가 의상스님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불교학계는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법계도 관련 기록이 최초로 수록된 〈원상록〉의 저자 '원상'(元常)의 국적을 밝히고 12세기 이전에 새겨진 〈방산석경〉의 법계도가 당시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고려에서 전해진 것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종욱 기자



◇1118~1196년 사이에 새겨진 중국 〈방산석경〉에 나온 법계도 '嚴法師造(지엄법사가 지었다)'라는 명기가 보인다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의상스님 진영.

"불교와 유교 사회병폐 치유책"
정병조교수 한불연 주최 국제불교학술회의서 주장



'보살' '군자' 많아야 사회갈등 최소화

물질문명의 풍요 속에서 정신적 지표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 동양의 전통사유인 불교와 유교가 현대인에게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이 6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불교와 유교'를 주제로 개최하는 제16회 국제불교학술회의에서 정병조 교수가 이같은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다.

정교수는 '철학으로서의 불교, 종교로서의 유교'에서 "2차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이 보여준 고도성장은 불교의 정중동(靜中動), 유교의 협동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불교와 유교는 오늘의 고난과 갈등을 푸는 열쇠로써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교는 낡은 전통의 너울 속에 안주하는 골동품 취급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불교는 지나치게 초월적이며 시대 착오적이라고 매도당하기 시작했다는 것.

정교수는 "불교와 유교는 그 사상적 상이점을 도출하고 서로 공통점을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했다"며 "불교는 의례불교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자비를 실천해야 하기에 출가자의 수행과 재가자의 '깨달음의 사회화'의 병행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출가와 재가는 상호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정립 즉 '수행'과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조교수는 "불교와 유교는 현사회의 고뇌와 병폐를 전통사유에서 고뇌하고 현대적 언어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불교의 보살과 유교의 군자가 현대 산업사회 속에 있어야 하는 존재 당위를 찾는 작업"이라고 결론지었다.

최근덕교수(성균관대)는 '유교와 불교에 있어서 이상적 인격'에서 "유교는 인간의 세계관을 현재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불교는 삼세십계(三世十界)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인격에 있어서 유교는 도덕적 인간을 강조한 반면 불교는 원만(圓滿) 자재(自在)한 인간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루우열교수(북경대 · 중국)가 '중국에서의 불교와 유교', 존 요르겐센교수(그리피스대 · 호주)가 '조선조 불교와 유교의 대립관계' 등을 발표한다.

"美언론 동양종교 심층 보도"
슈멜즈바우어 박사 최근 경향분석 논문발표

불교 등 동양 종교가 미국 사회의 중심부에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타임즈〉 등 주요 시사지 종교전문기자들의 취재 태도와 종교 소양이 나아졌기 때문.

'미국종교문화 연구센터'의 슈멜즈바우어박사는 〈종교학〉지에 기고한 논문 '美언론을 휘젓는 종교'에서 美 시사지들의 종교관련 보도를 분석하고 이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슈멜즈바우어는 "종교전문기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변화는 뉴스룸 자료에 의존해 기사를 쓰기보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종교활동가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장-심층 취재 경험은 종교전문기자들에게 미국 종교계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종교전문기자들이 대학의 종교학과를 찾는 것도 부쩍 늘어난 현상"이라며 "발델빌트대학 종교연구소가 종교전문기자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종교전문기자의 종교성향이 기독교 · 이슬람 · 불교 · 유대교 등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美 시사지가 동양종교를 심층 ·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술단신

불광대사전 한글색인본

대만의 대표적인 불교사전 〈불광대사전〉(전7권)의 한글 색인본이 발간된다.

용학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은 2개월간의 작업 끝에 2만5천자에 달하는 한글 표제어를 최근 정리하고 4백여쪽 분량의 〈불광대사전 색인본〉 발간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 색인본이 한자 총 획순으로 단어를 찾았던 반면 한글 색인본은 한글의 모음과 자음을 순차적으로 검색해 낱말을 찾게해 검색이 훨씬 손쉬워진다. 또 해당 용어가 수록되어 있는 〈불광대사전〉의 권 수와 쪽 수를 게재해 놓고 있어 단시간에 원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한다.

승가대학원은 그동안 〈금강경전서〉 불교학관련자료 CD롬, 〈화엄학개론〉 등을 발간하는 등 활발히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태교수 퇴임강연회

동국대 불교학과 김영태교수가 5일 3시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정년퇴임 기념 강연회를 갖는다.

이번 강연회에서 김교수는 '고구려 연가 · 연수연호에 대하여-인현의불상의 연대를 밝힘' '당 구화산의 신라 지장선사-왕자설과 이름 김교각 문제' '대각국사의 고려교장-〈속장경〉이 아니다' 등 지금까지 학계에서 다룬 바 없는 세 가지 주제-연구를 발표한다.

동대 석림회 '석림' 발간

동국대 석림회(회장 정도)가 〈석림〉 제3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불교적 관점에서 본 유전공학'(윤용택) '지구환경의 현실과 과제'(박광서) '현대인의 정신적 · 육체적인 병'(김성규) 등을 소개해 현대사회의 제문제와 불교사상을 기획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젊은 비구스님들과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말씀'(틱낱한) '찬불가의 현황 및 진로'(정부기) '불교소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장영우) '지눌의 선사상 연구'(명정) '초기불교의 선정수행에 관한 일고'(금강) '금산사의 미륵신앙'(각진) 등 교수 · 학인들의 논문 10여편이 게재됐다.

에이즈환자 돕는 '캄' 팔홍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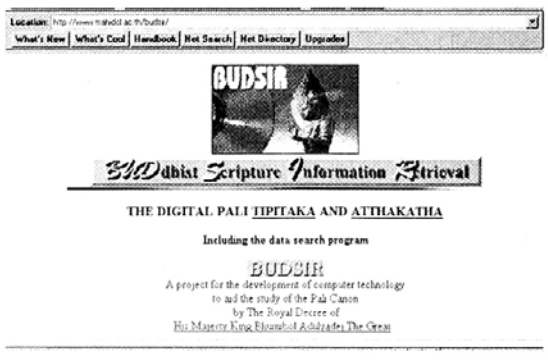
캄보디아 팔 홍(Pal Hon) 스님이 에이즈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중 1.2%(약 12만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살고 있는 세계 최고의 에이즈 국가.

이곳의 가난한 에이즈 환자들은 병고(病苦) 뿐 아니라 약을 구입할 때마다 2만원(미화 20불)을 지불해야 하는 생활고(苦)도 겪고 있다. 이 금액은 캄보디아 국가공무원의 한 달 봉급.

팔 홍스님이 이들에게 배푼 자비는 단지 나무껍질과 뿌리로 만든 차와 따뜻한 격려 뿐. 그러나 가난한 에이즈 환자들이 팔 홍스님을 찾아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캄보디아 보건국 '에이즈 프로그램' 담당자인 타이 팔라씨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에이즈 환자를 도울 수 없다"며 "팔 홍스님과 같은 종교인들의 참여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더없는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팔리경전 전산화 과정 「볼기회」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마히돌대학 컴퓨터 센터

마히돌대학 컴퓨터센터는 세계 최초로 남전대장경의 전산화를 성공해 주목받고 있는 태국의 대표적인 불전 연구소.

이 사이트에서는 팔리경전의 전산화 과정과 전산본 경전, CD롬 경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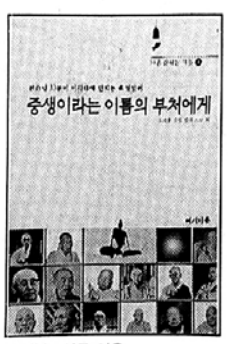
'컴퓨터센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경전 전산화 작업은 최근 개발을 끝낸 CD롬 '불교경전 정보검색'(Buddhist Scriptures Information Retrieval). 여기에는 남전대장경 45권, 주석서 55권 기타 경전 15권 등 115권 팔리어 불교문헌이 입력되어 있다. 또 태국어와 팔리어-영어음역어로 기록된 이 CD롬은 멀티미디어 기능까지 제공한다. 이 기능은 모니터에 나타난 경전 내용중 일부분을 선택하면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원음을 들을 수 있게하는 서비스.

불자 네티즌이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30여개의 경전 문구를 사용해 멀티미디어 기능 등 CD롬 경전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 팔리어 색인 검색기능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전자사전기능도 만끽할 수 있다. http://www.mahidol.ac.th/budsir/

수행자를 위한 여시아문의 책

여시아문 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마음 맑히는 책들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 / 큰스님 / 법어 / 모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마음 맑히는 책들 ②



삶은 苦가 아니다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대행 / 스님 / 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경전 공부 ①



금강경 대강좌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적연 이제열 법사가 풀이한
금강경 대강좌

선(禪)적인 해석이나 뜻풀이에 그쳐
모든 불자들이
온전히 제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금강경.
그 금강경이 이제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금강 반야의 세계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선다.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독특한 해석으로
명쾌한 수행방법론을 제시!

한 형 조

무문관 담방

31

가섭의 깃대

*아난이 가섭에게 물었다. "세존께서 금란가사를 전하신 이외에 따로 무엇을 전해주었습니까." 가섭이 말했다. "아난아." 아난이 "예" 하고 응답하자, 가섭이 말했다. "문 앞의 찰간(刹竿)을 넘어뜨려라."

*나 혜개가 말한다. "만일 여기서 한 마디를 적실히(親切) 내릴 수 있다면 영산(靈山)의 회상(會上)이 지금도 엄연함을 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비바시불(毘婆尸佛)이 아득한 시절부터 마음을 기울여 수행했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송하여 가로되, "질문은 어찌 되었건 대답은 적실하다. 몇 사람이나 여기서 눈을 부릅떴을꼬. 형이 부르고 아우가 대답하여 집안 망신을 시켰는데, 계절(陰陽)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봄이라니."

迦葉刹竿:

迦葉, 因阿難問云, 世尊傳金襴沙外, 別傳何物. 葉喚云, 阿難. 難應諾. 葉云, 倒却門前刹竿着. 無門曰, 若向者裏, 下得一轉語親切, 便見靈山一會, 儼然未散. 其或未然, 毘婆尸佛, 早留心, 直至而今, 不得妙. 頌曰, 問處何如答處親, 幾人於此眼生筋. 兄呼弟應揚家醜, 不屬陰陽別是春.

세존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몇몇 알고 있다. 그 가운데 가섭은 두타, 즉 번뇌를 끊는 고행과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아난은 석가의 사촌동생이었다. 공교롭게도 보리수 아래에서의 성도(成道)와 때맞추어 태어나, 석가가 열반에 들때까지 곁에서 시종했다. 석가의 법륜을 모두 외워 불교전파에 이바지했던 그는 그 뛰어난 기억력으로 지혜가 제일이라는 평을 받았다. 선이 아난에게가 아니라 가섭에게 석가의 법통을 물려 준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설정에서도 교에 대한 선의 혁신적 옹호를 읽을 수 있다.

영산의 회상을 기억한다. 경전을 떠나고 언어가 침묵한 자리에서 석가는 꽃을 들었고 가섭은 미소로 그 꽃을 받들었다. 선의 진리는 처음 이렇게 전해졌다. 2조 가섭은 평생을 석가를 모시고도 궁극을 엿보지 못한 아난을 깨우치려 했다.

혜능이 그러했듯이 진실은 의발(衣鉢)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전해주고 전해받은 것은 대체 무엇인가. 아난은 이것을 가섭에게 묻고 있다. 이 질문에 가섭은 아난을 그윽히 불렀다. 묻고 답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몇 차례 짚어본 바 있다. 그것은 네가 곧 부처라는 돈오의 진실을 충격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아난이 이 물음의 의미를 올바로 알았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거나 아난은 가섭의 부름에 "예" 하고 대답을 했고, 이에 가섭은 문밖의 찰간을 넘어뜨리라고 말한다. 찰간을 넘어뜨리는 것은 법상 앞의 자리를 말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법이 끝났음을 알리는 의식이다. 공연이 끝났으니 그만 무대를 걷으라는 말이다.

혜개는 보증한다. 가섭의 설법을 알아들은 사람은 절대의 경지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친절(親切)"이란 남에게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의 맥락이나 문장의 의미를 자각적으로 대면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혜개는 저 영산의 회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공연이라고 말한다. 진리에는 시간이 없다. 그것은 누차 말했듯이 일상적 시간의 계기 너머의 초시간적 사건이다. 절대를 돈(頓), 즉 초월적으로 파지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비바시불은 과거 7불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다. 아득한 시절부터 수행을 했어도 돈오의 비밀을 모른다면 진리(妙)는 아득히 멀리 있을 뿐이다.

혜개는 마지막 구절에서 가섭과 아난이 벌인 이 소동이 방편의 고심이었음을 밝히기를 잊지 않는다. 형인 가섭이 묻고 동생인 아난이 대답한 것은 집안 망신을 드러낸 꼴이라는 것이다. 왜 그러는 지는 익히 살펴 본 바이다.



그림 · 이준석

'계절아닌 봄'에서 봄을 느껴라

영산회상 지금도 엄연…진실 의발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진리는 화두에 있지 않다. 경전이나 교설, 화두나 공연은 모두 진리의 언덕으로 건네주는 뗏목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궁극적 진리와 등치될 수 없다. 진리는 내가 나의 본질을 파지하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송의 마지막 구절에서 혜개는 그곳의 풍경을 잠깐 보여준다. "음양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봄!" 음양은 시간적 순서, 계절의 교대(消息)를 가리킨다. 그것은 일상적 의식에 투영된 시공의 질서를 암시하고 있다. 절대는 그러나 이 인식론적 제약과 한계 너머에서 일어나는 초시간적 사건이다.

우리는 그곳을 일종의 박제된 공간으로 연상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선은 그런 오해에 빠지지 말라고 늘 경계한다. 그곳은 회색빛의 어둠이나 파리한 영혼들의 죽은 세계가 아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꽃이 진다." 선은 죽음과 무기력을 무엇보다 타기한다. 초기불교는 열반을 의지의 완전한 소멸에서 찾는, 어느 면에서는 음울한 색조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은 이와는 다르게 생명의 약동과 축복을 고무찬양해 마지 않는다. 그곳은 별세계 아닌 별세계이다. 그곳에서 그대는 진한 봄내음을 맡고 있는가. 혜개는 그렇게 묻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41〉

십금강신(十金剛身)

변하지 않는 보살의 10가지 서원

"온갖법 깨달아 시방중생 제도하리"

굳세고 단단하여 파괴되지 않는 물질로는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를 최상으로 친다. 금강석은 단단한 것 외에도 깨끗함, 광채가 남, 고귀함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금강경〉〈금강삼매경〉〈금강정경〉과 같은 경전외에도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를 금강좌, 지혜를 금강지, 세계를 금강계라고 하는 등 금강석을 가지고 불교의 이상적 경지를 비유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들도 금강신장, 금강역사, 금강양차가 있고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중에는 금강검, 금강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신장들은 모두 불보살이 정법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화현된 분들로 일반 중생계에 속해 있는 신장들(예컨대 산신이나 용신 처럼)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수행을 해서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든가 부처의 지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보살도라고 하는데 보살도를 닦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으므로 금강신(金剛身)이라고 부른다. 이 금강신은 변하고 없어지는 중생의 몸과 마음과는 전혀 다른 열가지의 불괴불변의 마음으로 몸을 삼고있다.

금강같은 보살의 몸은 첫째 무량무변한 온갖법을 모두 깨달으려는 마음이다. 무량무변한 온갖 법을 깨닫는다 함은 세상에 펼쳐진 일체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물질의 법, 정신의 법, 삶의 법, 미래의 법, 윤회의 법, 해탈의 법 등의 근본이 어디서 비롯되고 이루어졌는지를 기필코 깨달으려는 마음이다.

둘째, 시방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려는 마음이다. 보살은 중생의 생사와 고통을 자신의 생사와 고통으로 본다. 진정한 해탈은 중생 모두와 더불어 함께 할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생과 보살의 본성은 같기 때문이다. 셋째, 한없는 세계를 부처의 세계로 장엄하려는 마음이다. 한없는 세계라 함은 중생 모두가 지니고 있는 마음의 세계이다. 중생 중생마다의 마음엔 벼라별 천양각색의 무수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끝이 없다. 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마음세계를 정화시키고 제도하여 하나의 크나큰 깨달음의 마음세계, 즉 부처의 세계로 만들어 놓는다.

넷째 자기가 수행한 착한 공덕의 결과를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회향하려는 마음이다. 수행의 공덕은 자신이 짓고 자신이 혼자 이룬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남이 없다면 자신도 있을 수 없듯이 공덕은 더불어 짓고 더불어 받는 것이다. 본래의 참된 마음세계에는 부처와 중생 그리고 보살 자신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모든 부처님께 항상 널리 공양하려는 마음이다. 공양이란 바치고 기른다는 뜻이다. 모든 법의 근본이며 일체중생의 올바른 안목이신 부처님 전에 항상 마음을 바침으로해서 공덕을 쌓고 기쁨을 이루는 것이다. 여섯째는 일체제법을 모두 진실하게 체험해 보려는 마음이다. 보살의 마음에는 의심과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럴려면 법속에 뛰어 들어야한다. 중생의 법, 부처의 법을 따로 나누지 말고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그 진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럼 무엇이 일체법인가? 곧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의 이법이다. 일체 마음을 항상 관찰해보면 법이 무엇인지가 꼭 드러나는 것이다. 일곱째 어떤 고통이라도 달게 받으려는 마음이다. 부처님의 법은 일체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이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고통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야 한다. 보살은 고통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고통을 싫어하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받는다고 했다. 여덟째는 중생을 교화하되 싫증이 나거나 피곤하거나 하지않는 마음이다. 보살의 마음은 가없는 마음이며 변함 없는 마음이다. 진리를 깨달은 마음에는 무한한 힘과 사람이 꽉차있다. 온갖 중생에게 골고루 주어도 조금도 줄어듦이 없는 마음이 있으므로 힘들거나 그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아홉째는 자기의 수행을 완성하려는 마음이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자신을 제도해야 한다. 자신의 밝음이 남을 밝게 해주는 것이므로 남을 깨우쳐 주는 일은 자기의 깨달음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열번째는 다른 이의 온갖 소원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이다. 불안해하고 부족해하고 번뇌 황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보살은 중생의 이러한 마음을 쉬게하고 자족을 얻게 한다. 때에 따라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면서도 그들의 욕망을 그치게하고 남으로부터 얻으려는 마음을 없이해 준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사람들에게 죽고 썩고 없어질 무상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불멸한 금강불괴신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금강불괴신이란 이렇게 보살의 원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9

불교와 수학

34

개념의 존속

김 용 운

지난호 본 난에서 '언어도단과 기호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제는 언어도단의 '진여(眞如)의 세계'를 그의 일갈(一喝)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제자의 행동에서 보였다. 또한 그것은 마치 수학에서의 무한에 관한 개념화와 기호화나 개념화 과정과 일맥상통했음을 말했다. 그러나 선(禪)은 지식이 아닌 마음에서 얻은 닮음이다. 같은 행동일지라도 사람마다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수학은 지(知)의 세계에 속한다. 그 속에서 여러 지식을 흡수하면서 그 틀에서만 통하는 생각과 논리가 정착되어 있다. 새로운 문제가 지기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문도 발상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지식도 그 세계에 머무르고만 있다면 새로운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다.

임제화상은 이 상황을 '흑만만지(黑漫漫地 · 어둠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한다. 선(禪)은 모든 기존의 틀을 깨고 또 깨고 부정을 거듭하며 스스로 문제를 설정한다. 얻은 지식, 기존의 틀 모두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 수학의 선구자가 처음 무한을 인식하고 일단 기호화가 끝난 후 후학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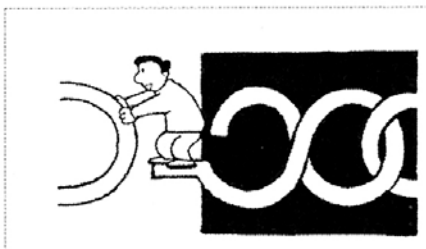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禪 기존의 틀깨고 자신의 세계 구축

수학 선구자의 길 따르며 새경지 개척

임제가 죽음에 임하게 되자 조용히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은 후 나의 정법(正法)을 잊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때 한 제자가 나서며 "어찌 감히 스승의 정법을 멸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임제화상은 "그렇다면 나의 정법이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제자는 '할(喝)'이라고 일갈(一喝)했다. 그 말을 들은 임제는 "진여의 세계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구나. 이 미련스러운 놈! 이제 나의 법도 사라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그친 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말 그대로 '너는 안되겠다'는 부정적인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그 제자는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암시한다는 것이다. 본래 임제의 세계는 분별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그의 정법이 정립된 것이라면 이미 기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정법의 세계는 자신 하나의 세계이며 진여세계는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으며 굳이 '나의 정법을 없애는.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까지 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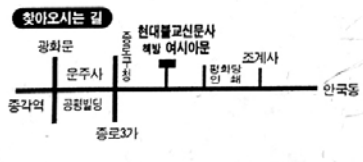
또한 그 내용을 말하라는 것은 더욱 격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제 나의 법이 사라질 때가 되었다'는 말이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된다. 선에서의 진여의 경지는 나에게만 나타나는 독자의 세계이므로 임제가 사라질 때는 이미 그 세계도 없어지며 그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개척해야 된다. '부모를 죽이고 스승을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도 죽여라'라는 말도 있다. '죽여라'로 표시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강렬한 구도정신이다. 스승의 법이 사라질 때가 됨으로써 오히려 제자의 세계가 열린다. 이 점이 수학과는 다르다. 처음 무한 세계를 온몸으로 인식한 수학자는 그것을 기호화(개념화)함으로써 제자에게 전한다. 기호화할 수 없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수학은 그것을 기호화함으로써 새로운 경지에 진입할 수 있다. 수학자는 스스로 개척한 무한의 내용을 기호화하고 후학은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다. 가령 처음 발견된 무한의 세계를 '∞'로 기호화하면 무한을 더한 것, 즉 '∞+∞' 또는 곱한 것(∞×∞), ····· 등 온갖 무한을 생각하며 새롭게 기호화 · 개념화한다. 무한세계보다 더 큰 무한세계, 무한세계를 무한개만큼 겹친 세계, 수학자의 상상력은 팽창해 간다. 그러나 이들 사색의 결과는 반드시 기호화(개념화) 되어야만 수학자의 공통재산일 수 있다. 무분별과 분별의 세계가 지닌 근본적인 성격이 기호 또는 개념화의 존속 유무에서 나타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좋은 책 할인 판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그동안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책만을 엄선하여
'할인 판매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만물이 제자리로 향하는
이 깊은 가을, 여시아문에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한가로운 도인의 길 김달진역주/세계사/8,000 → 5,000원
태고집 설서 편/ 〃 / 8,000 → 5,000원
선이란 무엇인가 장순용 엮음/ 〃 / 10,000 → 6,000원
대승기신론 마명/ 〃 / 8,000 → 5,000원
한산시 김달진 역주/ 〃 / 10,000 → 6,000원
동양의 지혜와 선 심재룡/ 〃 / 12,000 → 6,000원
노자 그 불교적 이해 감산대사/ 〃 / 10,000 → 6,000원
자아의 책 박철화 옮김/ 〃 / 4,000 → 2,000원
부처님이 올 수 없는 땅 심재룡/ 〃/ 4,000 → 2,000원
한 그루의 우주 나무와 신화 김열규/ 〃 / 4,000 → 2,000원
보살은 누구인가 목우/ 〃 / 4,500 → 2,000원
산거일기 김달진/ 〃 / 3,500 → 2,000원
한 · 중 불교 문화 교류사 황유복 외/ 까치/ 15,000 → 8,000원
초서자전 편집부/ 까치/ 30,000 → 15,000원
중국 불교 사상사 키무라 키요타카/ 민족사/ 4,000 → 3,000원
밀교의 역사와 문화 요리토미 모토히로 외/ 〃 / 5,500 → 3,000원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시토 미츠오/ 〃 / 4,200 → 3,000원
원효의 인식과 논리 신현숙/ 〃 / 3,500 → 2,000원
불교의 현대적 조명 교수불자연합회/〃/ 5,500 → 3,000원
인도 불교의 역사 히라카와 아키라/〃/ 6,000 → 3,000원
인도 불교 사상사 에드워드 콘즈/ 〃 / 5,500 → 3,000원
중국 불교 上 K.S 케네쓰 첸/ 〃 / 5,000 → 3,000원
묘법연화경 광우/ 〃 / 8,000 → 5,000원
북한의 절과 불교 정태혁 외/ 〃 / 5,000 → 3,000원
법구경 에피소드 정태혁/ 〃/ 4,500 → 3,000원
논어와 선 한토 다이가 외/ 〃 / 4,500 → 3,000원
푸른 산빛을 깨치고 전보삼/ 〃 / 4,500 → 3,000원
불교와 그리스도교 히로사치야/ 〃 / 3,300 → 2,500원
소승 대승 히로사치야/ 〃 / 4,300 → 3,000원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 놀란플리니 제이콥슨/ 〃 / 3,500 → 2,500원
환상의 타임머신 손영성/ 〃 / 3,000 → 2,000원
금강경 김지견/ 〃 / 4,500 → 3,000원
중화의 지혜 중국민중사상연구회/ 〃/ 5,500 → 3,000원
선정쌍수의 전개 한보광/ 〃 / 5,000 → 3,000원
붓다와 다르마 B.R. 암베드카르/ 〃 / 5,500 → 3,000원
인식과 초월 핫토리 마사아키 외/ 〃 / 4,300 → 2,500원
딴뜨라 불교 입문 S.B. 다스굽따/ 〃 / 4,000 → 2,500원
중국 중세불교 사상 비판 임계유/〃/ 4,500 → 2,500원
대승불교의 사상 우에다 요시부미/〃/ 3,500 → 2,000원
천태 법화의 사상 타무라 시로우 외/〃/ 4,000 → 2,500원
일본 불교사 이영자 옮김/ 〃/ 5,000 → 3,000원
화엄경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불교시대사/6,500 → 3,900원
대승기신론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 〃/ 4,300 → 2,500원
불교학개론 강의실 1, 2 장휘옥/ 〃 / 4,500 → 2,700원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 조오현/ 〃 / 4,500 → 2,700원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김정휴/ 〃 / 4,800 → 3,000원
미륵상생경 외 경전연구모임회/ 〃 / 2,500 → 1,500원
아미타경 외 〃 / 〃 / 2,500 → 1,500원
옥야경, 선생경 외 〃 / 〃 / 2,500 → 1,500원
유마경 〃 / 〃 / 2,500 → 1,500원
금강경, 승만경 〃 / 〃 / 2,500 → 1,500원
지장본원경 외 〃 / 〃 / 2,500 → 1,500원
본원행원품, 관세음보문품 외 〃/〃/2,500 → 1,500원
법구경, 사십이장경 〃 / 〃 / 2,500 → 1,500원
조상공덕경, 조탑공덕경 외 〃 / 〃/ 2,500 → 1,500원
부모은중경 외 〃 / 〃 / 2,500 → 1,500원
선문선답 조오현/ 〃 / 5,000 → 3,000원
행복한 마음 김정섭/ 김영사/ 5,900 → 4,000원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해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선암사 해우소는 규모나 구조면에서 해우소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할 정도로 이름나 있다.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하단부 한쪽이 고스란히 뚫린 출입구와 발의 높이가 같아 잘 숙성된 인분퇴비를 배추 밭 등에 뿌리기 쉽게 되어 있다. 너무 낡아 훼손을 막기 위해 지붕에 양철판을 씌워 두고 있다.

◀토종 해우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송광사 불일암 해우소. 하단부 아랫부분은 기와흙벽으로, 윗부분은 나무창틀로 했다. 한 스님이 거름을 채마밭으로 퍼내고 있다.
〈사진제공=홍석화〉

해우소

"자연 벗삼아 근심 비우는 곳"

'비우고 또 비우나 큰 기쁨 있네
탐 진 치 삼독도 이같이 버려
한 순간의 허물도 없게 하리라
옴 하로다야 사바하'

절집 뒷간에 가면 볼 수 있는 '입측진언(入厠眞言)'이다.

버림과 비움.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잘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말로야 할 수 있지만 어디 인간이 일단 한번 움켜쥐었다면 버리기가 그리 쉬운가. 그러나 이를 매일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화장실이다. 사람들은 매일 버림으로써 비움의 시원함을 느낀다. 아깝고 아쉽기 보다는 오히려 홀가분과 안정을 얻는다. 버리고 비우면서 도리어 시원함과 안정을 얻는 이 이치를 곰곰히 헤아려보면 어떨까.

냄새나고 더러운 것의 대명사, 똥과 오줌을 버리기 위해 매일 가야 하는 화장실. 그곳은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면서도 지저분하고 꺼림칙하게 여겨져 왔다. 이름마저도 뒷간→변소→화장실로 변했다. 요사이는 서양식으로 토일렛, W·C 등으로까지 부른다. 이름을 달리 부른다고 뒷간이 안방이 되는가.

불가에서는 뒷간을 더없이 적절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해우소(解憂所)', '근심을 해결하는 곳'. 만일 변비가 며칠만 계속된 사람이라면 해우소가 얼마나 적절한 이름인지를 단박에 깨달을 수 있으리라.

산속의 고찰이 관광과 유람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되어버린 요즘, 쏟아져 나온 답사기 덕분에 절에 가면 법당 탑 불상 단청, 심지어는 문살과 소맷돌까지 유심히 살펴보며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절만의 진짜배기 고유 문화재가 사람들의 버려진 눈길속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 전통 해우소.

이제는 산속 고찰이라도 대부분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었고 또 사찰의 대대적인 중창불사로 인해 재래식 해우소를 허물어버려 전통 해우소 찾기가 불사 안한 절 찾기보다 더 힘들게 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 순천 송광사, 문경 김용사, 순천 선암사, 홍천 수타사, 삼척 영은사, 오대산 중대 사자암, 영월 보덕사, 청량사 등.

밑바닥을 시멘트로 처리하고 하단부의 벽을 회벽으로 보수하는등 전통적인 모습을 일부 잃고 있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송광사, 선암사의 해우소는 규모나 건축면에서 쌍벽을 이룰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우소이다.

발우공양이 음식쓰레기를 전혀 남기지 않는 이상적인 불가의 식(食)문화라면 전통 해우소는 인간의 배설물을 다시 자연으로 환원시키는 이상적인 하수처리장이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불이(不二)사상, 이세상의 모든 것은 돌고 돌며, 서로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는 상의상관(相依相關)의 진리를 해우소만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인간이 음식을 먹고 배설한 배설물은 나엽, 왕겨 등과 함께 잘 썩히면 귀한 유기질비료가 된다. 이 비료가 땅에 뿌려지면 온갖 곡식과 채소를 키우는 귀한 거름이 되는 것이다. 화학비료의 폐해가 점점 심해지고 썩지 않는 일회용 물건들이 지구 전체의 골칫거리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발우공양과 함께 해우소도 되살려 본받아야 하는 훌륭한 절집문화라는 것이 해우소의 진가를 발견한 이들의 주장이다.

해우소는 자연으로부터 나온 음식물을 먹고 배설된 인분을 자연스레 저 대지에 되돌리는 자연순환의 연결고리를 고려해 지어진 건물이다. 해우소는 양쪽 측면에 거리를 두어 돌담을 쌓아 공간을 만들고 본건물을 지었다. 공기의 소통을 고려해 냄새도 빠지고 잘 썩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배설물이 모이는 해우소의 하단부 벽은 통나무나 기왓장을 이용 통풍구처럼 세우고 밑바닥은 흙으로 해 인분이 자연스레 흙과 어우러지게 했다. 또 사찰 주위에서 얼마든지 얻을수 있는 낙엽이나 나뭇재 등을 수북히 쌓아놓아 인분위에 덮어준다. 낙엽, 재, 왕겨 등과 섞이면 인분은 자연발효되어 곰삭아지고 여기에 채와 석회를 뿌리면 발효가 촉진되고 냄새가 없어져 훌륭한 거름이 된다. 이것은 논 밭이나 과수원 그 어느곳에 뿌려도 땅에 흡수되어 곡식이나 야채를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는 것이다. 토양을 좋게 하는 이러한 거름이 뿌려진 흙에서 자란 곡식이나 채소는 잘 여물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되어 상위에 올라온다. 대부분의 전통 해우소들은 아랫부분에 거름용 큰 출입문을 내놓아 잘 썩은 거름을 막바로 채소밭으로 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우소는 앉으면 딱 옆 사람이 보이지 않을 위치까지 나무칸막이가 되어 있다. 사방이 완전히 막힌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는 근후스럽겠지만 사실 볼일보는 일이 그렇게 꽁꽁 숨겨야만 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제는 희귀문화재가 되어가는 해우소. 가물때는 쓰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놓고,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한 수세식 화장실을 짓기보다 환경친화적이고 고찰의 모습과도 잘 어울리는 전통 해우소를 살려야 한다.

사찰을 소개하는 책자에조차 소외되어 있는 절집 해우소. 그 진가를 발견해 '이 사회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일이 불교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어느 날 한 운수납자가 조주스님을 찾아와,

"스님,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저의 간절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라며 "급하고 절박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다.

"오줌 누고 똥 누는 일이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이 노승이 스스로 누어야 한다는 것이네."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배부르다. 내가 추우면 내몸에 옷을 입혀야 따뜻하다. 내가 똥이 마려우면 내가 누어야 한다. 조주스님은 "내 똥은 내가 누어야지"라는 일상의 비유로 우리를 일깨운다.

매일 매일 해우소에 가지 않을 수 없는 인간들. 해우소에 갈 때마다 "제 똥은 제가 누워야지"라는 화두를 들어봄이 어떨까.

이경숙 기자

송광사 · 선암사등 10여곳만 전통해우소 그대로 남아

고찰마저 수세식으로 탈바꿈 "가리고 몰래 일봐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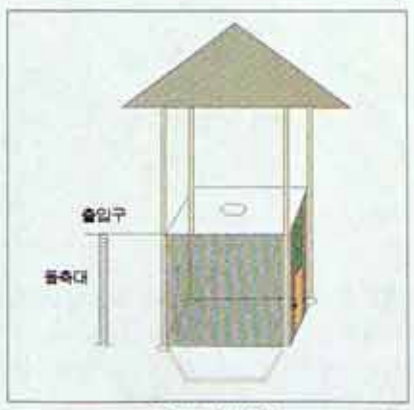
자연순환 고려한 절집 뒷간 선조들 슬기 되살렸으면…



◇해우소는 양쪽 측면에 돌담을 쌓고 1m 정도의 거리를 두어 본건물을 지었으며 해우소 하단부는 통풍이 잘되게 나무창으로 만들었다.



◇해우소 내부. 열린 공간이 몽가의 탁 트여진 세계를 보여주는듯 하다.



◇해우소 기본구조.

토종 해우소 연구 홍석화 씨

"전통 해우소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뒷간연구가를 자처하는 홍석화씨(49·한국토종연구회 부회장)는 전통 해우소를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다 사라지고 만다며 정부에서 무관심하다면 불교계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해우소 조사와 보존에 나서주기를 요구했다. 그가 전통 해우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다닌 것은 2년전부터. 〈한국의 토종 101가지〉〈한국의 토종기행〉〈토종문화와 모듬살이〉 등 3권의 책을 내고 토종문화관련 강연을 다니는 홍씨가 전국 수백 곳의 절집과 농가의 뒷간을 발로 뛰어 찾아낸 결과 전통 해우소야말로 토종문화중에서도 '진짜 알맹이'란 것을 발견했다. 울진 불영사와 같이 최근 다시 가보았을 때 이미 사라졌거나, 튼튼하게 고친다며 콘크리트로 보수해 그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해우소를 보았을때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환경친화적이고 과학적인 용변처리시스템인 해우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보수를 하더라도 하단부 기본 골격이 변형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당부하고 있다.

"과학적 용변처리 구조"

문화재로 지정…"공공화장실부터 고치자"



그는 환경문제의 핵심이 '핵'과 '똥'이라고 단언한다. '핵'문제야 엄청나고 미묘해 일반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나 '똥'문제만은 같이 고민하면 해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음식쓰레기, 산업쓰레기, 농축산물쓰레기, 하수처리 등이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관심을 보이면서도 '주먹만큼 싼 똥에 물 한말 타서 흘려보내는' 수세식 변소에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몇십억 몇백억씩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뭣합니까?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강물이 엉망이 되는데요"라고 소리를 높이는 그는 도시의 하수처리시스템을 종말처리에 맞추지 말고 근원부터 발상전환을 하자고 제안한다. 공학자들이 전통 발효식 인분처리의 최후산물이 농작물에 이롭게 쓰임을 증명하고 경제계에서 지역별 소규모 다단계 종합정화조를 설치해 강물 오염을 막고 정치가들은 시골 농민들 집에 정화조 묻으라는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홍석화씨는 대도시의 수세식 하수처리시스템을 전면 뜯어고친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므로 절집 해우소의 구조와 원리를 이용해 국립공원의 공공화장실부터 멋있게 짓자고 제안한다.

"아니, 환경을 보호하자는 환경단체연수원의 수세식 화장실부터 고쳐야 합니다. 뒷간을 잃어버리고부터 우리는 우리 목숨의 순환고리를 잃어버린거나 마찬가지가 됐으니 이 순환고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불교계가 먼저 발벗고 나섰으면 합니다." 홍석화씨는 그동안의 답사결과를 모아 내년 봄쯤 해우소에 관한 책을 펴 낼 예정이다.

*재래식 해우소를 갖고 있는 절에서는 홍석화씨에게 꼭 연락(011-730-8371)해 주세요.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술불품(術佛品) ②

諸惡莫作 제악막작
諸善奉行 제선봉행
自淨其意 자정기의
是諸佛敎 시제불교

어떤 악도 짓지말고
선한 일은 모두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뜻 깨끗이 하면
그것이 모두 부처님 가르침이다

佛爲尊貴불위존귀
斷漏無婬단루무음
諸釋中雄제석중웅
壹群從心일군종심

부처님은 존귀하신분
번뇌 끊고 음심 없으니
석가족의 영웅이시라
온 무리가 그 마음 따르네

快哉福報 쾌재복보
所願皆成 소원개성
敬於上寂 민어상적
自致泥洹 자치니원

쾌재로다 복의 과보여

만일 사람들이 부처님과 그 법과
성스런 무리에 돌아가 의지하면
고집멸도 사성제 알게되어
반드시 바른 지혜 보게되리

生死極苦 생사극고
從諦得度 종제득도
度世八道 도세팔도
斯除衆苦 사제중고

생사는 지극히 괴롭지만
진리따르면 건널 수 있나니
세상 제도하는 팔정도라면
온갖 괴로움 모두 없으리

自歸三尊 자귀삼존
最吉最上 최길최상
唯獨有是 유독유시
度一切苦 도일체고

거룩한 삼존에 귀의하면
이것이 가장 길하고 가장 으뜸이라
오로지 이법만이 홀로 있어서
일체의 고통에서 건져준다

士如中正 사여중정
志道不堅 지도불간
利哉斯人 이재사인
自歸佛者 자귀불자

사람이 만일 중도의 바른 길에
뜻을 두어 인색치 않으면
이로워라 바로 그사람일세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한 이로세

明人難値 명인난치
亦不比有 역불비유
其所生處 기소생처
族親蒙慶 족친몽경

이 눈밝은이 만나기 어렵고
또한 그는 남 비길 바 아니니
그가 태어나 사는 곳 어디서나
온 겨레 큰 경사 입게된다

諸佛興快 제불흥쾌
說經道快 설경도쾌
衆聚和快 중취화쾌
和則常安 화즉상안

부처님 나심에 흥이 솟고
법을 설하시니 즐겁도다
온 무리 함께 유쾌하나니
그 속에 어우르면 언제나 편안하다

龍眼

"사람들이 부처님과 그법 의지하면 고집멸도 알게되어 지혜 보게되리"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네
위없는 적멸에 재빨리 들어
스스로 열반을 이루셨네

或多自歸 혹다자귀
山川樹神 산천수신
廟立圖像 묘입도상
祭祀求福 제사구복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산천이나 나무 신에 귀의하고
묘당 세워 화상 그려놓고
거기에 제사하며 복을 구하네

自歸如是 자귀여시
非吉非上 비길비상
彼不能來 피불능래
度我衆苦 도아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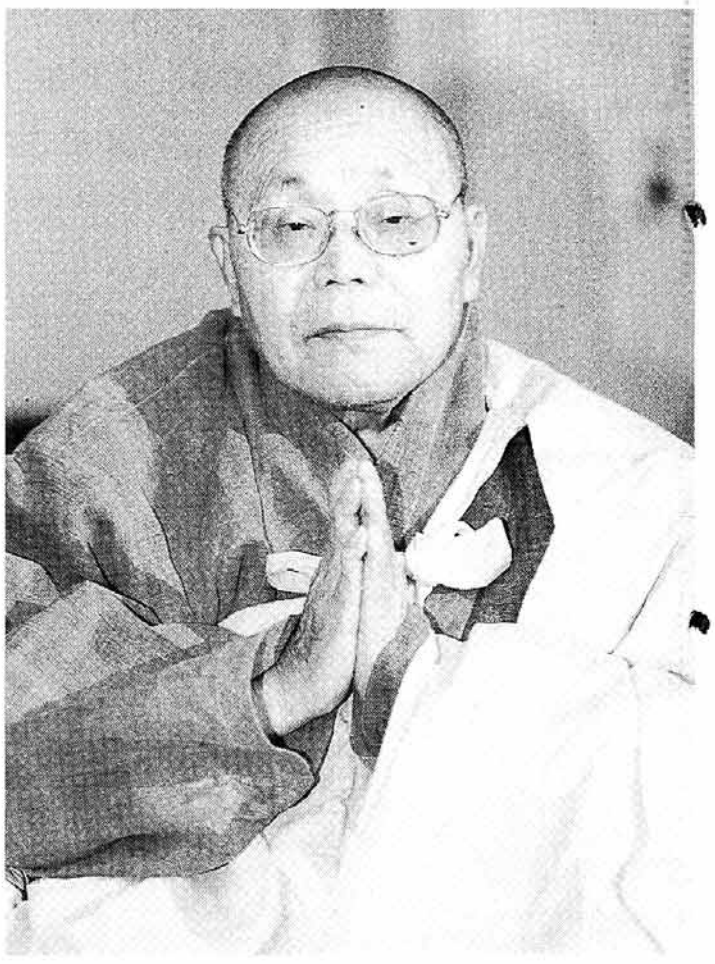
이와같은 귀의란
길하지도 옳지도 않아서
그런 짓은 모두 돌이킬 수 없어
온갖 괴로움 벗겨주지 못하네

如有自歸 여유자귀
佛法聖衆 불법성중
道德四諦 도덕사체
必見正慧 필견정혜

큰스님 수행한담

"남이 하기 싫은 일

묘련스님 〈묘현사 주석〉



약력
- 1924년 장성 生
- 1946년 서울 안양암에서 출가후 해인사서 효봉스님 문하에서 공부
- 강원선방을 다니며 납자의 길을 걷다가 묘현사 창건
- 1일1식을 철저히 지키며 출가 후 양말을 안 식는 고행으로 일관하며 〈법화경〉 공부에 매진

부처님께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일체중생을 남김없이 모두 당신과 똑같이 성불시키는데 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법 중생을 위해 설하신 최고 최상의 요의경(了義經)이며, 진실한 대승(大乘) 일승원교(一乘圓敎)인 〈법화경〉 방편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본래 세운 서원은(我本立誓願)
일체 중생이 나와 같이 평등해져서(欲令一切衆) 다름이 없게 하려 함이라(如我等無異)
네가 옛적에 소원한 바와 같이(如我昔所願) 이제 이미 만족하였으니(今者已滿足)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化一切衆生)
모두 불도에 들게 하였노라(皆令入佛道)

나는 1924년 음력 2월 초6일 전남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일명 쇠꼬리)에서 5형제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일제 강점기로 그들의 폭압정치와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모두가 살기 어려운 때였지요.

유년기를 고향에서 보낸 나는 부모님이 상경하시는 바람에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초등학교 교육이 필요한 때 였으나, 집안 형편과 반일감정이 강한 부친의 영향으로 계산국민학교(나중에는 보성국교도 바뀜) 3년을 마치고 중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학구열이 강했던 나는 조선총독부 도서관(국립도서관)을 알게 되어 그곳에서 여러가지 책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에 흥미를 느끼기도 하고 음양술서(陰陽術書)도 탐독하였으며, 나아가 도교 유교 불교 등에 관련된 책들을 열람하였습니다. 스무살도 안되는 나이에 철학 과학서적 등 어렵고 좋은 책들만 골라 보니까 하루는 열람과의 책을 내주는 분이 나를 선생님으로 부르더군요. 그리던 어느날 해동역경원에서 김적음(金寂音)스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생전 처음 〈신수대장경목록〉과 〈도상부(圖像部)〉를 열람하였고 〈기도경(祈禱經)〉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불법에 귀의하게 된 것은 크나 큰 사건을 겪고 난 뒤였어요. 1945년, 그러니까 36년이라는 긴 세월에 억눌렸던 우리 민족의 통한이 해방의 기쁨으로 다가 온 그 해 여름이었습니다. 스물 두 살의 젊은 나이에 맞이한 만세의 물결, 그리고 내 생의 좌표를 바꾼 일이 그 해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해 무더위가 극심하던 8월 9일 나는 대동강 근처 추을리에 주재하고 있는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광양 조병창(造兵廠)으로 징용가서 그야말로 뼈빠지게 일하고 인간대접도 못받으며 살던 나는 그날 사상범이란 죄목을 달고 헌병대에 구속된 것입니다. 단군성조의 역사와 백범 김구선생의 일대기, 도산 안창호선생의 애족관과 단재 신채호선생의 민족사관 등 이런 책을 보고 우리나라 역사관과 민족의식을 다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 것이 이유가 되었지요.

현병대에서는 현병들이 다짜고짜 몸을 옭아매고 독립군과 내통한다는 혐의를 씌워 고문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게서 기대하던 대답이 도저히 나오지 않자 나를 감방에 쳐 넣었어요. 희멍으로 얼룩진 육신, 밑도 끝도 없이 감방에 갇혀 버린 현실에 망연자실 하였습니다. 그 망연함속에서 나는 생사문제를 뼈저리게

"자유와 해탈을 갈망하면서 왜 자기의지대로 살지못하나" 의문 풀기위해 부처님께 귀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유와 해탈을 갈망하는 인간은 왜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구속되어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자유로운 육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때처럼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허망함과 생명의 근원을 생각하다가 '살아서 나가야 한다'는 충동이 느껴졌어요. 살아서 이곳을 나가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부를 해야 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 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세음보살'을 염하기 시작했어요. 천 개의 눈과 손으로 고난에 처한 중생을 도와주시는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염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경전 말씀에 확신이 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날 역시 관세음보살을 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곧 풀려날 것이니 걱정마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분명 꿈이었으되 꿈 같지 않은 체험을 한 후 나는 일제의 '무조건 항복'이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실감했습니다.

이후 나는 감방에서 세웠던 서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종교인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도 만나고 이런 저런 도서도 구해 읽었지만 명쾌한 결론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감방에 구속된 육신을 구해 준 관세음보살님의 영상이 계속 떠올라 23세에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46년 12월 8일이었는데, 서울 동대문 창신동에 있는 안양암 이태준(李泰俊)스님께서 은사이십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생사의 문제를 푸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요, 대장부로서 태어난 보람을 다하는 날일 것이란 은사스님의 말씀에 의지해 행자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안양암에서 열리는 법회는 물론 개운사 등 서울에서 열리는 법회를 찾아 다니며 큰스님들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강산 유점사에도 들러 당시 명성이 높던 화응(華應)스님의 법문을 듣기도 했고 선방에서 참선에 몰두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법화경〉을 은연중에 만나게 되었고 소백두타(小白頭陀) 안진호(安震湖)스님이 지은 토(吐) 달린 〈법화경〉을 수지독송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불교학자인 김

주간불교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인터뷰

건강식품 3종 출시
시연스님, '원기대보탕' 등



◇대구여래한방병원장 시연스님

대구 여래한방병원 원장이며 최근 건강식품 '참로화정'을 특허로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연스님이 이번에 또 다른 건강식품 3종류를 상품화시켜 시판하고 있다.

이번에 시판하는 건강식품은 '원기대보탕'과 '보혈청신탕', '한방식초'.

스님은 "'원기대보탕'은 중국 고대 신선도의 수행자들이, 원기를 도우기 위해 먹었던 것으로, 계피 갈근 구기자 대추 등 30여가지 한약재를 써서 만든다"면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방식초'에 대해서 스님은 "검은 쌀밥에 농주(膿酒)를 붓고 상황버섯 검정깨 감 누룸껍질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것"이라면서 "정력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약을 복용하면 대변색이 누렇게 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혈청신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혈압으로 인한 질병이나 신경통 손발저림 등에 효과가 있지요."

스님은 이번에 개발 판매하는 3종의 건강식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건강식품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한방병원 설립에 쓸 계획이라고 한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들어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신상품·신경영 화제

원기대보탕(元氣大補湯)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신선도(神仙道)의 수행자들이 원기(元氣)를 도우기 위해서 30여가지의 한약재를 써서 만든 「원기대보탕」은 몸의 원기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있다 . 이번에 시연스님이 비전된 명약의 처방을 얻어 약을 만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일이다.

내용량 : 60봉지(2個月分)
용 법 : 1일1봉지(아침식후30분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한방식초 (韓方食醋)

검은쌀(黑米)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황 버섯, 검정깨…등 40여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名門大家)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다. 약을 복용하면 누른 대변이 나오는 것이 치료효과를 확인 시켜주는 현상이다.

내용량 : 1.8ℓ (약0.6되)
음용법 : 1일2스푼(공복시 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보혈청신탕(補血淸神湯)

우리나라에서 이름난성씨의 종가에서 대대로 비전된 명약인 「보혈청신탕」은 보혈강장(補血强壯)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맑게하여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내용량 : 4.2ℓ (약2되)
음용법 : 1일 1봉지복용(공복시복용)

▣ 가 격 : 30만원 (2개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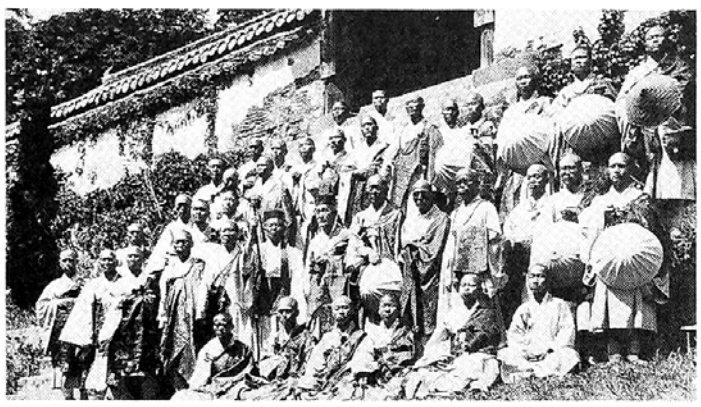
- 특이한 자연향료 냄새와 엄선된 우리농산물(약초)로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 시험준비생, 참선수행자, 노약자, 건강한 사람도 꼭 필요한 명약입니다.

▣ 입금구좌 : 우체국 704148-0019991
卍 여래한방병원
▣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큰스님 수행한담

내게는 공부가 됩니다"

믿음의 공덕 회향해야 합니다
세계평화위해 또 이웃위해
모두 한마음되면 불국토



◇ 1948년 해인총림 대중스님들이 장경각 앞에서 하안거 기념촬영을 했다. 주장자를 든 인곡스님(둘째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효봉스님, 왼쪽이 구산스님. 묘련스님은 구산스님 아래에 앉아 있다.

"공부란 한 곳에서 눈이 열리면 그 자리를 통해 백을 알수 있어요"

포광(金包光)스님을 만나 능엄주에 대한 질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한 때 〈일연성인유문집(日蓮聖人遺文集)〉을 탐독하고 일연스님의 〈법화경〉 광신유포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으나, 일본의 법화경관(法華經觀)이 시방법계 중생의 구원보다는 너무나 자기 나라에 편중하는 사상임을 깨닫고 조사(祖師)를 넘어선 석가세존의 근본불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갓 머리 깎은 풋나기 시절, 이곳저곳 몸과 마음을 함께 짊어지고 떠돌다가 환경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던 해인사 강원에 연이 닿았습니다. 당시는 해방후 절집 살이가 정돈되지 못한 때였는데, 해인사는 비구와 대처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대처승이 법문을 하면 비구, 특히 선방 수좌들이 법상을 들어내며 난리를 치는 광경까지 연출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법당을 반으로 나눠서 쓰는 웃지 못할 사태로 까지 발전했으니 말이지요. 어쨌거나 해인사 강원에서 비로소 공부하는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부터 하루 한끼만 먹는 습관도 들이게 되었고, 백여명이 넘는 대중생활도 잘 해내었습니다. 군불 때는 소임을 한 철 맡았다가 다음 말을 사람이 나서지 않아 석달을 더 한 적도 있었는데, '남하기 싫은 일이 내게는 공부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조실로 계시던 효봉스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여러가지 불법에 대한 의문을 스님을 통해 해결했고, 당신의 사랑을 흠뻑 받았습니다. 스님은 '나를 은사로 알고 살라'는 고마운 배려까지 하셨고, 스님의 문하로 입실(入室)하라는 말씀도 여러차례 하셨지요. 어린 나이에 나는 안양암의 은사를 두고 다시 은사를 정하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그저 스님 가까이서 많은 가르침을 받는 것 만으로도 즐겁습니다"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당시 해인사에는 청담스님 인곡스님 구산스님 등이 주석하고 계셨는데, 인곡스님은 근대의 도인으로 자비보살, 선지식으로 사부대중에게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스님들이 재가 끝나고 헌식(獻食)을 하면 날짐승들이 먹으러 왔다가 혼비백산하여 부리나케 날아가 버리는데, 인곡스님만은 날아가던 뭇새들이 오히려 스님을 반가워 했어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하고 참새 까치 까마귀 등이 스님의 머리 어깨 등 온몸에 달라붙는,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연출하셨지요.

또 나와 같이 강원에 든 한 스님이 있었는데, 별명이 '우둔 스님'이었어요. 몸동작도 느리고 도대체 뭘 기억하는 법이 없었어요. 〈초발심자경문〉을 배우는데 도반들을 따라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3년을 두고 자경문만 배워야 했지요.

한 번은 화엄반으로 오른 도반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마침 우둔스님도 거기 있었어요.

"어이, 우둔스님. 그래, 자네는 3년간이나 〈초발심자경문〉을 배웠으니 어디 우리 앞에서 배운 걸 좀 말해 보게나."

누군가 '우둔스님'에게 놀림조로 그렇게 말하자, 우둔스님은 주저하다가 멋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둔스님은 더러는 조용하고 더러는 힘있게 강의를 해 나갔는데 끝이 없었어요. 한번 놀려보자던 대중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그 스님은 '초심(初心)'이란 두 글자를 푸는데 한 마디 어긋남이 없이 꼬박 한 시간을 강론하는 게 아닙니까. 3년간 우둔하게 들여다 본 〈초발심자경문〉에서 문리(文理)가 터져 버린 겁니다. 대저 공부란 한 곳에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면 그 자리를 통해 열을 알고 백을 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인사에서 수도를 한 뒤에는 산 좋고 물 좋은 곳 발길 닿는대로 만행길에 올랐습니다. 이곳 저곳을 거치는 도중 남원 실상사와 무주암 등에서 〈법화삼부경〉을 독송하고, 지리산 법계사에서 법화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젊은 혈기에 목숨을 걸고 수행하다 보니 나름의 견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상묘법(實相妙法)이 본자유지(本自有之)하니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오색심(吾色心)에 본래구족청정(本來俱足淸淨)하여

불생불멸불구부정(不生不滅不垢不淨)하며 부증불감대원만(不增不減大圓滿)하니

구원실성(久遠實成) 자각본화불(自覺本化佛)이로다

이때에 무수한 불보살의 현영(現影)과 오묘한 체험을 얻게 되어, 드디어 법화만다라(法華曼陀羅)를 시현(示現)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나무평등대혜 실상묘법연화경'(南無平等大慧 實相妙法蓮華經)의 창념(唱念) 만다라 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독송하던 〈법화삼부경〉과 진·수(陳·隨)나라 국사인 천태지자(天台智者) 대사의 법화삼대부(法華三大部)인 문구(文句) 현의(玄義) 마하지관(摩訶止觀)을 불철주야 독송하고 교리를 연구하게 되었지요. 이로부터 법화만다라 창념과 〈법화삼부경〉독송을 가혹하리 만치 맹열한 기도로 일관하게 되었습니다. 〈법화삼부경〉은 중·장년기를 통해 5천여질은 독송한 것 같습니다.

해인사를 6. 25직전에 떠나온 나는 고향 장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장성군 월평리 묘정사에 임시 도량을 열고, 이곳에서 〈법화삼부경〉을 매일 모시고 1일1식 장좌불와(長坐不臥)의 난행(難行) 고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도 가상하리만치 무서운 공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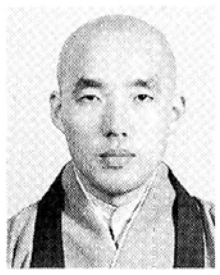
공부중에도 나라와 세계의 평화, 일불국토(一佛國土)에 관한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원자탄의 무력화와 남북무혈 평화통일, 세계사상의 합일화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벽한 이래 일어난 각종 전쟁, 특히 6. 25 동족살상에 대해 피아를 막론하고 희생된 영가를 위해 〈법화삼부경〉 독송의 공덕을 법계로 회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으뜸으로 만들어 그동안의 피압박에서 벗어나 세계일등국을 만들려는 나름의 노력이었지요.

묘정사에서 장성읍 서삼면 취암리 백련동 묘현사로 수행처를 옮긴 후에도 법화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인 것처럼 똑같은 불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아본립서원 욕령일체중 여아등무이(我本立誓願 欲令一切衆 汝我等無異)"라는 〈법화경〉방편품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국삼보와 세계평화 일불국토'는 자나깨나 일관된 염원이었습니다. 시방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한 식구가 되어 이구동성으로 '실상묘법연화경'을 봉창하게 되는 날 사바세계는 육종진동(六種震動)하고 법화천지만일색(法華天地滿一色)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4와 경전 32

반야이취경



혜능
파계사 영산율원

대락의 세계 절대긍정 논리로 전개
밀교교리 응축…좌도적 해석 편견

〈반야이취경〉은 〈이취경〉이라고도 부르는데 반야부계통의 대표적인 밀교경전이다. 한역으로는 여러 가지 이역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공 삼장이 번역한 〈대락금강불공진실삼마야경 반야바라밀다이취품〉이다.

내가 〈이취경〉을 만난 것은 학부 때였다. 어느 밀교학개론서에서 〈이취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당시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좌도밀교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해석하고 있었다. 분명히 근본취지는 이런 것이 아닐 것이다는 막연한 생각이 밀교학에 관심을 갖게 했고, 급기야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일본 고야산 진언밀교 총본산에 가서 밀교학을 수학하게 되었다. 만다라의 세계는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접근할수 가 없다. 오직 엄격한 수행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고 다가설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이다. 그런데 고야산에서 나를 만다라의 세계로 인도하고 그 비밀의 곳집을 열어 준것이 바로 〈이취경〉이었다. 선사들이 남겨 놓은 명쾌한 주석과 훌륭한 아사리(스승)의 안내로 〈이취경〉에는 밀교교리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고, 또한 이 점이 밀교의 이상세계에 도달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역시 〈이취경〉의 좌도적인 해석은 지말적인 편해이고 사견이며 오히려 〈이취경〉은 존재의 참모습과 참가치를 찾아 거기에 살도록 하는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명의 찬가임을 깨닫게 되었다. 고야산에서 수학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위대한 생명의 찬가를 노래 부르기 위해서는 비구의 생명인 계율에 더욱 철저한 기초와 확립이 있어야겠다 싶어 해인사 율원 과정을 마쳤다. 그후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율학연찬을 계속하면서 〈이취경강해〉본을 번역하였다. 앞으로도 계율의 입장에서 〈이취경〉을 연구하고 싶다.

흔히 밀교에서는 아예 계율이 없거나 전혀 무시되고, 나아가 좌도적인 모습들이 전부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밀교에서도 계율은 생명과 같은 것이니 흔히 밀교 계율의 특징을 삼마야계(三摩耶戒)라고 한다. 삼마야계란 보리심계(菩提心戒)라고도 하는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즉 대지(大智)와 대비(大悲)와 삼마지(三摩地)의 세가지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보리심을 일으켜 이것을 원리로 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발심하여 먼길을 가는 데에 발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불도에 나아가는 데에도 계가 없으면 어찌 도달할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현교와 밀교의 두가지 계를 굳게 수지하여 끝까지 청정히 하여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듯이 진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수법(修法)은 계율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밀교의 수법은 닦는 이의 심신이 청정하지 않으면 결코 최고의 실지(悉地)를 성취할 수 없다. 진리의 세계를 체험하고 들어가는 데에 계율을 지키는 생활은 가장 기본이고 필수 요건이 된다는 것은 밀교든 선불교든 정토든 어디에도 예외가 없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취경〉의 세계는 추상과 구상, 마음과 물질, 타(他)와 자(自), 자연과 인간 등등 일체의 이원적인 대립과 구별을 '대락(大樂)과 불공(不空)'의 체득으로 극복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반야사상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제3기의 반야사상인 '유공불이(有空不二)=불공(不空)'의 세계에 해당된다. 7~8세기에 성립한 〈이취경〉에는 대락과 불공의 세계를 일반 반야경전과 같이 공의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밀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가치의 실현을 꾀하는 절대긍정의 논리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고, 거기에서 얻는 것은 결국 '본래 청정한 인간성에의 확신'이다. 또 한가지 특징은 17단의 각단 속에 제각기 만다라가 있는데, 명상속에서 이들 만다라를 관상해 나간다. 그들 만다라를 관함에 따라 〈이취경〉의 각단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중생계와 부처의 세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불가사의한 경계가 전개되어 있고, 훌륭한 밀교적 세계의 신비가 무한히 감추어져 있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게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토요일
10:20-11:10
15:30-16:20
19:10-20:00
매주 일요일
20:20-21:1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게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펜스님 번역 ②

"죄 없애는 방법을 아십니까"

참회는 탐진치 '해독제'…"늘 참회하라"
"훌륭한 스승 찾아야 깨우침 늘게 된다"

수행할때 취해야 하는 행동

공부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별하여 행동하고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의 시간은 하루 일과의 반복이다. 하루의 일과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에 우리는 삼업(三業)을 짓는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면 하루 일과가 의미있고, 하루 일과가 의미있으면 한달이 의미있어진다. 결국 수명이 다할 때까지의 시간이 의미있게 되는 것이다.

수행전의 준비: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행장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부처님 또는 위대한 스승을 자신의 수행장소로 초대하였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여 수행장소를 깨끗이 하면 청소부가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것과 같다.

일체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나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수행장소를 깨끗이 하면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청소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덕은 먼저 자신의 마음이 청정해지며, 다른 사람의 마음도 청정하게 된다. 또 선신(善神)들이 기뻐하게 되며 죽어서 정토에 태어난다.

"먼지를 없애게 되면 냄새도 없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칠 수 없어 비구들의 신발을 닦아 주다가 깨우친 우둔한 탐홍빠의 이야기는 수행장소를 청소하다가 마음의 먼지를 없앤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수행할 때의 행동: 공양을 올릴 때, 출가한 이들은 계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얻은 것들로 부처님께 공양하면 공덕은 커녕 악업만 불어나게 된다. 또 속가의 사람들은 나쁜 일로 얻은 돈 등으로 공양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이들이 자신을 대단하다거나 착하게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양해서는 안된다. 자신을 위하는 생각, 보여주기 위해 거짓으로 정성을 보이는 공양을 하면 공덕을 얻기가 매우 힘들다.

자기만 잘살고 다음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공양해서는 안되며 일체중생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자비심으로 공양해야 한다.

공양을 올릴 때는 모양이 좋게 아름답게 차려야 하며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 시키면 공덕이 그들에게 가게 된다.

가난한 사람과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양물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음만 있으면 아름다운 꽃, 나무열매, 시원한 물 등을 정성껏 올려도 된다.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만들어 올려도 된다. 귀중한 것이 많이 있으면서 아깝게 여겨 올리지 않으면 나중에 아귀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게 된다. 출가자들은 다른 공양보다는 수행 잘하고 계를 잘 지키는 공양을 올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내생에 공양을 올릴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된다. 아주 작은 하나의 향이라도 올리면 그만큼의 공덕이 있다.

명상을 잘하기 위해 쌓는 7가지 공덕: 수행할때는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요즘 우리는 사람들에게 "건강하십니까"라고 물어보지만 옛날에 아띠사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동기에 따라 공덕을 얻는 차이가 많이 난다.

명상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삼보에 귀의하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면 고생없이 빨리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다. 명상을 잘하기 위하여 공덕을 쌓는 방법에는 7가지가 있다.

첫째, 예배하는 것이다. 시작도 없는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죄를 참회하고 아주 작은 먼지 위에도 부처님이 계시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행하면 공덕이 그만큼 생겨난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절을 많이 하거나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예배는 깨닫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야만 한다.

둘째,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아깝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먹기 전에 공양을 올려야 한다. 공양중에서 최고의 공양은 계율을 잘 지키며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참회하는 것이다.

참회를 하게 되면 큰 죄를 없앨 수가 있다. 앙굴리말라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도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깊이 참회하였기 때문이다. 참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죄를 겁내지도 않는 것은 카르마에 대하여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카르마를 믿게 되면 조그만 죄도 짓기를 겁내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참회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몸과 입과 마음에 의하여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지은 죄를 겁내고만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참회하여 죄를 없애야 한다.

매일 저녁에 하루에 지은 죄를 생각하며 참회를 해야 한다. 이번 생의 고통들은 전생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다음 생의 고통들은 이번 생에서 죄를 범해서 생겨나므로 매일매일 참회를 하면 고통도 없어지며 깨우칠 수도 있다. 병이 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굿을 하는 등의 옳지못한 기도를 하면 과보를 없애기는 힘들다. 혹 없앤다 해도 그 과보는 다음 생의 언젠가는 받게 된다.

죄를 얼마나 없앨 수 있는가는 참회의 동기와 행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 가져야 한다. 참회를 하려면 죄라는 독을 없애는 '해독제'가 필요하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죄의 성질에 대하여 알게 되는 힘,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행동의 힘, 전에 지은 죄를 참회하여 실천으로 죄를 없애는 방법이다.

네번째, 수희(隨喜: 선행을 기뻐하는 마음)를 하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왕이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많이 드렸다. 지나가던 거지가 그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거지의 그런 마음이 공양을 올린 왕의 공덕보다 더 많은 공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고생없이도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수희이다. 요즘은 기도·명상·수행·공양하는 이들이 많은데 항상 수희와 함께 해야 한다. 부처님과 보살, 스승의 일생을 생각하며 수희를 해야 한다.

예배하면 자만심 없어진다
공양올리면 아까워하는 마음 없어진다
참회하면 탐·진·치 없어진다
수희 행하면 질투가 없어진다
권청하면 바른 가르침 닫는다
불보살 오래살기 원하면 죄 줄어든다
기원하면 화냄이 없어진다

다섯째, 권청(가르침을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후 첫번째로 다섯 비구의 권청으로 사성제에 대해 설법하셨다.

여섯째, 부처님들이나 제보살들에게 일체중생을 위해 열반에 들지 말고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러 주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일곱째, 기원하는 것이다.

동기와 기원하는 것은 수행의 처음과 끝의 두가지이다. 기원할 때는 자신의 공덕에 의지하여야 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해야 하며 일체중생을 위하여 기원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기원하신 힘으로 지금 우리는 편안히 수행할 수 있다. 덕행은 말(馬)과 같고 기원은 말고삐와 같다. 덕행이 있으면서도 기원하지 않으면 말을 갖고서도 고삐가 없어 타지 못하는 것처럼 공덕이 줄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일곱가지를 행하면 이득이 생긴다. 예배를 하게 되면 자만심이 없어진다. 공양을 올리면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참회를 하면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다. 수희를 행하면 질투가 없어지고, 권청을 하면 바른 가르침에 대하여 짓는 죄를 없애게 된다. 불보살들께 오래살기를 원하게 되면 부처님들이나 스승에게 지은 죄가 없어진다. 기원을 하게 되면 화냄이 없어지게 된다.



◇작은 향 하나라도 정성껏 공양하면 그만큼의 공덕이 있다. 공양을 올릴 때는 일체중생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자비심으로 해야 한다.

스승을 찾는 방법

어떤 스승을 찾아야 하는가: 인간의 몸을 배와 같이 생각하면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배와 같은 인간의 몸도 필요하지만 노련한 선장과 같은 스승이 필요하다. 모르는 곳에 갈때 안내자가 필요하듯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스승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바른 스승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승을 신뢰하여 생기는 이득은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모든 방법을 보여주는 스승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 스승과 열심히 하는 제자가 만나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다.

스승을 잘 모시게 되면 깨우침이 늘게 된다. 스승은 자신을 항상 가르쳐 주시며 다음 생까지 자신을 깨우쳐주는 뿌리와 같다. 마음이 착하다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가르침을 다 보여줄 수 없다. 스승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자가 아무리 열리고 열심히 해도 염불이나 명상 등을 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어 깨달음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향을 넣어두는 곳에 나무를 같이 넣어두면 나중에 그 나무에서도 향냄새가 나는 것과 같이 훌륭한 스승을 찾게 되면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스승에게 어떻게 배워야 하나: 쉽게 깨우치거나 어렵게 깨우치는 것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스승을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깊으면 스승의 결점을 보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결점을 못보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에 독을 먹고 음식을 먹고 약을 먹었을때 의사들이 독을 해독시켜 주고,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며, 약으로 오래 살게 해주면 그 의사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삼악도에 태어나게 되는 악업을 참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원인으로 바꿔주는 스승들을 어떻게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기도할 때는 깨달음의 뿌리인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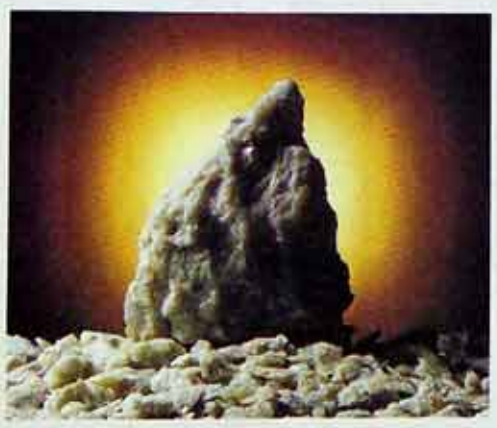
쉴 때 취해야 하는 행동

수행을 하는 시간보다 쉴때가 더 중요하다. 신구의(身口意) 세개의 문을 잘 지키면 나쁜 죄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자신의 입을 살피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살피라." 아띠샤가 말씀하셨다.

다닐때도 인과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면 인과를 깨우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음을 자세히 살피면서 다니면 무엇을 보더라도 무상이나 윤회 세계의 의미 없음을 알게 된다. 또 보이는 것 모두가 자신을 교육시켜 주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악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生光石은 자연입니다.
生光石은 원석 그대로 입니다.
生光石은 자연이 베푼
마지막 축복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연에서 살지 못하고
독성을 내뿜는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소 젖보다 어머니 젖이 좋듯
사람에게는 자연의 정기가 좋습니다.
生光石은 강원도 영월에서 채광된
가공되지 않은 신비의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자연의 파장 生光石, -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켜줍니다.

● 헬스톤 100

100% 生光石으로 만든
⊙ 헬스톤 100으로 시공된 집은

건강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드립니다.
·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 체질개선
· 미용효과 · 전자파로부터 보호

환경 상큼한 실내공기와 최적한 생활 환경을 드립니다.
· 시멘트 독성제거 · 실내 공기정화
· 결로 방지 · 곰팡이 방지

위생 철저한 생활위생을 보장합니다.
· 곰팡이 서식방지 · 냉기 방지
· 해충 퇴치 · 피부질환 방지및 치료

경비 헬스톤 100의 시공, 경비를 되돌려 드립니다.
· 고온의 체감온도 · 우수한 열전도율
· 축열 효과 · 난방비 절약

● 생광석 108염주

◈ 생광석 108염주로 부처님 명호를 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1.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기도 원을 부처님께서 살피어 주실것이며
2.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송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을 것이며,
3. 눕 지니고 다니시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실 것이며
4. 내 마음의 심성을 밝혀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곳이 곧 부처님 계신 법당이며
5. 생활속에서 작은 복을 짓는 것이 부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생광석 108염주를 늘 몸에 지니시면,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지십니다.

● 베게(학생, 사무직근로자, 노인, 예현가, 예주가)

1.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하다.
2. 뇌의 혈액순환과, 대사작용을 촉진시켜 잠을 푹 잘 수 있다.
3. 불쾌한 머리 냄새를 없게 한다.
4. 상처가 잘 아물고 머리결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한다.
5. 고개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 방석(한곳에 오래 앉아 있는 분, 주부, 자가운전자)

1. 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을 돕는다.
2. 혈심기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불쾌한 냄새등을 없이 한다.
4. 복통이나 불편한 부위에 올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놓고 앉으면 차내의 담배냄새등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차내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하며, 장시간 운전하여도 피로감이 거의 없다.
6. 여름에 오랫동안 한곳에 앉아 근무를 해도 히프의 땀띠나 사타구니의 축축함이 없고 쾌적하다.
7. 장기간 사용하면 치질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8. 방석(특)을 3개 연결하면 건강매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외에 냄새제거, 수족관 환경유지, 피부미용, 행운의 건강석, 난초·화초재배용 生光石이 있습니다.

● 韓國 生光石 허리벨트

한국 생광석 허리 벨트는, 사람의 세포 운동 파장인, 9.36 마이크론의 세포 활성 에너지를, 실 생활 온도에서, 효과적인 방사를 하는, 생광석 제품으로, 허리 부위의 세포를 활성화 하고,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허리결림, 허리 통증등과 생리통 등에 큰 도움을 주며, 허리 보호에도 좋습니다.

허리를 미리 미리 보호하십시오.
허리가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께 권합니다 ◈
1.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 장애에 의한, 허리 결림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
2.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
3. 앉거나, 선 채로 장시간을 지내야 하는 분
4. 출산 후의 여성, 생리통이 있는 여성
5. 허리를 보호해야 할, 50대 이상의 남·여
6. 허리가 비만하고 허리가 유연하지 못한 분
7. 허리를 다치기 쉬운 스포츠 맨, 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8.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가정주부 또는 선생님
9. 허리를 고정한 채로 오래 있어야 하는 운전 기사, 남시광 등등.
10.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허리, 허리는 나를 사람답게 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대들보입니다.

KSC 한국생광석주식회사

TEL 서울: (02)737-0695
대구: (053)422-6661~2
창원·마산: (0551)63-7296
진주: (0591)53-5494

사람에게 '고정타입'은 없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분별심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9〉



그림 · 이준석

물과 파도처럼 환경따라 변하니 사람모습 나누지 말라 현대사회 제반문제 분별심서 비롯

나는 오래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교양이 있다고 생각되는 많은 인사들과 점점 친해짐에 따라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분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어떤 '타입'으로 분류해 보려는 것이다. 나도 이전에는 보다 바람직한 인간타입의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분류되기를 좋아하였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은 오래 전 이야기이다.

오늘날 나는 인간에게 어떤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 나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좋아 한다. 또한 인간을 어린시절 젊은시절 어른시절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 나는 이와 같은 분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을 분류한다는 것은 이런 정도면 충분하며 이 이상 인간을 제멋대로 분류해 본다는 것은 그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학자타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

학자라는 개념 자체에 어떤 시원치 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정통하나 다른 분야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무식하다는 것을 나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키가 크고 어깨가 쩍 벌어져 있어도 나를 '체육가타입'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다. 그 말 자체는 완력은 강하지만 머리는 별로 명석하지 않다는 뜻을 포함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다정한 타입'의 인간으로 생각되기도 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아 '다정한 타입'이라는 목록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직업적 정열가로서 생각되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다정하여도 나를 독과 같이 싫어하는 인간이나 동물들이 수 없이 많다. 나는 '다정한 타입'의 인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멋쟁이 타입'이 되기도 원하지 않는다. '멋쟁이 타입'의 사람이 되려면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하고 넥타이를 옷에 맞추어서 골라야 하며 심지어는 걸음걸이마저 부자연스럽게 꾸며서 걸어야 하는 등의 수많은 제한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쾌활한 타입'이 되기도 싫다. '쾌활한 타입'의 인간이 되려면 나의 타고난 성품 이상으로 일부러 웃어야만 하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친절한 타입'이 되기조차 원하지 않는다. '친절한 타입'의 인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성품이나 감정을 누르고 감각 없는 인간이 되어서 남을 해치지 않는 잔꾀를 부려야만 한다는 것이 강요되는 수가 있다.

나를 '교육학 교수'라고 부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어떤 타입'하면 벌써 냄새가 난다. 교육학 교수인들 그들 사이에 각종 다양한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나를 '믿음직한 타입'이라고 부르지 말기를 바란다. '믿음직한 타입'이란 오랜 시일에 걸쳐 지나친 분별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을 뜻한다. 나를 '도량이 넓은 타입'이라고 부르지 말라. 너무나 넓은 그릇에 물을 넣으면 말라 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정확히 분류 되는 데서부터 빠져 나올 것이라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이 생각할 때 사람을 고정관념에 따라 분류하는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은 교육상 얼마나 좋지 못한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을 문제학생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한 인간 전체를 문제인간으로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분별심에 의한 '인간분류' 교육 그르친다 본성 누구나 같아 "동체사상 배우자"

싸움을 잘 하는 학생이라고 하여도 싸움 잘 하는 자체는 문제일지 모르나 그 행동을 제외한 다른 행동에 있어서는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싸움 자체는 문제이지만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다든지, 약자의 편에 선다든지, 용기가 있다든지, 모험심이 강하다든지, 지도력이 있다든지 등은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온순한 학생이라 하여도 의존적이고, 소극적이며, 성취동기가 약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인간을 고정관념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그 인간에 대한 교육을 잘못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다.

고등학교 때 지능은 높았으나 공부는 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 집회에는 빠짐없이 참여하고, 의협심이 강하여 교원자질이 부족한 교사 배척 운동에 앞장서고, 패싸움의 선봉자이며, 많은 이성을 사귀는 등 종래의 교육의 고정관념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 문제학생이었다. 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걸어온 길은 당시의 교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현재 이름이 널리 알려진 원숙한 지도자로 이 나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수 없이 많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청소년 시절 문제학생이 문제학생이 아니고 문제학생 아닌 학생이 문제학생인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다. 〈화엄경(80권 화엄경)〉 권43에 "세간에 집착하지 않으며 제법을 취하지 않으며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며 세상 일에 염착(染着)하지 않으며 경계를 분별하지 않는다"고 말씀 하신 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사회의 제반 문제는 고정관념에 의한 분별심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부자는 사는 집과 드나드는 식당과, 입는 옷과, 장식물은 가난한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분별하며, 학식이 많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들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며, 권력이 많은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며, 개신교 신자는 불교 신자를 싫어하고, 스님은 속인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사회문제가 있다.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이고, 서양사람과 동양사람이 하나이고, 기업주와 노동자가 하나이고, 스님과 속인이 하나이고, 부처와 중생이 하나인 동체사상(同體思想)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두 불이문(不二門)을 지나서 하나의 본성으로 될 때 이 사회에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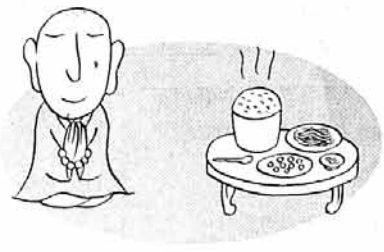
대승기신론에는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이종문(二種門)은 서로 여의지 않는다(不相離故)"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물의 본성은 젖게 하는 습성인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멸하면 파도도 또한 없어진다"라고 말한 구절도 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같은데 주위 환경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분별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을 고정관념에 따라 분류하고 이 분류에 따라 분별심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는 삶이야 말로 불자의 참 모습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규모가 크고 엄숙한 광경을 볼 때 "장엄하다"고 탄복한다. 또 의식이 웅장할 때 "장엄하다"고 한다.

그러나 장엄(莊嚴)이란 불교의 극락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임을 아는 이는 드물다. 장엄이란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국토를 꾸미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의 장엄은 단연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국토이다. 이곳에는 17가지의 장엄이 있다고 한다.

극락정토에는 청정(淸淨)한 공덕(功德)으로 장엄되어 있다. 또 무량(無量)한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본질인 성(性)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다. 극락의 모든 일들은 공덕스러운 것들 뿐 악한 것은 없다. 극락은 묘한 색깔(妙色)로 장엄되어 있다. 극락의 모든 촉감은 좋은 것 뿐이다.

장엄하다

아름다운 것으로 꾸민 극락세계 규모가 크고 엄숙하고 웅장한 모습

극락의 물은 맑고 순탄하며 허공은 아름답다. 극락은 아름답고 꽃다운 비(雨)로 장엄되어 있다. 또한 황홀한 광명(光明)으로 장엄되어 있다. 극락의 소리는 아름답고 오묘하다. 극락의 주인은 아미타불이므로 주인의 공덕이 가득차다. 극락에 사는 가족들은 이미 왕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덕으로 장엄하고 있다. 극락은 나를 위한 땅이면서 남을 위한 땅이다. 그래서 극락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가 가능하다. 극락에는 일체의 고난이 없다. 극락에는 혐오나 질투 같은 것은 없다. 극락에는 원하는 것이 모두 이뤄진다.

이렇게 보면 극락세계의 장엄이 얼마나 '장엄'스러운지 알 수 있다. 장엄한 극락국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극락국토의 장엄도구인 청정한 수행을 해야 한다. 예불하고 염불하며, 극락의 찬란한 광경을 관찰하고 그렇에 얻은 기쁨과 결과를 타인을 위해 회향하는 것이 있어야 극락은 장엄된다.

장엄은 물질적이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계의 완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장엄은 우리가 쌓아가는 선행 그 자체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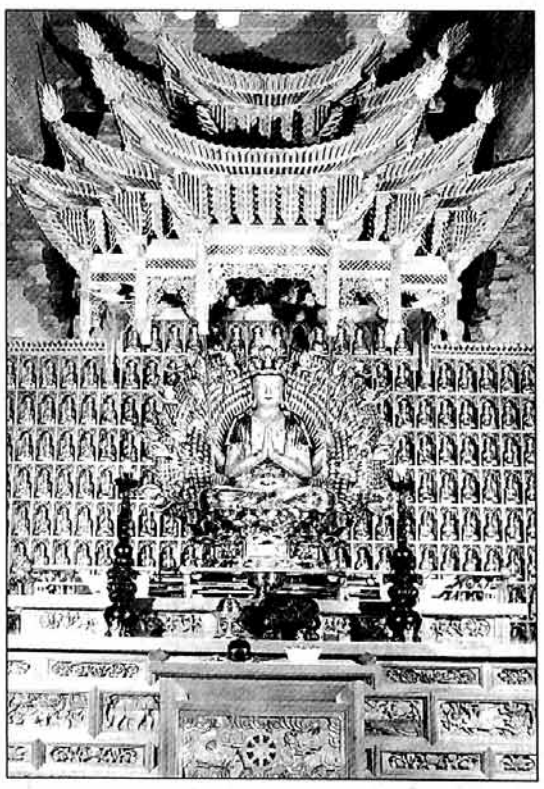
■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 · 로 · 심 · 장 · 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자·정·보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 화 (02) 732-1522(直)
FAX (02) 737-0697

관 건 강 관

◆한 방 암 정 보◆
02)700-6366

◆그린파워녹즙기◆
길동 02)470-3102

◆대 보 생 식 ◆
잠실 183-10 02)427-9162~3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고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처료 불가병.
- 불시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 원 합장
0415)63-0749 / 011)453-8611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허리 디스크 **중풍 착귤 신경통** 오십견·비만
퇴행성·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93)34-1115~6
012)598-1015

관 강 좌 관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011)535-2746
※ 많은 이 용 바랍니다.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 룡 지 사
0391)43-5599

명상 개인지도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선(禪)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氣明緣峅 地水火風
02)897-7731
016)340-4459

신 생 아 작 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출로서기 힘든 시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심서·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직등법 지도

◆생 활 역 학◆
개인지도
- 초보자 쉽게 지도(3개월)
- 철학원 하실 분 꼭 상담바람
※감정비법 있음
02)242-6188
금 륜 정 사
덕 치 합장

관 구인·구직 관

◆수양·공부·기도 모집◆
청 학 사
0595)83-2933

◆ 운전기사 구함 ◆
- 봉고 : 1종보통 면허소지자
0335) 33-7747
용인 동도사 주지 합장

사찰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나이 : 50대
-운전자격 : 1종대형
0351) 41-1152

◆기도객 받습니다◆
심신이 피곤하신 분들·
조용한 산사에서 수양하실 분들
연락바랍니다.
다솔사 부근
0593)854-0262~3

사업에 동참하실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저는 진실하게 살고있는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로서 채산성이 확실하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무역업, 제조업:특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윤추구와 아울러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성하기에는 혼자서는 힘이 부족하여 인간적이고 진실하게 사업에 동참하실 재력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찾아 뵙고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 02)548-8822(09:30~17:00)
호출 : 012)875-4657(주·야)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동 두 천
0351)867-4132

관 불교용품 관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금강경 10폭 병풍 법보시◆
천일기도 원력으로 이룬 금강경 병풍(경면 108작품) 꼭 소장하고 싶으신 인연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02)845-0760

◆보련각서점◆
견지동 02)733-9537

◆예 진 솔◆
견지동 02)736-5160

◆견지불교사◆
불교서적·어린이용품 전문점
견지동 02)739-3032

◆大 福 田◆
佛 敎 用 品
견지동 02)737-0969

◆여 래 사◆
견지동 02)730-6939

◆太成佛敎社◆
불교·단청·개금
견지동 02)732-7375

◆아전전통칠기공방◆
목발우·제기·다기잔·소반·주방생활용품
옻칠공에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인 작품
▶전화 : 494-0520
※△ 망 전화주문 가능

관 불교 미술 관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 교 조 각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佛 心 **여래미술원**
*탱화*개금
정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敎美術院
金魚 李 鎭 春
*불화 조성 전문
13, 15, 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달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중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달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달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달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9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관 사찰안내 관

사찰(포교원)양도함
◇ 위 치 : 서울 마포구 성산2동 200-57 3층 주택가 도로변
◇ 조 건 : ①법당시설비 및 각종부품일체 인수금 1,800만원
② 건물임대 보증금 1,000만원
③건물사용료(월세금)55만원
◇ 구 조 : 법당 약14평(각종 시설완비), 거실(방)2칸, 주방1칸, 화장실및 샤워장 1칸
※ 현재 재적신도수 … 250명
011-742-2955/02)374-5295

사찰안내(토굴)
◇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고성산 밑
◇ 법당 1, 방 2, 거실 2, 주방, 욕실, 기름보일러
◇ 건물등기가 : 매가 2천 5백만원
◆ 불상·탱화 있음
0334)72-9505
0331)255-4315

전국 사찰부지·포교당
양도하실분, 매입 운영하실분
연락주시면 성심연결!
02)486-2343
019)234-0417
신안개발 성 운 합장

사찰·포교원안내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 평 수 : 약 100평
◇ 가 격 : 전세 6,500만원, 월세 65만원 (권리금 1,000만원)
◆ 가격 절충가능
02)445-6188
02)226-5962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구의동 대로변 (동부경찰서 버스정류장)
◇ 평 수 : 약 20평 (3층건물 2층)
◇ 가 격 : 보증금 1,000만원·월45만원
◆ 시설비 : 보신 후 절충
전 화 02)447-8487
휴대폰 017)273-5115

도심 포교당 하실분
◇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부근)
◇ 평 수 : 40평 (옥상사용가)
◇ 가 격 : 2500만원(보증금포함)
◆ 사정상 급매합니다.
02)423-180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영천 고경부근
◇ 평 수 : 임야 1만평중
- 대지 400평, 법당 20평,
- 산신각 3평, 용왕각 4평
- 석불 입상불 (5m) 요사채 40평
◇ 가 격 : 절충가능
◆ 황수탕 약수 유명
011)819-0803
012)483-1798

사찰·포교당 안내
◇ 위 치 : 전남 해남군 옥천면
◇ 평 수 : 임야 - 800평
전 - 112평
답 - 700평
◇ 건 물 : 대웅전 - 10평
산신각 - 3평
용왕각 - 3평
요사채(2동) - 40평
창 고(2동) - 20평
◆ 가격절충 가능
0634)33-9861
062)224-6696
(광주해동불교백화점)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시내
◇ 평 수 : 399평
- 실사용평수 : 700평
- 임법당, 산신각, 칠성단, 용왕각, 범종각
◇ 가 격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 인가에서 100m 떨어진 곳 수목이 울창하고 바다가 한눈에 보임
012)1585-4204

사찰부지 안내
◇사찰부지 : 900평 ◇법 당 : 20평(목조)
◇주지실 : 15평(목조 미완성)
◇요 사 : 40평(조립식 전물)
◇매 가 : 3억
◇위 치 : 칠학산 국립공원과 소재산 국립공원이 만나는 곳으로 천하절경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목포가 장관을 이루고 밝은 제곡물이 경내를 휘어 감돌아 가는곳. 기도도량으로는 최고의 사찰
◇ 보시는 스님들은 절대 실망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 사찰 양도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371-762-0101
011-466-1802 / 012-397-6003
천운개발 한 상 철 합장

전국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사찰및 포교원 명 당 부 지
◇ 위 치 :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악파크호텔 정문에서 2·3분 거리)
02)379-8404, 8425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시내
◇ 평 수 : 399평
- 실사용평수 : 700평
- 임법당, 산신각, 칠성단, 용왕각, 범종각
◇ 가 격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 인가에서 100m 떨어진 곳 수목이 울창하고 바다가 한눈에 보임
012)1585-4204

개 인 토 굴
◇위 치 : 유명산 입구
0356)84-9597
015)205-1506

사찰양도안내
◆위 치 : 인천 송도
◆법 당 : 9평 및 자연석굴, 법당 7평, 30명이상 수용可
◆시 설 : 시설일체 완비 무상
◆양도가액 : 2천만원
◆특 징 : 입주즉시 법회 가능하고 필요시 투자금액 전액 즉시 회수가능한 기도 및 포교도량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회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대리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 국 불 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2)1648-6334
(24시간 호출可)
서 울 본 사 :02)3705-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시내
◇ 평 수 : 399평
- 실사용평수 : 700평
- 임법당, 산신각, 칠성단, 용왕각, 범종각
◇ 가 격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 인가에서 100m 떨어진 곳 수목이 울창하고 바다가 한눈에 보임
012)1585-4204

사찰부지 안내
◇사찰부지 : 900평 ◇법 당 : 20평(목조)
◇주지실 : 15평(목조 미완성)
◇요 사 : 40평(조립식 전물)
◇매 가 : 3억
◇위 치 : 칠학산 국립공원과 소재산 국립공원이 만나는 곳으로 천하절경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목포가 장관을 이루고 밝은 제곡물이 경내를 휘어 감돌아 가는곳. 기도도량으로는 최고의 사찰
◇ 보시는 스님들은 절대 실망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 사찰 양도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371-762-0101
011-466-1802 / 012-397-6003
천운개발 한 상 철 합장

전국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사찰및 포교원 명 당 부 지
◇ 위 치 :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악파크호텔 정문에서 2·3분 거리)
02)379-8404, 8425

관 승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관 여 행 사 관

◆ 불교성지순례 ◆
(주)성문관광
종로구 청진동
02)722-2233(代)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관 장 의 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관 필 방 관

◆ 大興堂筆房 ◆
대표 권 대 일
견지동 02)732-7326

◆ 大新堂筆房 ◆
견지동 02)732-2830

◆安國筆房/書籍◆
견지동 02)732-4846

◆ 丹 陽 筆 房 ◆
대표 신 태 식
서예도구 일체
공평동
02)720-9991

관 표 구 관

◆성 신 표 구◆
인사동 02)734-2344

◆낙 원 표 구◆
인사동 02)734-2972

◆명 륜 표 구◆
인사동 02)736-1712

◆ 박 당 표 구 ◆
인사동 02)735-5696

◆ 고미당 표 구 ◆
인사동 02)735-2037

◆신신표구사◆
인사동 02)735-2710

◆서 광 표 구◆
인사동 02)720-7442

◆ 은실화랑표구 ◆
광명시 02)682-7536

관 화 랑 관

◆ 용정 콜렉션 ◆
중국미술품
02)735-2700

◆금 성 화 랑◆
인사동 02)733-2462

◆가 람 화 랑◆
인사동 02)732-6170

◆경인미술관◆
인사동 02)733-4448

◆대호고미술전시관◆
답십리 02)212-8777

◆예 림 화 랑◆
인사동 02)732-3318

◆대 림 화 랑◆
고서화, 한국화
인사동 02)733-3738

◆ 갤러리 대아 ◆
서 양 화
02)517-2558

◆동 원 화 랑◆
인사동 02)736-3852

관 학 원 관

◆시사일본어사◆
- 1집 초, 중급편
- 2집 고급편
- 3집 LIVE편
NHK 일본어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02)720-3690

관 기 타 관



대원 문제현 님 현정을 비롯, 삼나들 누리는 일상 도서출판 T.5307-2460

최초로 번역출간하는 **정법화경**
정진중에 부처님에게 정법확인을 받고 4·5년간 단독번역을 마쳤다. 그간 7년된 축생의 몸을 해탈하여 남아로 태어났고, 60년전 지옥에 빠진 사람도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다.
여러사람의 사업성취도 하였다. 많은 불자로부터 정법화경 인쇄출간의 보시하시는 분은 현실사업과 조상의 천도를 기도발원해 드립니다. 조상천도는 삼악도를 해탈할 때까지 해드립니다.
우리들의 소원도 100일내지 1,000일까지 축원해 드립니다.
농협 801814-51-031377(김춘길)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본원 대정법화경 역경원 원장 법 철 합장
0591-746-7350

도원불교수련원
지암정사(智庵精舍)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제137차 수련모임
인간완성, 현세해탈, 완전건강
시민참선수련 전문지도
선(禪)은 수십세기의 경험이 축적된 가장 확고한 정신풍일법이며 인간완성법(깨달음)입니다. 참선공부는 인간내면을 정화롭게 하고 회면을 아름답게 하며 건강과 경쟁이 극심한 현대인에게는 최선의 심신건강법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1981년에 부산 대구에 도장을 개설 명상수행과 도가의학을 함께 지도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도장을 개원하게 되어 참선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교종파를 초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수련초청 / 좌법, 호흡법, 명상식사법, 도인체조, 단식법
◆ 지 도 자 / 이성담(李星潭) 선생
●장 소 /본회 서울도장
〈강남구 포이동 225-1 영풍B/D 2층〉
한국참선명상협회
도가양생학술원
도장 : 서울:02)575-0130/
부산:051)501-8335~6 / 대구:053)742-9194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승객이 믿을데라곤 선장뿐인 것을"



그림 · 최주현

"나를 모르면 1층 안짓고 2, 3층 건물 짓는 것"
"겪고 실천하다보면 둘이 아닌 도리 알게돼요"

전생에도 '관공부' 하셨나요

문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인공에 관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스님께서는 전생에도 그와같은 방법으로 오늘에 이르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셨습니까?

답 이 육신과 정신계는 저 나무의 싹과 뿌리가 하나로 이어져 꽃이 피는 것 같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어떻게 이 공부를 했느냐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 정맥과 동맥이 이어져 돌아가듯이 육신과 정신계가 둘이 아니게 맞붙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믿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투면서 돌아가게 하는 그 자체를 터득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떻게 수행했느냐 하는 그 방법은 벌써 지나간 방법입니다. 고로 지나갔으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은 전생으로부터 이 세상에 출현키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것입니다. 그렇게 잔뜩 짊어지고 나온 것이 인연에 따라 현실로 풀려 나오고 작용을 하는데 그걸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를 모른다면 그건 바로 3층 집을 지을 때 1층은 안짓고 2층 3층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부터 알아야지 나를 모르고서야 내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으며 내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공부가 너무 힘이 듭니다

문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쭈어 보는 일도 실은 자아부처를 믿어야지 왜 스님께 여쭙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가르침을 바랍니다.

답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들어보세요. 싹은 무조건 자기 뿌리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이 또는 줄기가 '아이구 힘들어. 아이구 힘들어 ' 이런다면 뿌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뿌리가 있음으로써 싹이나 줄기도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 건데 공연히 줄기나 싹이 바람 분다고 걱정, 비 온다고 걱정한다면 우습지 않습니까?

나무가 싱싱하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뿌리의 능력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힘이 든다는게 뭡니까?

나무에 이파리가 많듯이 몸 안에 생명체들이 많아서 그 생명체들이 제각기 마음이 나게 하는데 그 마음의 선장인 제 뿌리 한테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서, 거기서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지 말로 이론으로 해도 그건 공론이 되어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의식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다스려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내가 지금 보는 이 육안이나 또는 이론적인 말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늘 얘기해 드리지만 모든 생명들의 의식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걸 마음의 선장한테 일임해야 하는데 마음의 선장만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위로 마음의 선장을 모시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의식들을 거느리고 사는 집합소이자 심부름꾼, 관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하나라도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공생이다, 공용하고 공식하고 공체다, 그러니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했노라고 하겠느냐, 나 혼자 살고 내가 제일이고 나 혼자 먹었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공생이고 주인공이다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합쳐서 다스리며 돌아가는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뿌리다, 그러니 뿌리만 믿고 거기다 맡기면 거기서 다 다스릴 텐데 관리인, 심부름꾼이 왜 걱정이고 답답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종이 주인을 못믿고 걱정한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한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하라 하고 일임해 버리는 겁니다. 안되게 하는 것도 거기이니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시원한 것, 답답한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것이니까 '너 아니더냐' 하고 내던지면 될 것을 왜 붙들고 늘어지나요.

그건 배에 올라 탄 승객들이 선장을 믿지 않고 선장에게 맡기지 않고 이리 가는게 옳다, 저리 가는게 옳다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다가는 배가 뒤집힐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지어 올라가야지요. 그러니까 내 선장한테 모든 걸 일임하고 체험을 해나가라,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문자 · 관념을 버리란 뜻은…

문 부처님께 착을 두면 부처에 빠지고 열반에 착을 두면 열반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것을 무심경지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또 문자와 관념을 버리라는 말씀도 있고 모든 법이 인연따라 생기는 것이니 공과 유가 같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물속에 달이 떴는데 있다고 해야 맞습니까, 없다고 해야 맞습니까? 제일 궁금한 것은 시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살이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라는게 분명한데 말씀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모든건 다 댁에서 보아야 알고 듣어야 알 듯이 이 공부도 겪어봐야,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들 견성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또한 다가 아니지요. 아이를 낳기는 낳았으되 어른이 되도록 길러야 하듯이 몇 년이 걸리든 간에 하나하나 자꾸 체험을 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탄생하기 전에 놓고 들어가듯이 또 놓고 들어가고 또 놓고 들어가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하지요. 그걸 알게되면 그 때는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둘 아닌 도리를 알아도 둘 아니게 나툴수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만물만생에게 응해 줄 수 있는 자유자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한다면 돼지 속에 들어가 돼지가 되어 주고 수많은 보살로 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광대무변한 법을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는 눈도 뜨지 못했는데 애기만 들었다고, 가로 세로로 꿰고 있다 해도 진실되게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 한 컵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없고 무궁무진으로 이론을 아는 것도 필요없다, 먼저 나를 발견하고 어른으로 키워서 또 늙어야 된다, 그러면 생사도 없다 생사에 끄달리지도 않는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말을 보고 들어서 그게 뭘까 하고 틀고 앉을게 아니라 행주좌와 그대로 밀고 가라, 왜냐 하면 지금 당장 고통이 오고 병고가 오는데 오는대로 밀고나가 타파해야지 언제 틀고 앉았느냐는 말씀입니다.

문자 언어를 버려라 하는 것도 방편이자 현실이고 현실이자 방편이다, 그게 이론의 방편이 아니라 방편아닌 방편이다 이겁니다.

물속에 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테고 아는 사람은 있다고 할테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형상인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일체 만물을 다 응시하시고 비추시고 통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저 부처님이 계시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저 부처님이 안계시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아예 물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깨우친 사람들끼리나 알아들어서 탁 받아 넘기겠지요.

또 시공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바뀌고 그러는데 그거 시간을 재서 말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만날 때에 시간이 몇 시인가 하고 재어보고 저 사람 만날때 재고 그러는가요?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 자넨가?' 하고 식구를 만나면 '아, 여보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그건 시간 잴 것도 따질 것도 없죠. 그냥 초월된 상태지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게 그대로, 그 자체가 그대로 초월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대로인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렇다, 아니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48)

어떤 약처방보다도 뛰어난 처방전.



"중생은 본래 성품인 주인공에 근거해서 존재한다. 비유하자면 나무가 땅속의 뿌리를 근거로 삼는 것과 같다.

뿌리는 나무가 존재하게 되는 근본이라 그로부터 줄기와 가지와 잎과 열매가 나왔듯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활동 나의 모든 공덕이 그 주인공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게 없다.

지금 이 육신을 끌고 가는 것은 주인공이다. 인간의 뿌리는 체(體)가 없어 보이지 않으나 나를 형성시킨 것도, 이끌고 가는 것도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그러므로 자기 육신이라는 배에다가 몸 속의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싣고 다니는 선장과 같다."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산다. 그 힘이 줄기, 가지, 잎, 꽃, 열매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뿌리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나무는 시들고 만다. 제대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마침내는 고목이 되어 썩고 만다.

고로 뿌리는 나무라는 생명체의 근본이다.

사람에게도 그런 뿌리가 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생명의 원천이 있다. 그 원천은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우주를 낳았고 나를 낳았고 일체만물을 탄생케 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원천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한 생명체가 싱싱하고 활달하게 살아가려면 생명나무의 뿌리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생명체는 나무가 시드는 것처럼 활력을 잃게 되고 병에 시달리게 된다. 육신의 병 정신의 병이 다 거기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밝고 건강하게,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생명의 원천과 바로 맞닿을 수 있어야 한다.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듯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

생명의 에너지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언제나 넘쳐 흐를 뿐 아니라 퍼내어도 퍼내어도 줄지 않는다.

많이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많이 쓸수 있다. 말하자면 원하는대로 공급을 해준다. 따라서 그 생명의 원천과 맞닿을 수만 있으면 마치 수로를 열어놓은 것처럼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 점을 믿지 않는다. 원천에 가 닿는 노력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넘쳐 흐르는 생명의 샘을 믿지 않는다. 또는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뿌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생명체와 그 원천을 이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은 비유하자면 마치 저 마부와 같아서 말과 수레를 이어주며 말을 부리듯이 육체와 생명의 원천을 이어주고 부린다. 중요한 것은 마부가 말의 힘을 믿듯이 원천의 힘을 믿느냐에 있다. 믿지 않고서는 샘 솟는 에너지에 맞닿을 수도 없고 끌어다 쓸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고로 마음먹기에 따라 생명체는 에너지로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한 생명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려면 저 싱싱하고 푸른 나무처럼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내 생명의 원천인 뿌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마음이 매개자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낮잠에 빠진 마부와 같다

마부가 잠들어 있는 한 말이 저 혼자 수레를 이끌지 않는다. 마부가 말이 한가롭게 풀이나 뜯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모습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육신은 소우주에 비유된다. 수많은 생명체가 우글거리는 중생의 국토와 같다고도 한다. 거기서 임금노릇을 하는 것은 마음이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은 바로 임금인 마음이 할 닷이다. 임금이 바르게 다스리면 나라가 편안하고 바르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듯이 마음쓰기에 따라 중생의 국토인 우리의 육신도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병고에 시달린다.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임금노릇을 제대로 해야한다. 가장 바르게 다스리는 길은 내 생명의 원천을 믿고 거기에 맞닿음으로써 항상 넘쳐흐르는 생명에너지를 공급받는 길이다.

그것은 믿음에 있다. 나무가 뿌리를 믿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의 믿음, 그것은 어떤 처방보다도 뛰어난 처방인 것이다.

협찬 : 소쩍새마을 김광준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는 무한 에너지 갖고있는 자본가

☞ 17면에서 계속

다 하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학이 마음도 증명할까요

문 물질의 근본을 연구하는 양자물리학자나 마음의 근본을 밝혀 보겠다는 두뇌연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음은 몸과 별도로 존재하며 그것은 물질의 근본 알갱이와 동일하고 또한 우주의 알갱이와도 동일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그것을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는 마음을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망상일 뿐이며 마음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내 한생각 우주와 직결되어있어 용도따라 에너지 꺼내 쓸수있고 일체만물 자동통신 우연 없어요"

답 이 물질로써 현재에 존재하는 것만을 따져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자의 '부(父)'라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전자의 '부'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이 끼어 있는데 마음을 알려면 바로 현재의 나와 전자의 부가 한데 합쳐지는 도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마음이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가 한데 합쳐져서 마음을 일으키는가 하면 용도에 따라서 들고 나는데 거기엔 더한다 덜한다의 한계가 없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것을 생산하고 또 생산하는가 하면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만물 만생이, 이 우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극한적인 문제는 나를 발견하느냐 하는 둔제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엇을 연구하려 들면 모양이 어떻다느니, 크기가 어떻다느니 하는 식으로 따지는데 그래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오신통 범위에 들어갑니다. 앉은 자리에서 천리를 노고 듣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바로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을 아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건 도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안에, 오신통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을 자유롭게 굴릴 수 없죠. '나'라는 존재도 알 길이 없구요.

이 오신통을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리지 않겠습니까? 벗어나야만 삼세심을 다 꿰뚫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알텐데 말입니다. 그래야만 아주 걸림없는 능력도 지혜도 생길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으니 어항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기들이 물 밖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도 이 공기주머니 안에서 한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지만 마음은 공기 주머니 밖이 아니라 어디라도 아주 광대무변하게 뻗을 수 있고 그러고도 여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정체가 어떤가를 알려면 바로 '나'라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알갱이란 말을 하셨는데 이름이야 뭐라하든 그것이 모든 것의 영원한 뿌리입니다. 형성된 것도 거기서 비롯되었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것도 다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가 살던 것까지 다 거기에 입력이 되어서 현실로 나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과학자들의 말로 하면 소립자니 입자니 하는 게 뇌고 입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로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는 말이 되지요.

국내외로 사건이 많습니다

문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보아도 안좋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겠지만 때로는 엉뚱한 일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답 우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가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다가 폭발해서 별이 되고 태양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안다는 것 만큼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연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도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 잘못 쓴 마음이 입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는 참으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잘, 곱게, 둥글게 써야 합니다.

한 생각 잘 내고 잘 돌려야 하겠지요.


그림 · 최주현

"돌이나 풀도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자 채찍" "이 몸뚱이가 토굴인데 또 토굴을 찾습니까"

배우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스승으로 알고 나의 은인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물이 아니었더라면 살 수도 없거니와 보고 듣고 배울 수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이고 은혜로운 대상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내 스승으로 생각하고 행을 한다면 그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고 정법으로 나아가는 게 됩니다.

불교에서 대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힘은 따로 한계가 없어서 우주에 한계가 있다 없다는 소리조차 붙일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될 수 있으면 마음을 넓게 쓰면서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나쁜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뿌리에서 온 것이니까 좋은 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입력된게 바뀌어서 좋은 에너지가 배출되겠지요.

이것은 내 몸뚱이, 이 살림살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삼천대천세계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체가 없는 고로 그렇게 찰나찰나에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도리는 참으로 무서운 도리이면서 자비한 도리이고 자비하면서 무궁무진한 도리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광대무변한 법,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인 이 도리를 깨달아서 하늘의 열쇠를 가졌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 지구가 혜성하고 부딪쳐서 아주 망가질 처지가 되었다고 할 때 그냥 보고 넘기겠습니까? 수많은 인명이 죽게 생겼는데 그냥 부서지고 타버리게 놓아두겠습니까? 무슨 수를 내도 내겠지요?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으셔서는 우리들에게 이 광대한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도리를 모르면 세세생생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말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광대한 묘법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절대적이지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라…, 절대니까 믿어야 합니다.

토굴서 공부하고 싶은데…

문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쯤 조용한 곳엘 가서 참선을 해보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앉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고 하셨길래 이렇게 한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어디 조용한 도량에 가서 한 철 견뎌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답 이것 보세요. 채찍은 돌에서도 나오고 식물에서도 나오고 동물에서도 나오고 사람에게서도 나옵니다. 어린애한테서도 나오고 하다못해 풀 벌레한테서도 나옵니다. 채찍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그런데 왜 속아넘어갑니까? 옆에서 누가 이런다고 속고 책을 보고는 이 방법도 좋겠구나 하고 속고…, 갈대처럼 굴어서 되겠습니까? 이 공부한다고 죽으러 관 속에 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죽어야 관 속에 들어가지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관 속엘 들어 갑니까? 관속에 들어갈 사이는 어디 있구요?

마음은 선 것도 아니고 안 선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조용한 장소 찾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붙들어 맬려고 하면 이 마음이 통쾌하게 나올까요? 자유로울까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집적거리는게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법회참석에 회의가 생겨요

문 일년 내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법회에 꼬박꼬박 참석하기를 몇년째 계속 했습니다. 정진 법회에도 참석했고 특별법요식 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 조금 무더운 날이었는데 불현듯이 이 더운 날에 꼭 이래야만 되는가, 이래야만 불자라고 할 수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론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어리석은 탓에 그러고 지냅니다.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세상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우리는 어딜가나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합니다.

가족이 되었건 도반이 되었건 같이 돌아가고 같이 하나로 살고 있지만 모습이 각각이니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는 만나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니면서도 나뉘었다가 합쳤다가 합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디서 왔다는 사실을 불가불 알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정혈을 빌어서 태어났다고 하겠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주머니에서 나와서 주머니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기에 이 도리를 배워서 주머니 속을 벗어나야 자유로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느니라'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소리조차 듣지 못한다면 생각해 볼 점도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라도 듣고 내 마음의 진로를 넓힐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바쁜 중에도, 덥든지 춥든지 법회엘 나가는 이유를 짐작케 될 겁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도리를 배우고 증득해서 주머니 속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선 너무나 보고 듣는게 많고 아는게 많다보니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좀 모르는 듯 해야 옛날 선지식들이 화두를 들고 무지막지하게 넘어왔듯이 그렇게 할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두선이 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아는게 많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있는다 해도 물질로 형상으로 치닫는게 많고 알음알이가 많아서 진짜 정신계는 무시하고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형상으로 치닫는다고 해도 실제는 만물만생이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 도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부딪치고 싸우고 긁어서 병고, 애고를 만들며 삽니다.

불법이라는게 절에서 중들이 머리깎고 목탁 두드리는 것만을 말하는게 아니지요.

이 불교라는 것이 특정한 이름의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삼라만상이 삼세를 통틀어 궁그르는 도리를 말합니다. 그대로 진리이지요.

그러기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다른 이름의 종교를 믿든지간에 그게 다 불교입니다. 절에 가서 무엇을 하면 불교이고 다른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라는 말은 성립이 안되지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웃 입고 나와서 이런 저런 역할을 하는 게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인데, 말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렇게 주어진 것인데 그 도리를 알고 주머니 속에서 벗어나는 공부는 불교라는 이름이 아니더래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게 종교다, 저렇게 하는게 불자된 도리이다 하기 이전에 생활이 종교요 생활 속에 가르침이 있는 줄 알아라 이겁니다. 그럴 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자주 들어서 내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건 매우 중요하겠지요.

'만물만생이 다 스승'이라는데…

문 스님께서는 자주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저 나무를 가지고 한말씀 해 주십시오.

답 사람 사이에만 스승이 있는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다 스승이고 만물만이 스승 아닌게 하나도 없지요.

보세요. 저 나무들도 봄이 되면 싹이 트고 무성하게 피어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단풍이 들면 잎이 집니다.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도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곱게, 둥글게 쓰세요"

그리고는 겨울내내 그 추운 눈보라를 다 견뎌내고 끄떡없이 인내하며 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엔 만가지 수학이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한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 쓰는 일에 스승 삼을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도 참는 마음, 인욕이 있어야 하고 기다리는 것, 정진도 있어야 하고 그런 자유로움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봄날의 따스한 빛도 쬘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고 추위가 싫다, 눈보라가 싫다, 낙엽지는 게 싫다고 인내할 줄 모르고 불끈불끈 화 나는대로 욕심나는 대로 일을 해 제낀다면 화목함도 가져올 수 없고 재물도 열매도 거둘 수 없을 겁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도 열매처럼 생각이 있거든요. 그 집엘 들어가려다가도 말입니다. 마음 바탕이 잘못되고 시끄럽다 싶으면 딴 데로 갑니다. 야! 이건 이 집에 들어가 보았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싸움질이나 할테니 싫다! 하고는 딴 데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 나무처럼 세상 탓하지 않고 다소곳이 인내하며 봄을 맞이하는 거기서 왜 배울게 없겠습니까? 그냥 내 스승이 아니고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은 다 그러해서 스승 아닌게 하나도 없습니다. 풀 한포기를 보아도 내 스승이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아도 내 스승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아도 내가 배울게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스승입니다. 산에 나무들이 어떤건 크고 어떤건 작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어우러져 사는걸 보아도 스승 아닌게 없습니다.

나는 예전에 책을 보고 배운 적도 없고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때는 공부한다는 생각도 없고, 그런걸 공부라고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산으로 돌아다녔는데 한참 지나서야 산천초목이 다 나를 가르치는 스승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개미들이 흙을 물어다가 제 구멍 앞에 제 깐에는 둑을 쌓는 걸 보았는데 얼마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것들도 말을 주고 받으며 저렇게 하는구나, 저것들도 마음과 마음으로 통신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러니 스승 아닌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고 배우라고 팔만사천 대장경을 펼쳐 놓은게 아닙니까?

글로 써서 책으로 꾸며 놓은게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함께 공생하고 공용 공식하며 돌아가는 이 자체가 그대로 팔만사천 법문이고 스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요. 물은 날보고 물같이 살라 하고 산은 날보고 산같이 살라 하네 하고 말입니다.

협찬 김도영 · 박미현 · 김주희 · 김광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535번지

단 신

불교 청소년지도자 연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는 27~28일 다보수련원에서 제1회 불교청소년지도자 연수를 개최키로 하고 1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불교교사 자질 및 법회 지도력 함양교육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하는 파라미타 연수는 교사불자회, 불교학생회 지도자, 포교사를 비롯해 청소년포교에 관심이 있는 불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80명. (02)723-6165

연극감상·지도법 강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11월 22~23일 서울 서초구 구룡사에서 제 20차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했다.〈사진〉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습회에서는 종이접기, 심성훈련 등과 극단 민예 대표 이태훈씨의 '누구나 쉽게 연극을 감상할 수 있는 법' '불성을 계발하는 연극 지도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자녀를 위한 부모 성교육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11일 대전 대덕구 안산도서관 강당에서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성(性)교육' 강좌를 연다.

이성희교수(전주우석대 가정학과, 성폭력예방센터 교육위원)가 '우리 자녀들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성문제 예방책과 자연스런 대화법을 강의한다. (042)633-1141

찬바람 불면 노인건강 '빨간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신체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갖가지 질환이 따른다.

추위를 타고 겉음을 뒤뚱거리기 십상이다. 또 마음이 위축돼 쉽게 우울증에 빠지는가 하면 숙면에 들지 못하기도 한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같은 날이면 노인불자들이 더욱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새벽예불·철야정진 기도로 새벽 찬기운에 갑자기 노출돼 건강의 균형을 잃기쉬워 노인성·퇴행성 질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찬바람이 건강의 적신호를 예고하면서 불가침구학회 자비의 손을 찾는 노인불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가침구학회 이홍재 회장은 "환절기가 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신체의 저항능력이 떨어져 몸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이나 절을 하느라 땀을 자주 흘리는 노인불자들은 환절기 감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때문에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노인불자 무료진료 병원 및 단체를 알아 두는 것은 필수.

그 중에서도 불가침구학회와 대구 불교사회봉사회의 발반사요법 시술은 부담없이 들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내로 수원을 비롯한 3곳의 병원을 더 개원하는 연꽃마을 병원은 총 10개 지역 불자가 병원 진료시간대에 제한없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적절한 영양관리와 긍정적인 마음자세, 적절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이에대해 사찰요리연구가 선재스님은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고혈압, 협심증, 당뇨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육류를 비롯한 갖가지 현대식 음식 대신 담백한 사찰요리가 적격"이라며 "야채 및 콩류가 주를 이루는 사찰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해진 위장의 부담을 덜어 입맛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권했다.

영양섭취 못지 않게 환절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방법은 적절한 운동이다. 해월스님(공주 불광한의원장)은 "108배, 3천배, 1만배 등 무리하게 절을 하거나 추운 겨울 가만히 앉아 기도를 하는 것보다 적당히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노인들에게 죽음보다 무섭다는 무력감,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 또한 과제다. 이럴 때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상담의 전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해결책이다. 누구에게 속내를 털어 놓는 것만으로도 한결 홀가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또 가벼운 자원봉사활동이나 도반을 사귀어 보는 것도 우울증을 달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도필선 기자

새벽예불·철야기도때 감기조심을
외로움, 교계상담전화 이용 바람직

◇불교계 병원 및 상담전화

	병원 및 상담	전 화
병원	동국한방병원	02)536-5599
	동국인천한방병원	032)764-9011
	동국대부속 한방병원	0561)770-2377
	동국대부속 분당한방병원	0342)710-3700
	동국대부속 경주병원	0561)748-9300
	동국대부속 포항병원	0562)73-8111
	연꽃마을 서울광명의원	02)414-6408
	연꽃마을 마포경로의원	02)364-6172
	연꽃마을 청주광명의원	0431)221-0836
	연꽃마을 군포광명의원	0343)34-5617
	연꽃마을 대전광명의원	042)634-5820
	연꽃마을 안양광명의원	0343)88-6534
	연꽃마을 보은광명의원	0433)44-2105
상담전화	분가침구학회	02)722-3800
	불교사회복지회 발반사요법	053)784-3669
	대한불교노인상담방	02)720-9251~3
	자비의전화	02)737-7374~5
	인천 자비의전화	032)884-0118
	대구 자비의 전화	053)427-7114
	제주 자비의전화	064)43-5227
	도움의전화	0582)32-5677

건강 365일 〈7〉 오가피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최근에는 토종 오가피에 대한 신문광고를 보고 그 효능의 진위여부를 묻는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 온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약 선전문구를 보나 과대광고 아닌게 없고, 만병통치약 아닌 것이 없다.

그들 광고대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오가피는 〈동의보감〉 약성가에 따르면 '땅두릅'이라고도 불린다. 다섯장기가 과로했을 때 기운을 돋우고 정력을 보하는데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요통을 다스리고 여성에게 발병하는 이는 또 허리신경통, 디스크 같은 증상을 부른다.

그 뿐이 아니다. 정력감퇴와 만성피로도 그 원인이다.

특히 여성 태양인 체질은 불감증, 불임증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자연유산을 하는 예도 많다. 어린이들은 오줌싸개가 될 소지가 많다. 남성 태양인 체질은 아들보다 딸을 낳는 확률이 많다. 그런 태양인 체질에겐 오가피가 성약이다.

정력감퇴·만성피로증상 치료
"인삼보다 뛰어난 약재" 주장도

오가피는 잎이 다섯개로 되어 있다하여 오가피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다섯이란 숫자는 산술적 개념으로 보면 그대로 다섯에 불과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깊은 뜻이 있다.

한의학에서 다섯이란 숫자는 위장과 관련이 있다. 위장이 나빠 음식의 소화흡수가 안되면 간장과 신장의 기능이 함께 약해지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간장이 부실하면 근육에 탄력이 없어지고, 신장이 약해지면 소변을 자주보고 방광염이나 전립선비대증을 앓는다.

오가피는 이같은 대하증을 치료한다.

오가피는 체중감소는 물론 체질을 변화시켜 다이어트 이후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러시아 브레크만박사는 오가피의 효능이 인삼을 능가한다는 논문을 발표해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인삼의 중요 성분이 사포닌인데 이 사포닌 성분이 인삼보다 오가피에 다량 함유돼 있다는 것이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지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W 300,000~~ ⇒ W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5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①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도량석, 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천수경,행선축원,불공시식등
②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③작 법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11월 17일 ~ 12월 16일
■ 개강일시 : 1997년 12월 16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대학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불자 세상보기

"TV가 과소비 부추긴다"

SBS '살림을…' 한회 경품 1천만원 넘기도
케이블TV 시청률 조사기간 외제경품 '일색'

마침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우리 경제의 사령관 자리를 그들에게 양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제성장률 및 물가의 하향조정, 재정 긴축을 요구할 것이 확실해 씀씀이를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금융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은 대량실업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자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옷껴입기 운동까지 벌이는 등 국민 모두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외국 동전모으기에는 초등학생의 고사리손도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국가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흥청거리는 모습이다. 바로 TV다.

지난 25일 방영된 SBS '살림을 잡아라'. 30여분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경품이 1천만원을 넘는다. 사이판 여행권을 비롯 전자렌지 호텔숙식권 침구세트 무선전화기 등 무려 30여종에 이르렀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TV가 과소비를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가입자가 2백만 가구를 넘어선 케이블TV는 아예 수입품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시청률조사 기간이었던 11월 10~15일 각 방송사는 경쟁적으로 경품을 내걸었다. 다큐멘터리 전문의 한 채널은 전화응답의 방법으로 1백80만원짜리 와이드TV, 1백30긴원하는 스노보드 세트, 50만원짜리 를 래식선집 등을 1천25명에게 나눠줬다. 보석 악세사리 등 생활필수품과는 거리가 먼 품목을 주로 하는 한정·특가판매상품전은 시청자들을 잡단 쇼핑중독증으로 몰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TV 3사가 자제에 나섰다. '경제를 살립시다' 등을 제목으로 특집방송을 긴급 편성했다. 그리고 여행권 상품도 해외에서 국내여행권으로 바꾸겠다고 밝혔고, 해외풍물 소개 프로그램 축소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출연자들의 호화의상, 과도한 경품제공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은 빠져있다. 어떻게 20대의 극중 모델이 40평 이상으로 보이는 중형아파트에서 살고, 역시 20대의 극중인물이 호화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지, 꼭 그래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뽀뽀뽀'에 출연한 아이가 입었던 조끼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에 떠밀려 백화점까지 갔다가 할인한 가격이 6만8천원이라는 소리에 발걸음을 돌렸다는 주부의 얘기다.

한사람만의 노력으로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TV프로그램을 바로잡기에는 어렵다. 국민들의 감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성운 기자



공무원도 "경제 살리자"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 공직자 다짐대회'가 지난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3천9백여명의 참가 공무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플러스펜 깎아쓰기·자동차 10부제 부활 등

"경제 살리자" 절약운동 확산

국가경제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각종 절약 묘안들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플러스펜 깍아쓰기' 운동에 들어갔다. 잉크가 남아있는 데 끝이 뭉뚝해진 플러스펜의 필심을 다시 뾰족하게 깎아 씀으로써 월 7백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삼성전자는 26일 전 사원들에게 '가로복사'를 지시했다. 세로복사 때보다 복사물을 읽기 위해 기계가 움직이는 거리를 줄일 수 있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하루 12~24시간 켜놓던 네온사인 등 전등을 매장 개점시간에 맞춰 9시간만 켜기로 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경제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시민단체들은 또 △자동차 10부제 자진부활 △봉급 10% 의무저축 △음식물 남기지 않기 △연말연시 호화행사 억제 △해외여행 및 자녀 어학연수 자제 등의 실천운동에 나섰다.

서울시 경북도 등 자치단체들도 '달러화 저축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비롯 씀씀이 줄이기에 나섰다. 강동구는 유류 사용자제를 위해 옷 한벌 껴입고 근무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초등학교 교장 5백여명도 26일 교원단체총연합회 강당에서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갖고 경제회생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들고의 눈

만족 모르면 죄악만 키운다

TV가 대통령을 뽑는 시대다. TV의 중요성이 커졌고 그만큼 TV의 책임도 크다. 웃껴입기운동까지 벌이는 국민들에게서 TV는 배워야 한다. 기왕에 다양한 포맷으로 진행하고 있는 'TV장터'를 중소기업체의 우수상품을 알려 기업도 살리고 국민들의 건전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상품에 대한 요구가 까다롭고 선택이 단호할 때 기업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돌려주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자.

경전에서 가르치는 절욕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자.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염(念)하고, 가난에도 안주하여 도를 지켜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함을 안다." 〈팔십인각경〉

청백리들 해외연수 반납

내무부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한 청백봉사상 수상자인 청주시흥덕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봉주씨 등 수상자 18명은 외화절감을 위해 자신들에게 부상으로 주어진 해외연수의 특전을 스스로 포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상자 부부들은 지난 27일부터 7박8일 동안 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행정연수가 계획됐었다.

청각장애인에 무료 보청기

25일 서울시로부터 '생활현장의 숨은 일꾼상'을 수상한 홍영희씨(49). 지난해 2월 보청기 판매점을 연 홍씨는 알고 지내던 장애인수용시설 원장의 보청기 기증 부탁을 받고부터 불우한 청각장애인 돕기에 나섰다. 지금까지 3백17명의 어려운 이웃이 소리를 되찾았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차지만 후원자를 모집, 평생동안 청각자애인을 계속 돕고 싶습니다."

국내 첫 전자도서관 개통

국내 첫 전자도서관(www.dlibrary.co.kr)이 개통됐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내도서 69만종의 서지사항을 비롯 고서 3천권,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소장 석·박사학위 논문과 교수 연구논문중 1백95편, 한국한술진흥재단 소장 국외취득 박사학위 논문 1천편의 본문 등 모두 52만5천여쪽 분량의 정보를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칙금 1천만원 횡령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26일 교통범칙금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이 경찰서 김모순경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김순경은 교통과 범칙금 수납담당인 지난 5월부터 3백44명이 납부한 교통범칙금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화밀반출 부유층 검거

외환위기에도 아랑곳없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던 일부 부유층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 공항경찰은 25일 1천달러짜리 여행자수표 50장(5천7백여만원)을 손가방에 숨긴 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미국 P대학교수 이모씨를 적발했다. 또 이날 일화 1만엔짜리 1백장 등 모두 4천5백여만원을 지닌 채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김모씨도 검거했다. 24일에도 4명의 외화밀반출 사범이 붙잡혔다.

불황틈탄 1800억대 사기

자금사정이 어려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어음·무역사기와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킨 '불경기 사기꾼'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은 11월25일 8개 은행과 10여개 기업에 1천8백여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입힌 변인호(40)씨를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미국과 홍콩에 도피중인 변씨의 두 동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늦은 밤 택시강도 조심

밤늦게 혼자 타는 여자승객들의 금품만을 털어온 박모씨 등 택시기사 2명이 11월 24일 강남경찰서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20차례나 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붙잡힌 취객털이 9인조 택시강도는 지난 9월에 승객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밤늦게 택시를 탈 경우 일행이 있으면 꼭 바래다주고 택시번호를 기억해두는 것이 예방책의 하나다.

생활정보

빈병 꽁초제거 연 3백억

재활용이 가능한 주류·음료병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집어넣으면 연간 3백억원의 돈이 낭비된다. 매년 재사용되는 병(소주 맥주 음료수)은 48억개로 이물질 제거비로만 2백40억원이 들어간다.(환경부 자료) 여기에 오물이 남아 폐기처리하는 비용을 합하면 3백억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전국 독감경보 발령

전국에 유행성독감 경보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부산지역에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에 경보를 발령했다. 복지부는 외출 후 양치질을 하고 손을 씻는 등 예방노력을 하도록 당부했다.

김치, 동맥경화 예방 탁월

김치가 동맥경화를 방지해 뇌졸중 등 심장혈관계 질환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송영옥교수는 지난 1년간 미국인 4백여명의 혈액을 김치 추출물과 반응시킨 실험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4일 발표.

이렇게 들었다

'벌이는 1만불, 씀씀이는 3만불'. 우리 국민의 잘못된 소비행태를 나타낸 말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과 기업의 무분별한 외형 키우기와 함께 외제·사치품 선호와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 소득에 걸맞지 않는 왜곡된 소비생활이 국제통화기금(IMF)을 빌어 쓰게 된 국가적인 도산을 야기한 것이다. 12월 3일 소비자 보호의 날을 맞아 물자다운 소비생활이 어떠해야 할지 경전에서 알아본다. 〈편집자 주〉

소비생활 "의식주 향락 수단 아니다"

▩사람을 미혹해서 괴롭히는 근본적인 번뇌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길이 다섯가지 있다. …셋째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쓰는 것이다. 음식과 옷은 향락의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고 치부를 가리며, 음식은 깨달음과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 수양할 때 양생의 목적으로 먹는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 〈일체루경〉

▩가정 생활에서 매일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족들은 개미와 꿀벌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아무도 다른 식구에게 의존하거나 자선을 기대하면 안된다. 아무도 제가 벌어들인 것을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다른 식구에게 나누어 주고,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육방예경〉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인연이 맞아서 제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된다. 우디야나 왕의 비 샤마바티가 주는 옷 오백벌을 받은 아난타가 매우 만족해 하고 있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왕이 아난타에게 의심을 품고 찾아가서 그 옷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아난타가 "임금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임금은 "그러면 그 누더기 옷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것은 욧잇으로 쓰지요." "헌 욧잇으로는?" "베갯잇을 만듭니다." "헌 베갯잇은?" "그것은 방바닥에 깔겠습니다." "헌 깔개는?" "발걸레로 씁니다." "헌 발걸레는?" "마룻걸레로 쓰겠습니다." "헌 마룻걸레는 무엇에 쓰지?" "대왕전하, 그것은 갈기갈기 찢어 진흙과 섞어 반죽해서 벽을 바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맡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좋은 일을 위해 가치 있게 써야 한다. 〈법구비유경〉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할 지니라. 부디 스스로 금 은 따위의 보물을 받지 말아야 하느니라. 〈잡아함 마니주계경〉

색상품

'스팀패드 저주파 치료기'

요통, 관절염, 복부비만, 안면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리 치료기 '스팀패드 저주파 치료기'가 나왔다.

동양 침술과 서양 의학을 접목시켜 개발한 이 제품은 원하는 부위에 패드를 붙여 놓고 작동시키면 주무르기, 두드리기, 진동기능을 반복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물리 치료를 할 수 있다.



또 스팀패드를 이용 냉은 찜질을 겸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10단계까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수명은 반영구적이며 전원은 9V 건전지 1개 사용. (주)헬슨. 가격은 9만8천원. (02)418-0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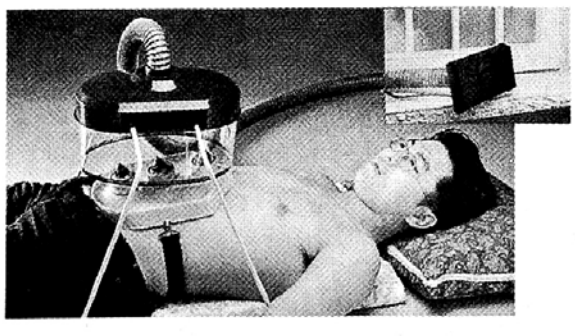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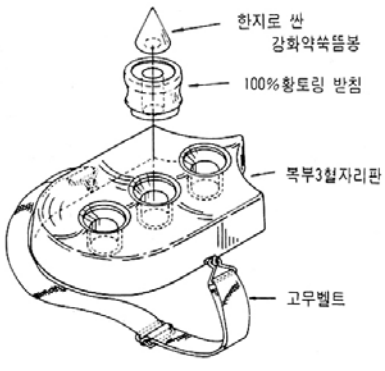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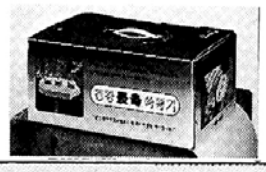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태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시 론

"기사회생 합시다"



양 호

〈서울시립대 교수 · 경제학〉

이 뭣고?

한강의 기적을 성취한 줄로 알았었는데 설마했던 하찮은 거품때문에 이 무슨 국가적 치욕인고. 한국경제가 자력으로 구조조정을 제때에 못하여 거품속에 잠기자 엉뚱한 회오리바람이 이를 거두게 되는구나.

홍콩에서 일어난 소소리바람이 태평양을 지나면 봄바람이 될텐데 더 한반도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피와 땀냄새가 가득한 거품까지 거두어 가는구나. 국제투기자금의 소용돌이에 말려 발가벗겨졌구나.

그동안 흘린 땀 거품되다

삼라만상이 무정설법이라는데 불쌍한 우리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말씀은 어디서 들려오는고.

발등의 불을 끄다 지쳐 마지막 고철더미위에 몸을 던져놓고 흔들리는 한강다리 위를 지나고 있는 저 중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고. 신작로 밑에 얽혀있는 거미줄의 지도는 바빠서 못만들었던가? 자신을 반기지 못하는 아내에게 잠든 자식들이 늘을세라 정리하고 되었다는 말을 차마 못하는 이 늙은 노동자의 진면목은 무엇인고.

아파트단지에 즐비하던 음식점들이 화장품가게로 신장개업된 걸 보니 자본주의에서는 여자와 건물이 불만하다는 말이 생각나는구나.

"저희 아버지는요, 엄격하셔서, 제가 신세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고 전문대학에서 면접연습을 예쁘게 하고 있는 이 딸은 꼭 취직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잊어버렸던 제3자 개입으로 잡혀와 야간공부를 못하고 묻는 노동부 수사관에게 "난 사회주의자다"라고 강변하는 어느 공단의 젊은이들은 사회주의를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미국 대통령에게야 자신의 사생활보다는 아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이 훨씬 중요하겠지. 동아시아인들의 충격과 분노에 아랑곳없이 신주우의 논어를 성서로 바꾼들 어떠하며 먹고 살기 위해 다국적기업 간판을 벌린들 그 무엇이 대수랴.

이 무슨 짓들인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맞는가. 푼돈을 모아보았자 주머니돈이라는 말이 틀리는가.

남쪽의 인적자원과 북쪽의 식량을 남의 손에 맡겨놓았으니 이제 우리는 마음놓고 술이나 마시면서 싸고 좋은 외제차를 몰다가 오랜지나 까먹으면 되겠구나. 이제는 만사형통이로구나. 서구인이 시키는대로만 하면 우리 가슴과 등배의 깊은 병이 치유되고 군살이 빠져 몸매까지 날씬해지겠구나.

증권회사 상담역은 삭막한 칸막이안에 넋을 잃고 늘어져 있는데, 업무시간이 지났다고 입금하는 손님을 독촉하면서 잽싸게 칠하고 있는 저 화장은 죄가 되는 것인가, 아닌가.

심부름을 하다말고 만삭이 된 배를 밀고 총총거리며 들어서는 산모에게 "또 늦으면 접수안돼요. 퇴근 못하잖아요" 하고 쏘아붙이는 이 간호사의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은 무엇인고.

세 사람을 해고시키기가 안쓰러워서 머뭇거리다가 3천명을 해고시킨 뒤 다음에는 시간을 지키라는 주의에 얼굴을 붉히며 사과하고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구나. 이자라도 꼬박꼬박 갖다드려야지. 인플레이션이라 했자 실은 아주 싸지 뭐. 나중에 오천명을 채용할 수도 있다니 믿어봐야지.

대통령은 생선 한 마리를 베푸는 것보다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영어책을 더듬더듬 해석한 뒤 다물어진 저 입은 어부인가, 고기인가, 아니면 그물인가. 곧 저 사람 책상도 치워야 할 것 같은데.

구제금융 받아야할 신세

한이 맺혀 질룩거리는 저 노인에게 지팡이를 드리면 혹 매질은 안 하실런지. 대선이야기는 보기도 듣기도 싫은데 내 이 생애가 그 결과에 달려있는 것도 같으니 말이란 도대체 무엇인고. 차도살인(借刀殺人)한 놈이 기사회생하면 한번 더 하지. 그 뒤에야 통째 말길 수도 있고.

내면의 목소리에 가려 큰스님께서 내리는 화두를 간직하지 못하면 과연 눈먼 거북이가 되는 걸까.

아! 어찌하여 나는 삼십년 공부가 헛되어 다시 참하면서 절친한 친구로부터 부럽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 누구인고….



열린마당

萬佛 조성

원불조성불사가 천불, 삼천불, 만불, 십만불로 올라가고 있다. 백만불 조성불사 소문도 나돌고 있다. 대량의 불상조성에 대한 의견은 오래전부터 다양했었다. 형식적으로 많은 불상을 조성하는 것보다 진정한 불교신행의 좌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도 개인이 소속사찰에 원불을 모셔 불사에 동참하고 신행에 매진하는 것도 자기정진과 포교기능 극대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긍정적 견해다. 대량의 불상 모시기 불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교리상 문제없다…수행의 방편"

보광 〈동국대교수 · 선학과〉

천불전, 만불전 등 대량의 불상을 모시는 불사는 불교의 교리상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같은 불사의 교리적 배경은 대승불교의 다불 다보살, 제불 제보살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대승불교의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그 개체적 의미와 함께 성불의 길을 열어주는 방편적 역할로도 신앙되어 온 것이다. 〈무량수경〉에서도 수백억의 부처님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1만의 불상을 조성하고 1만의 염원을 발원해 성불의 인연을 키운다면 그 자체로 1만이라는 숫자적 의미는 초월하는 것이다. 소승불교권에서도 많은 불상을 모셔왔던 점은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볼보르트 유적과 돈황의 수많은 불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대규모 불사를 하는데 있어 얼마나 법답게 부처님을 모시고 그 정재를 잘 쓰느냐에 따라 불사의 공덕이 천양지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삼천불이건 만불이건 법다운 조성이 되어야 큰 공덕이 된다. 스스로 공덕을 소멸시키는 불사를 하는 것은 업장만 쌓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원불모시기 자성불위한 신행"

정우 〈구룡사 주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구룡사는 198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1만 부처님을 모셨다. 이 불사는 신도들이 집집마다 원불을 모시기 어려운 만큼 자신의 부처님을 인연있는 사찰에 모심으로써 정신적인 귀의처를 갖고 사중과 한 마음이 되게끔 한다는데 뜻을 두고 시작됐다. 그런만큼 신도들의 호응도 좋아서 불사를 원만 회향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 까지만 해도 원불을 모시는 신도들이 많았다.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두루 상주하고 계시지만 가까운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자성불(自性佛)을 일깨우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티벳이나 중국에서는 1만불이나 10만불을 조성하는 곳이 많다. 최근에 10만불을 조성하는 곳이 여러 곳 있지만 불교에서는 '1만'이란 숫자가 가장 큰 숫자를 의미하기에 10만불 · 1백만불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만불조성 불사는 신도들의 마음을 각 원찰에 하나로 모으고 불사에도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불상 수'에 의미 두지 말아야

성태용 〈건국대교수 · 철학과〉

불상을 많이 모시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교의 위상을 높이거나 신도 포교를 위해 힘써야 하는 등 해야할 일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상 조성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자제했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불상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 하나의 불상이라도 불자들의 신심이 모아져 조성된 것이었으면 한다. 불상은 단순한 형상물이 아닌 불자들이 복을 구하고 수행 정진하기 위한 존귀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불사와 불상 조성은 조선시대 숭유억불의 자구책으로 불교가 살아 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또 사찰의 존폐 위기 속에서 불교의 맥락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진 것들을 오늘날 규모까지 늘리면서 답습하기엔 해결해야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하지만 불상 조성이 또 하나의 불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여건이 나아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데 힘쓰기 보다는 부처님 뜻을 받들어 불법을 실천하고 전법하는 더 큰 불사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有像의 신행 물질사회의 단면"

김익홍 〈불교미술가〉

요즘의 만불전 불사는 그 자체가 갖는 성스런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물질위주의 시대가 형성되면서 우리도 유상(有像)의 신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느낌이다. 때문에 보다 큰 불상과 보다 많은 불상을 모시는 것이 불교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는 의식도 갖게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불사도 대형화 일로를 걷고 있다. 시대적 흐름을 단숨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 불사의 진정한 의미만큼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일은 포교다. 불사가 포교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소모에 비해 만족할 효과는 얻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더구나 불상을 수입한다거나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불상을 모심으로 예술적인 안목과 신앙적 의미가 결여된 불사는 지양해야 한다. 옛날에는 불상 한 좌를 모셔도 혹시 잘못된 점이 없는가를 고민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증명법사를 통해 불사를 추진했었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우리시대의 참다운 불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시효과 치중하는 불사 지양"

박보련화 〈조계사 신도〉

사찰이란 부처님을 본받아 정진하는 곳이다.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뭇 중생을 참된 삶의 길로 인도하면서 마음을 갈고 닦는 공간이다. 때문에 사찰의 초입부터 대웅전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신심을 북돋우고 그 정신을 되살리게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한마디로 의미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천불, 만불을 봉안하는 사찰들이 늘고 있다. 물론 많은 불상을 모시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시되는 것은 일부 사찰들이 만불, 천불 등을 봉안해 세속적인 전시효과를 얻기위한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모사찰을 참배했다. 그곳은 다른 사찰과는 달리 만불이 야외에 봉안돼 있었고 그 앞에는 큰 불전함만 놓여 있었다. 마침 많은 참배객과 관광객들도 이 절을 찾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에만 몰두할 뿐, 불상속에 스며있는 본래의 정신은 찾아보려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심지어는 불상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불썽사나운 행동들도 난무했다.

이밖에도 만불보전 등이 있는 웬만한 사찰들을 두루 참배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사찰을 참배한 후에는 마음속에 평안함보다 아쉬움이 항상 남았다. 분명 사찰에는 부처님이 봉안된 법당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액의 비용을 투자해 천불, 만불을 새로 조성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천불, 만불, 십만불 등의 대형불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사찰과 불자들 모두 불교조형물에다 '왜'라는 화두를 던져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조혼합원사 · 건강防災服
춘내內의衣
항균성 99.9% 음이온발생 54.8PPM
건강회복 젊음유지
맑은 머리 고운 피부
옥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玉으로 온몸을 폭 감싸 주는 것입니다.
옥이불과 함께 빅히트 상품
● 피로감 감소, 병후회복 회춘의 현저한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유해전자파 방어에 특효입니다.
● Kirilian+BIO=건강신물질
중국 지하철 高旅지방에서 출토된 明淸시대 玉器의 金縷玉衣 신강옥으로 만든 2천 498매의 옥조각과 2천 100g의 금실로 되어 있다. 2000년전에 죽은 왕의 시체의 피부가 탄로이 있었다.
이 옷을 입으면 중국황제 유승의 金縷玉衣를 입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男女각각)
각종 성인병과 질병에 사용되여온 고대 중국의 신강성 백옥은 수백년전에 생산이 고갈되고 현재는 춘천玉山家玉만이 세계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레망 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合掌
777-0105 (우린판매가)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어느날의 외로움 -
슬픔 한조각
바다위로
홀로 떠가는 부표처럼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고독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소리 흔들리며
노 젖는 이
그림자 등 뒤로
소슬한 바람 맞는다
원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종단소식

조계종

종법특위장에 정휴스님

중앙종회(의장 설정) 종법개정특별위원회는 11월25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정휴스님을 선출했다. 종법특위는 개혁이후 실시돼 온 종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필요성이 요구되는 조항에 대한 제·개정안을 마련, 내년 3월 종회에 상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월정사 박물관 기공

강원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5일 박물관·유치원 상량식을 봉행한다. 4월 기공된 박물관은 2백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이며, 유치원은 진부면 송정리 7백여평의 부지에 각각 건립되고 있다.

직지사 경제살리기 결의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5일 설법전에서 제5회 교구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회의 안건은 9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경제살리기 운동 결의문 채택, 포교활성화 방안 등을 비롯 교구 현안문제 등이다.

태고종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

총무원(원장 인곡)은 11월21일 총무원 중앙불교회관 설법전에서 전국 시도교구종무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세입세출 결산안과 98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공석중인 총무원 부원장 및 사정원장 선출의 건이 종회상정안건으로 확정됐다.

보현도량 7돌 발표회

보현도량(회장 무위)은 11월24일 서울 창신동 원각사에서 창립7주년을 기념해 작가 이청씨를 초청 '불교 자정운동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다.

보현도량은 지난 90년 종단 소장승려가 추축이 돼 창립한 개혁승가단체로 매월 1회 결사정진모임을 가져왔다.

동방대 미술과 졸업전

동방불교대(학장 정태혁)는 11월20~25일 서울 종로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제4회 불교미술과 졸업작품전 및 제7회 법패과 졸업시현회를 열였다. 이번 작품전은 25일까지 계속됐으며, 나한도, 12지신상 등 30여 작품이 선보였다.

보현사 어린이집 개원

청주 보현사(주지 원봉)는 11월24일 보리수어린이집 개원식을 봉행했다. 금년 3월부터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불사를 시작한 보리수어린이집은 건평 1백4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1백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서부종무원장 보봉스님



초대 서울중서부종무원장 보봉스님(범혜사 주지·사진) 취임법회가 총무원장 인곡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범혜사에서 열렸다.

범혜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무원과 총무원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여타 종무원에 모범이 되는 종무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통해 지역포교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진각종

1회 실상심인당 문화제

서울교구 실상심인당(주교 호당정사)은 11월28부터 29일까지 이틀간 同심인당에서 제1회 실상문화제를 개최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종도들이 소장하고 있는 오래된 사진 등을 소재로 한 사진전시회와 '심인당 발전과 지역포교활성화에 대한 방법'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또 실상심인당 복지회는 같은 날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한 복지기금마련 바자회 및 하루찻집을 열었다.

법상종

법륜스님 총무원장 취임

법상종은 20일 안성 쌍미륵사에서 제10대 총무원장 법륜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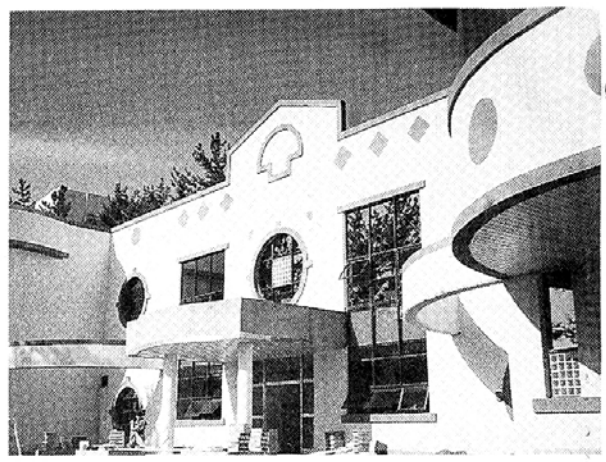
법륜스님(전남 광주 법륜사 주지)은 9대에 이어 4년 임기의 총무원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종단간부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동국대 새싹포교 나섰다

경주캠퍼스에 '동국유치원' 내년 개원

140명 모집 불성 함양…다도·예절 교육도



◇동국대 경주캠퍼스내에 건립중인 동국대 부속 유치원은 컴퓨터실, 실내체육관 등 종합교육시설을 갖추고 내년 3월 개원 새싹불자 포교에 나선다. 동국대 부속 유치원은 다도, 예절교육 등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방침이다.

새싹불자포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86년 교계 최초로 불교아동학과를 신설한 동국대학이 98년 신학기부터 유아전문포교사설인 유치원을 개원, 유아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동국대학 부속유치원(원장 대원스님·불교아동학과 교수)은 불교아동학, 불교아동문화및 율동, 불교유아교육도구론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사들을 위주로 교사를 채용할 방침이다. 또 불교아동학과 재학생들의 실습현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어서 새싹불자포교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석장동 동국대 경주캠퍼스내에 건립된 동국유치원은 개원 3개월 앞두고 조경사업을 비롯 각종 교육기자재를 설치하는등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대지 5백50여평에 2층 규모로 건립된 동국유치원은 컴퓨터실, 예절교육실, 실내체육관, 강당, 종합놀이터, 수영장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육과정은 2년이며 유아반(2학급)·유치반(3학급) 1백40명을 모집하며 컴퓨터와 CD-I를 통한 멀티미디어 교육, 요가, 다도 및 전통예절교육 등의 특별활동을 비롯 인성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초대원장 대원스님은 "경주 유일의 대학 부속 유아교육기관인 만큼 불성함양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어린이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부속 유치원은 98년 1월경 준공식을 갖고 3월초 개원할 예정이다.

교계의 어린이포교관계자들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정규대학내에 유치원을 설립, 포교에 나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며 "향후 새싹불자 포교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김중근 기자〉

훈할머니돕기 불교후원회 결성

훈할머니돕기 불교후원회(공동의장 설조 불국사 주지 법타 은해사주지 법조 고은사주지)가 훈할머니의 고향인 경산 및 인근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돼 훈훈한 동포애를 느끼게 하고 있다.

6일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 출범할 同후원회는 10월4일 이후 3차례에 걸친 준비모임과 한차례의 캄보디아 현지방문을 가졌다. 구체적인 후원방안으로 △경산에 17평 아파트 제공 △캄보디아에 훈할머니 불교문화재단 설립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촉구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同후원회 상임부의장에는 안흥사주지 정작스님이, 사무국장에는 반야사주지 법상스님이 각각 선임됐다.

거조암 나한상 국보신청

4~13日 나한상 이운…14日 영산전 중창 회향

5백나한 기도도량 거조암(주지 혜해)은 국보 14호인 영산전보수와 나한좌대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4일부터 13일까지 나한상을 이운하고 14일 중창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또 5백26위 나한상을 국보로, 조선시대 영파스님이 쓴 5백나한의 명호가 적힌 5백성중청문과 상언스님이 그린 영산회상도를 보물로 신청키로 했다.

거조암은 연인원 2천명을 동원해 매일 60여위씩 9일간 5백26위의 나한을 이운할 예정이다. 4인1조가 돼 가마에 50~80kg의 나한님을 태우고 한분한분 본가인 영산전으로 모시게 된다.

마지막날인 14일에는 회향법회와 나한재가 봉행된다. 나한재는 5백성중의 명호를 하나하나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 쌀, 꽃 그리고 지폐등을 올리는 만발삼종공양으로 이어진다.

신라 진평왕때 건립된 영산전은 5백나한을 법계도에 따라 모신 곳으로 96년 8월 10억원을 들여 복원공사에 들어가 지난 10월 완공됐다.

국내유일의 중국식 목조건물인 영산전은 가로30m 세로10m 높이 10m의 장방형으로 돼있으며, 여말 명나라대목 진춘근이 중창했다.

김천 소년원 불교교화위 결성

초대회장에 성웅스님…교화위원 11명 위촉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원생들 포교와 교화를 위한 불교교화위원회가 결성됐다.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11월21일 설선당에서 회의를 갖고 불교교화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대회장에 성웅스님(상주 남장사 주지)을 선출했으며 총무에 도순(직지사 교무국장), 재무에 보선(김천 정심사 주지)스님을 선출했다. 또 청암사 주지 지형스님을 비롯 19명의 교화위원을 위촉했다.

한편 김천소년교도소 불교교화위원회는 최우선사업으로 98년 2월까지 약 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도소내 불상을 새로 봉안키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매월 정기법회를 통한 교화 및 포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논산 관촉사에 불

요사채 전소…인명피해 없어

논산 관촉사(주지 백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요사채를 태우고 50여분만에 진화됐다. 11월21일 저녁 7시경 요사채에 불이나 목조 2층건물 등 2백여평을 태운뒤 7시 50분경 꺼졌다.

화재를 처음 목격한 해운스님에 따르면 "건물에서 연기가 보여 나가보니 요사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전 사찰 인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한 점을 감안, 방화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불이난 요사채는 95년 신축된 건물로 중요문화재 등은 보관하지 않고 있어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BBS 타종교진행자 교체

뉴스해설 코너는 '폐지'

불교청주방송은 진행자와 고정출연자가 타종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던 홍신희씨와 김춘길씨를 전격 교체했다.

〈본보 제152호 2면 참조〉

불교청주방송은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홍신희씨(前 서원대 총장)가 맡았던 '우암산 전망대'는 불자인 성기서 교수(서원대)가 새 진행자로 나선다.

한편 '뉴스와이드96.7'에서 김춘길씨가 맡았던 뉴스해설 코너는 폐지됐다.

김선도씨 피의사실 시인 불방 횡령사건 증인심리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의 피의자 김선도 송병욱씨의 11월24일 공판에 김현안씨(前 경리부 직원), 27일 공판에 조해형씨(前 사장), 종하스님(前 이사장)이 각각 증인으로 출두했다.

24일 공판에서 증언대에 오른 김현안씨는 주식투자와 관련, 자신은 하수인이고 상사의 지시를 받은 김차장이 시킨대로 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선도씨는 자신의 지시사실을 시인했으나 송병욱씨는 여전히 부인했다.

27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종하스님과 조해형씨는 불교방송 사옥설립 등과 관련한 주식투자 및 비자금 조성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부장에 장치욱씨 선출 대구·경북 대불련 정총

한국대학생불교연합 대구경북지부 97년 정기총회 및 지부장단 선거가 11월22일 대구 보현사에서 거행됐다.

새 지부장에는 대구대 진아회 장치욱씨가, 부지부장에는 대구 보가 전문대 정법회 손연희씨가 각각 선출됐다.

대·경지부는 12월23일부터 27일까지 영주 부석사에서 동계수련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방송가소식

호계암 만불법회 소개

불교TV 다큐멘터리 '중국명찰순례'는 5일 낮 12시30분에 동남아불교의 중심이 된 광동성 하문의 호계암을 찾아간다.

당나라때 진수스님이 세운 호계암은 주변에 호계라는 시내가 흐르는 까닭에 지어진 이름.

호계암은 근 30여년간 산문을 폐쇄했다가 1980년대에야 동남아 불교계에서 추앙받고 있는 회천스님이 중창불사를 벌여 불학원과 학회를 설립했다.

매년 8월15일 달빛을 구경하러 오는 불자들로 호계암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BBS 조계종 이사 간담회

불교방송 조계종 추천이사 간담회가 2일 열린다.

제129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종단추천 이사들의 사의를 결의한 이후 갖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불교방송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영 독창회 정서영 독창회 정서영 독창회 정서영 독창회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 전하는 마음으로 음성공양을 올립니다.
모든이의 가슴에 불음을 전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모십니다.

정/서/영 찬불가 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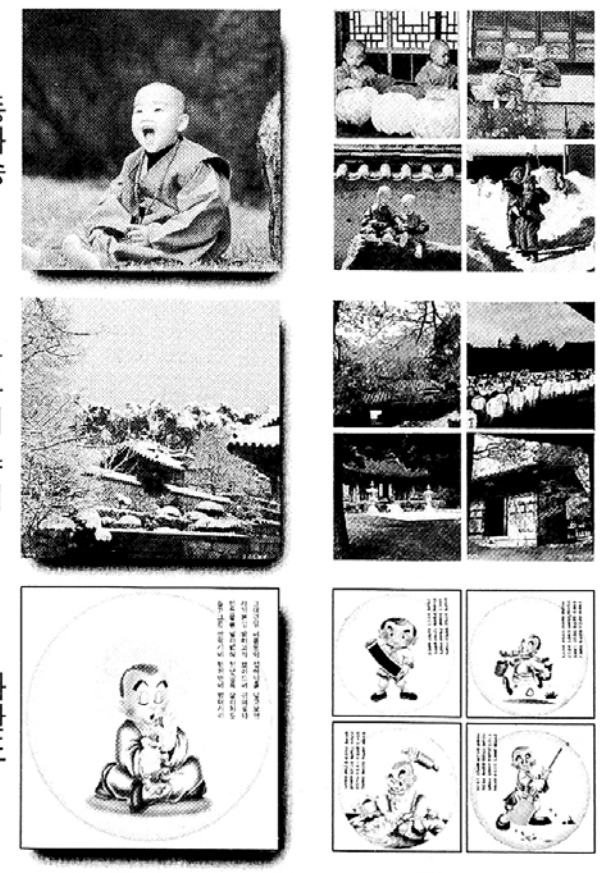
● 소프라노 / 정서영
·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부산 불교 교육대학 기 포교사 졸업
· 내원정사, 범어사 금강암 금소리, 부산불교 교육대학 합창지휘

● 피아노 / 김 진 (내원정사반주사)
· 부산여대 음악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빈 국립음대 마스터클래스 디플롬

■ 일 시 : 1997년 12월 3일 (수) 오후 7시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Pusan Cultural Center Medium Hall
■ 주 최 : 부산불교합창단 협의회
■ 후 원 : 부산불교교육대학·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포교사회
내원정사·범어사 금강암, 현대불교신문, BBS 불교부산방송
■ 특별후원 : 한미보청기, 대일학원, 무량도예, 세종헬스
■ 문 의 처 : 051)818-8659

불기 2542년 달력 5일이내 납품가능 합니다

동자승 (大·小)
산사의 향기 (大·小)
나한도 (小)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小)-사진 안장헌',
'동자승(大·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무인년 조견표가 들어 있습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이웃아픔 어루만지는 연말"

사찰 · 복지단체등 자비행사 다채
조계종 불우이웃돕기 창구 개설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행사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전체적인 경제위축에 어려움이 더 클 이웃들을 보살피자는 활동이 예년보다 다소 늘고 있는 것.

조계종 총무원이 불우이웃돕기 운동과 문의창구((02) 735-5864)를 개설한데 이어 서대문 백련사와 칠곡 흥국사가 불우이웃을 위한 송년법회와 전시회를 가졌으며 양산 통도사 지명스님이 거창군청에 빵 2만5천개를 보시했다. 또 속초복지관은 12일 불우청소년 10여명에게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주신행회(회장 신호식)도 12월 한달동안 보육원과 양로원을 위문할 계획이어서 훈훈한 미담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26일 전국 본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실시하여 결과를 내년 2월 28일까지 사회부로 보고해 줄 것"을 통보했다. 또한 조계종은 우리농산물 애용운동도 전개하여 경제살리기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 홍은동 백련사(주지 운경)는 11월 30일 대웅전에서 서대문구 생활보호대상자 1백10명을 초청하여 송년법회를 갖고 백미 20㎏들이 1포대씩을 나눠줬다.

경북 칠곡 흥국사(주지 정묵)는 11월 22일과 23일 경내 특설전시장에서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진품명품 전시회를 열었다. 2백80여점이 관매된 이번 전시회는 정묵스님이 30년간 수도생활중 틈틈이 모은 동·서양화등으로 수익금은 모두 가난한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통도사 지명스님은 11월 27일 거창군청을 방문하여 정주환군수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달라며 6백80만원 상당의 빵 2만5백개를 전달했다.

지명스님은 95년부터 7차례에 걸쳐 13만개의 빵을 불우이웃 4천2백20명에게 보시해왔다.

한편 청주신행회(회장 신호식)는 연말을 맞아 다양한 자비나눔 행사를 실시키로하고 7일 혜능보육원, 15일 청주양로원, 21일 무의탁노인, 21일과 28일 미평고교(구 청주소년원)를 방문하여 연료비·선물전달 및 다양한 위문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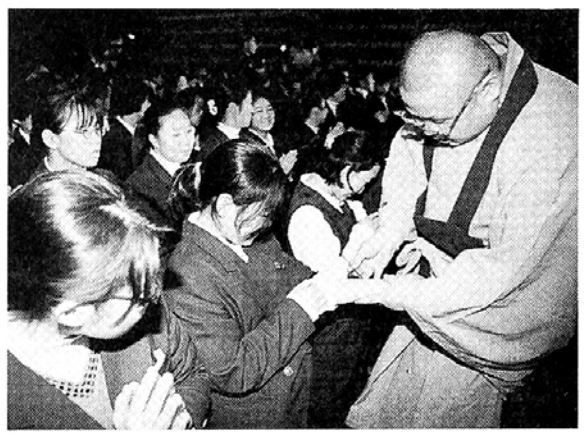
〈김원우 기자〉

범어사 복지법인 설립
봉사 · 장학사업등 추진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가 11월20일 부산시에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의 설립이 허가돼 부산지역 불교 복지활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범어사는 복지법인 설립과 함께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운영과 지원, 자원봉사단 구성, 장학사업 등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의 대표는 성오스님이며 이사는 벽파 선래 흥교 상운스님이다.



동국학원 학생·학부모 1천명 수계

'옴 살바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동대부중·고, 명성여중·고의 1천여명 청소년불자와 학부모, 교사가 일심으로 참회진언을 외며 참불자로서 거듭날 것을 발원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이 11월26일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에서 봉행한 서울지역 합동수계 현장. 오계를 수지하고 연비에 임하는 불자들의 결연한 모습이 법당 안을 가득 메운 만불(萬佛)의 미소를 닮아가는 듯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0억 재산 사후 국가기증 김영한보살

경제한파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유(無所有)의 정신을 실천한 불자가 있어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해 1천억원대의 요정 '대원각'을 '길상사' 사찰로 교계에 기증해 화제를 모았던 김영한(82)보살이 바로 그 주인공.

김보살은 경제적 불황의 골이 깊어지자 나머지 전재산을 사후 국가에 기증키로 결심했다. 10월말 지병인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수술을 받은 후 10분만 대화를 나누어도 숨이 찰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자 "여생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이달초 재산기증 공증절차를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리에서 김보살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치매증세도 있으니 정신이 맑은 지금 내 뜻을 밝히겠다"며 "나 죽거든 전재산을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쓰이도록 국가에 기증해 달라"고 말했다. 김보살이 이같은 결심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 것이라고 집착한 물건 때문에 근심한다.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떠난 것'이라는 부처님의 사상을 실천에 옮긴 것.

김보살의 남은 재산은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 대지 3백평의 7층짜리 남촌빌딩과 현재 살고 있는 8억원대의 용산구 이촌동 80평 빌라 등 모두 2백억원대에 달한다.

심장병등 건강악화
"과학발전 보탬됐으면"
작년 1천억 '대원각'
신도수행도량으로

진각종 '위덕대 군승'
종단협에 협조요청

조계종의 반대로 혼미를 거듭해온 위덕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문제와 관련 진각종이 마침내 독자추진에 나섰다.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위덕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문제와 관련한 문제를 종단협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11월25일 종단협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또 태고종 천태종을 비롯한 종단협 소속 24개 각 이사종단에도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진각종은 종단협에 발송한 공문에서 "이 문제는 조계종과 진각종 양자간의 문제가 아닌 범불교적 문제며, 종단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종단협 정관 시행세칙 '각 위원회 설치규정' 제3조 제4항에 의거 본 사안을 이사회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계종이 견지해 온 입장에 비춰볼 때 종단협 차원의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 & 뉴스

5일 '공동체운동' 심포지엄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은 5일 오후2시 서울YMCA 6층 지란방에서 '생태위기시대의 공동체운동'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생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하나로 관심이 높은 공동체운동에 대해 조명해보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천규석(공생농두레 대표) 김현진(행불선교센터 해외선교부) 고상현(한국불교환경교육원 연구원)씨가 '외국공동체운동의 사례발표' '우리역사에 나타난 공동체의 현대적의미' '현단계 국내공동체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다.

8일 한국불교기자상 시상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8일 오후 6시30분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제1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에는 이만섭(법보신문)기자, 기획·해설부문 이성수(주간불교신문)기자, 취재·보도부문 윤기석(현대불교신문)기자가 선정됐다.

기원학사 이전 반대

동국대 기원학사생(사생장 김정철·불교학과 3년)들은 11월26일 "지난 10일 학교측에 △중앙승가대로부터 기원학사 토지 매입 △불교대학 단독기숙사 건립 등을 요구했다.

학교측은 기원학사의 중앙승가대 이전은 불가항력이라 밝히고 △내년 일산에 4천2백평 규모 기숙사 건립 △이미 매입한 일산의 제일은행 야구단 숙소를 기숙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비의집 '김장나누어주기'

자비의집(회장 동광스님)은 11월27~28일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도운 가운데 1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대상은 무의탁 생활보호노인과 마포, 미아, 상계, 신내, 성산, 중계동 등 서울지역 6개동 소년소녀가장 4백가구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硏 개원

선문화 · 불교예술 · 아동교육 등 연구추진

종합적인 불교연구를 위한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 설립된다.

동국대 부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호진스님)은 4일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한다.

연구원은 불교문화 발전과 불교미래의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불교관련 사회과학 문화예술 연구 △연구회 강연회 추진 △논문집 발간등 출판 △국내외 불교 연구단체와 제휴 등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특히 연구원은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불교학, 선문화, 불교아동, 불교예술, 불교사회학 등 5개 분야의 연구부를 갖춘 연구위원회도 설치한다.

불교학연구부는 불교학 불교역사 불교철학, 선문화연구부는 선학 선사상 선실천, 불교예술연구부는 불교음악 불교미술, 불교사회학은 복지학 불교의학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日입본사서 1669년 필사본 '법화경' 발견

지난 4월 교토(京都) 일련종(日蓮宗) 본산 입본사(立本寺)에서 발견된 〈법화경〉 필사본이 일본 헤이안시대 후기(약 1669년경)에 사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총 1부(部) 8권으로 두루마리 형태인 〈법화경〉 필사본은 그 길이가 약 80m에 이르며, 한권의 길이가 10m, 폭 25㎝ 크기이다.

또 간결하게 쓰인 글자들 사이에는 금은박(金銀箔)으로 새긴 꽃, 새, 풀 그림과 행간에는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사본 발견 후 조사를 진행해 온 입정대(立正大) 나카오교오(中尾堯)교수는 "외장(外裝)은 에도(江戶)시대 것으로 보여지나 글자나 그림은 지금까지 최고로 인정돼 온 〈평가납경(平家納經)〉 법화경보다 오래되고 정교하여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또 "간혹 사습의 뿔로 새긴듯한 일본글자들이 보이는 것으로 봐 자주 독송된듯 하다"고 말했다.

동국대-日용곡대 첫 학술세미나

10일 日서 '한일전통문화 비교연구' 주제로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일본 용곡대학과 공동으로 10일 용곡대학 평화관에서 '한일 전통문화 비교연구'를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송석구총장과 가마다 시대요교수(용곡대)가 각각 기조연설하고 도업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일본화엄의 원류제고', 목정배교수(불교학과) '한국불교 계율사상의 변화', 오형근교수(불교학과) '한국의 유식사상과 그 문화', 이기동교수(인문학부) '한국고대의 토속신앙'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목탁소리

대선공약 유감

임 연 태 〈취재1부 차장〉

대선 가도가 뜨겁다. 경제적 위기 속에 달아오른 대선열기는 불교계라고 예외일 수 없다. 각당의 후보들은 이미 불교계를 향한 공약을 밝혔으며 단위조직을 통한 '불심 붙들기'에 매진하고 있다.

각 후보들과 당이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를 대하는 태도는 92년 대선때와 사뭇 다르다. 불교계의 현안 문제를 보다 깊이 들여다 보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고, 보다 많은 자리를 만들어 한걸음 더 다가서려는 의지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당이 내놓은 공약은 큰 차이가 없다. 현정부가 실수한 종교편향의 문제라든가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 사찰 환경보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공약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불교계에 있어 매우 현실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들은 불자들이 기대하는 불교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어처구니 없이 돌출된 현실문제일 뿐이고 이 현실문제를 해소시켜 준다는 공약이 불교발전의 묘약이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새 정부에게는 새로운 것을 기대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은 인정된 순간 이미 시정의 실마리도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에 따라서는 민족문화 수호의 차원에서 황룡사와 미륵사를 복원 하겠다든가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논하기도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따라 다닐 수 밖에 없다. 진정 불교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내놓은 공약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 그런가. 정치권이 다가와서 들여다 보는 눈은 한계가 있다. 불교계가 종교적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공약사항으로 떠오르게 유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불교 발전은 교단내의 노력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치권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불교계가 정치를 보다 적절히 '이용'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켜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맥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0)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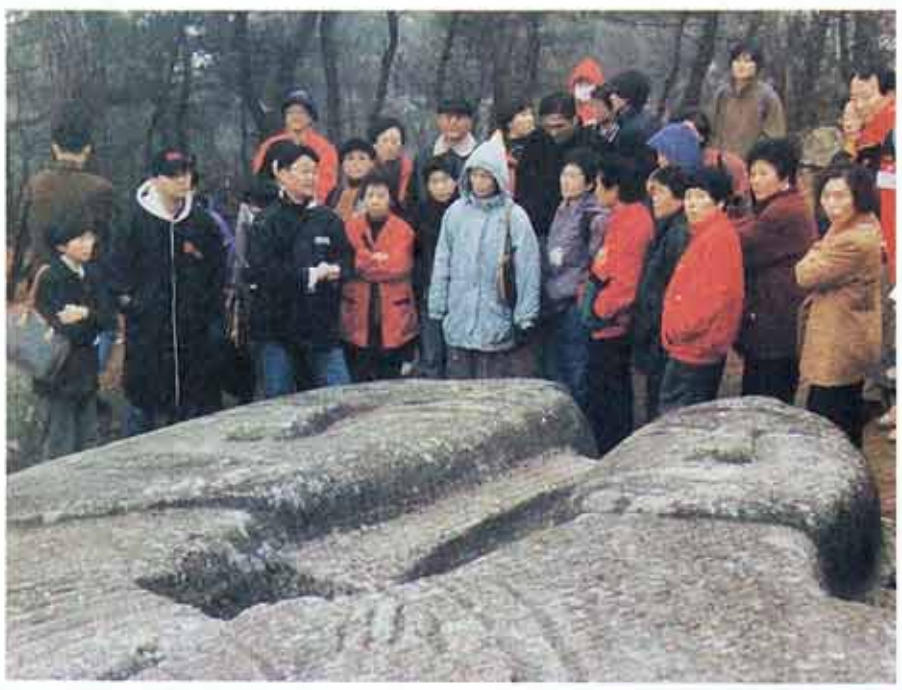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와불 일어나면 미륵세상"



◇천불천탑골의 바위 너설에는 어김없이 질박한 모습의 부처님들이 비스듬히 서 있다.



◇운주사의 상징으로 통하는 와불은 '부부불상'이란 오해도 받지만 일으켜 세우지 못한 미완의 불상인 채 미륵세상에 대한 염원을 담고있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11월 운주사·쌍봉사

"누운 부처님 언제 일어나시려나"

새벽안개가 걷히면서 운주사의 부처님들을 올 볼 수 있었다. 첫인상은 죄송스럽게도 '부처님들이 참 못생겼다'는 것이었다. 정교하게 조각되고 화려하게 개금된 불상들만 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첫인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못생긴 부처님들과 탑이 왜 그런 오지 산골에 즐비하게 모셔져 있는가 하는 이유였다.



◇운주사 초입에서부터 다양한 석탑들을 만날 수 있다.

운주사는 도선스님이 창건했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신뢰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한척의 배로 보고 그 중앙에 해당하는 이곳에 천불천탑을 조성해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다는 것이다. 도선스님은 도술을 부려 천인들을 불러 하룻밤에 그 많은 불상과 탑을 조성했으나 마지막 불상을 세우려는 순간 새벽닭이 울어 불사를 다 이루지 못했다는 설이 전해 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 미륵의 용화세계를 염원하며 천불천탑을 조성했다는 설도 있다. 또 이곳이 밀교 사원이나 도교사원이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운주사지의 복원때 '옴마니반메훔'이라는 글귀가 양각된 수막새가 발견됐고 불상들이 도포를 걸친 모습으로도 보인다는등 나름대로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설이 되기에는 약하다.

어쨌거나 운주사 천불천탑골의 공통점은 염원이 있다는 것이다. 국운의 순탄한 항해나 용화세상의 구현을 바라는 극진한 염원이 있어 천불천탑골은 오늘에도 순박한 사람들의 '쌀 한됫박의 기도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운주사의 상징인 와불(臥佛)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 오해는 이번 답사에 참여한 90여명도 갖고 있었다. 우선 두 부처님이 부부라는 견해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저 나란히 누워있는 형상에서 금슬좋은 부부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렇게 불려졌거나 남녀상열지사가 흔했던 고려시대에 조성됐을 가능성에서 온 추측이겠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저 좌상과 입상으로 한덩이의 암반에 조각되었을 뿐이다. 조각은 했으되 일으켜 세우지 못한 그 상황에서 용화세상에의 꿈이 무너져 버린 절망을 느낀 누군가가 "운주사 부처님이 일어서는 날에 이 세상이 미륵세상이 된다"고 외쳤다면 그 또한 좋은 세상을 향한 염원이 가득찬 외침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오늘의 우리들도 '운주사 부처님 일으켜 세우기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두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 운주사 와불님을 일으켜 세우는 정상으로 우리들 삶의 중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옮겨다 신비탈과 정상에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했을까. 와불에서 칠성바위로 이르는 중허리에 넓찍한 바위가 있고 거기에는 불상모양의 돌을 떨어낸 흔적이 있다. 그곳이 채석장인 셈이다. 운주사 부처님들과 탑은 어디 먼곳에서 돌을 날라다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투박스런 현무암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다.

칠성바위는 불상과 탑 이상의 신비를 갖는다. 하늘의 북두칠성이 땅에 투영된 모습 그대로의 자리에 원반형의 돌 일곱개를 배치해 둔 것이 칠성바위다. 신기하게도 그 바위의 배치 각도가 하늘의 북두칠성의 자리와 일치한다고 한다. 원반형의 돌이 크기가 다른 것도 북두칠성의 밝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운주사 칠성바위를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의 정보를 담은 가장 오래된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단순한 몇개의 선만으로 장삼을 표현하고 몸체가 못갖춘 균형미마저도 비스듬한 자세로 초탈해 버린 부처님들. 배고픈 사람에게는 보리개떡이나 호떡을 연상시키는 원반돌들을 쌓아 올린 탑(원형다층석탑·보물 제798호)과 투박한 석재 감실에 등을 맞대고 들어 앉아 천년 풍상을 넌즈시 바라보고 있는 부처님(석조불감 쌍배불좌상 보물제797호). 그리고 바위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부처님들. 운주사 천불천탑 그 자체는 돈도 벌고 싶고 오래 살고 싶기도 하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녀온 염원으로 천년을 넘는 세월을 지탱해 온 곳이기도 하다.

조선 성종12년에 권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운주사 좌우 산마루에 석불과 석탑이 각각 1천기씩 조성돼 있다"고 기록돼 있다. 그래서 천불천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나 보다. 천불천탑, 그러나 지금은 70좌의 불상과 12기의 석탑만 남아 있다. 일제시대만해도 지금의 3배였다고 한다.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안타까움은 이제부터라도 잘 지켜내는 원력으로 환치시켜야 하리라.

통일신라 때의 조형미의 극치를 자랑하는 시대에 조성된 철감선사 부도(국보 제57호)는 그야말로 자로잰듯 칼로 썬 듯 정교했다. 목조건축 양식을 본뜬 지붕돌은 처마끝의 암막새와 수막새 마저 세밀히 표현되어 있고 몸체에 새겨진 구름 사자 용을 표현한 조각들도 그야말로 '물을 박 주무르듯'한 신라인의 신기(神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쌍봉사 철감선사부도탑.

천불천탑 82기만 남아 안타까워
나라를 한척의 배에 비유 순항 염원

글=임연태 사진=고영배 기자

황호균 〈전남대박물관 학예연구사〉

전문가 안내

화순 운주사의 불교유적은 '다탑봉(多塔峰)의 천불천탑(千佛千塔)'으로 알려져 있다. 좌우로 퍽 벌어진 계곡 여기저기에 석불과 석탑들이 우뚝우뚝 서 있어 신비감마저 든다. 거기에다 장승같은 모습으로 부처를 조각하는 토속적인 조형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게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유적이며 미완의 도량이다.

운주사의 불적 중 신앙의 중심은 와불, 물집모양의 석조불감, 칠성바위 등이다. 와불은 실제 와불이 아니다. 대개 와불은 부처님의 열반상으로 측면으로 누운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운주사의 경우는 반가부좌 상태에서 앉아 계신 모습의 본존불과 서 계신 모습의 협시불을 암반에 조각하고 미처 일으켜 세우지 못한 미완성 부처님이시다. 석조불감은 〈동국여지승람〉 등 각종 문헌에 자주 보이는데, 운주사 불적 중 가장 중심적인 신앙처로 주목받았던 증거이다. 칠성바위는 배열상태나 크기가 북두칠성의 방위각이나 밝기와 흡사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 수치가 실물로 제공되는 초국보급 유물이다.

운주사는 통일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왔으나 전남대박물관이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3차례에 걸쳐 중창됐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천불천탑의 제작시기는 불분명하다. 대개

칠성바위 세계최고 천문자료
쌍봉사 철감선사부도탑 백미



◇운주사의 중심 신앙처인 석조불감쌍배불좌상과 원형다층석탑.

불상과 석탑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설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운주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쌍봉사는 철감선사 도윤(798~868)이 주석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선(禪)의 경지를 보여주려는 듯 각 면의 모서리에 안오금을 주어 날렵한 선맛을 낸 당대의 최고 걸작 철감선사 부도와 그 비가 남아 있다.

쌍봉사에는 우리나라 목탑의 원형을 가늠할 수 있는 대웅전이 있다. 1962년 해체수리를 한 적이 있고 84년 화재로 전소돼 1986년 새로 복원을 했지만 이전 모습과 달리 어색하다. 전에는 3층 지붕이 팔작이었으나 지금은 사모지붕으로 돼 있다. 탑이 아닌 대웅전이라는 전각의 용도로 고쳐 쓰기 위해 일부러 개조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좇기에 우리의 소견이 모자라는 듯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화재의 와중에서도 석가삼존불(석가, 가섭, 아난)과 동국진체풍인 대웅전 현판 글씨를 모셔 내왔다 하니 미운 맘이 좀 가신다.

스님들께 PCS를 사드린다?

부처님 법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머무름이 없으신 스님!
상의드리고 싶은 마음 항상인데, 山中 유선 자주 끊기고, 출타중이시고,
스님들께 PCS를 사드리세요. 항상 우리들 옆에 계십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

"납부하신 통화요금중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납부하신 통화요금중 5%가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고객의 취향에 따른 선택요금제

상품명	기본료 (1개월)	통화료(10초당) 평상	할인	심야
스페셜	13,000원	38원	9원	9원
라이트	10,000원	35원	26원	18원

●월 통화량이 많은 고객용 선택 요금제

상품명		프리200	프리300	프리400
무료통화시간		200分	300分	400分
기본료(1개월)		200分	300分	400分
통화료 (10초당)	평상	18원	17원	15원
	할인	14원	13원	12원
	심야	10원	10원	9원

●PCS 016의 표준요금

구 분		요 금	비 고
기본료(1개월)		16,500원	
통화료 (10초당)	평상	19원	평일오전8시~오후9시
	할인	15원	평일오전8시~오후9시 오후 9시~오후12시 공휴일오전6시~오후12시
	심야	10원	매일오후12시~다음날오전6시

●플러스 인터넷(월6,000원) : PCS 016을 가입하시는 모든 고객은 월 6000원의 추가 월정액만 부담하시면 KORNET을 매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50% 할인)

10월 이전 예약가입 고객의 실가입 전환과 예약가입 기간을 97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12월 실가입 전환시 혜택
가입비 5만원 전액면제 : 97년 12월 한달간 200分, 98년 1월 한달간 200分 무료통화 제공 (국제전화, 080서비스, 114안내 등은 제외)
97년 12월 ~ 98년 1월 2개월간 무지서비스로 전체

●11월 가입고객을 프리200, 300, 400을 선택 또는 변경하신 고객은 98년 2월 1일 이후 요금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비 5만원 전액면제 : 97년 12월 한달간 200分, 98년 1월 한달간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영업소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아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양지국 0344-912-2323